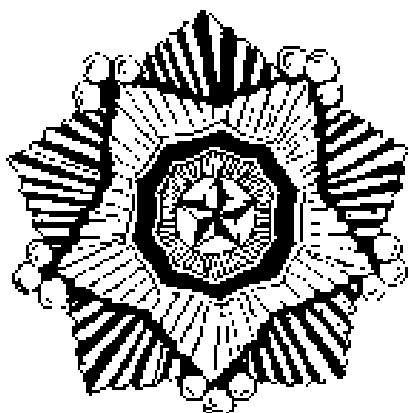




12

주체 90 (200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0(2001)년 제12호

(루계 제 650 호)

♦♦♦♦♦♦♦♦♦♦ 차 례 ♦♦♦♦♦♦♦♦♦♦

눈송이	4
사랑의 선물시계	7
총대철학의 지성이 번뜩이는 선군시대의 력작	8
명언해설	11
그날은 8월 4일이였다.....	12
우리 장군님 명필체	12
어머니들이 태어나다.....	13
단편소설창작과 형상의 초점에 대한 소감	24
군복의 푸른 빛은 어디로... ..	27
어머님의 영웅메달	28
어머님 밝히신 그 새벽에	28
선군시대가 드리는 영생의 노래	29
영화부문에서 컴퓨터화상처리기술의 도입	33
어찌하여 북쪽의 녀인들이... ..	34
돈지갑	35

내 고향마을	46
노을	48
파도와 나의 병사시절.....	53
빛발	54
어머니심정	56
말기고 갑니다.....	65
해방전 대중가요에서 《님》의 정서적의미	66
동지는 나, 나는 동지.....	69
《아리랑》의 연원과 민족적정서.....	70
특이한 통신방식-중성미자통신.....	72
시의 《신선》	73
내 고장의 분노.....	74
천막속에서 (외 1 편).....	76
용감성	76
새 세기 첫해편집을 끝내며	77
아들의 인사	80

눈송이

박호범

1

너는 무엇을 속삭이느냐
 너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늘 가득 땅에 가득
 소곤소곤 서로 서로 찾고 부르며
 하늘중천에서 내리는 눈송이 눈송이
 새 세기의 첫해가 다 간다고
 들에 지붕에 드넓은 광장에
 하늘이 뿌려 주는 눈꽃의 꽃잎
 내려 다오
 뿌려 다오
 제야의 은은한 종소리에 실려 내려 다오
 아리아리 아리랑 스리스리 스리랑
 강성부흥아리랑의 선율을 타고 내려 다오
 생활의 길은 멈춰 세울수 없는것이어서
 제대군인시인 내 동무
 새 생활의 창문을 열어 젖힌
 그 창가에 내려 다오
 책상우에 쌓인 두툼한 장편소설들
 그 한글자 그 한글자마다에
 꽃잎을 다 엮어 주자면
 내리는 눈이여
 너는 석삼년을 내려도 못다 내리리라
 내려 다오
 뿌려 다오
 이제는 한생을 살아 온 나도
 정들은 대동강반의 창작실을
 떠나야 하는 그런 때가 왔으니
 내가 앉았던 책상우에도
 한잎 눈꽃을 엮어 다오
 너는 때로 아픈 추억을 들추어 내기도 하지
 너는 때로 가슴에서 눈물을 퍼내기도 하지
 멀리 흘러 간 내 젊은 시절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 왔건만
 어머니 없는 빈집에 들어 서던 그 밤
 서글퍼 서글퍼 나는 많이도 울었지
 이제는 물러 가 버린
 고난의 시절은 그리도 모질어
 아버지의 제상에
 사발이 끓게 한술 밥을 떠놓고
 아들 며느리 손자들에게 절을 시키며
 이 백발로인이 흘린 피눈물의 값은
 어느 뉘에게서 받아 내야 하는가

사람이 살아 가느라 하면 아픔이 있기 마련
 고백하건대
 나에게 아픔이 있다면
 사람이면서도
 사람의 인격을 다 갖추지 못한 그것이고
 시인이면서도
 시인다운 인격을 다 갖추지 못한
 그 아픔이더라
 세상 모든것엔 제 나름의 격이 있는 법
 사람에겐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
 학문에는 그 학문에 따르는 품격
 그러니 시인의 인격이자
 그의 시의 품격이더라
 그 인격 그 품격의 값은
 그 인간이 활개쳐 날으는 정신의 날개
 그 인간의 머리에서 살아 움직이는 지식
 그 인간의 가슴에서 끓는 열기
 퍼내어도 퍼내어도 그 바닥을 모르는
 지혜의 샘물 그 청신함이더라
 인격이 높은 사람과 마주 앉을 때면
 절로 저절로 머리가 숙어 지고
 인격이 낮은 사람과는
 별로 나눌 이야기도 없는 그런것
 농민에게는 그 소박한 인격
 노동자에게는 그 강인한 인격
 애국이라는 이 하나에 목숨을 두고 사는
 이 정 깊은 사람들에게
 변변한 시 한편을 못 드린다면
 내리는 눈이여
 아예 흔적도 없이 나를 묻어 다오
 내 살아도 살아도 더 살고 싶은것은
 시의 날개를 타고 훨훨 날아 오르는것
 나는 가도 시를 남겨 두는 그 소망이나니
 눈이여 눈이여 내리는 눈이여
 너야말로 정 깊은 서정시와 같구나
 끝없이 깨끗한
 끝없이 애뜻한
 끝없이 부드러운
 끝없이 생각 깊은 서정 그자체가 아니냐
 내려 다오
 뿌려 다오
 온 한해 불같이 달리며 불같이 산
 우리 장군님의 동행자

이 나라 시인들의 머리우에
눈을 뿌려 다오
시를 뿌려 다오

2

너는 무엇을 속삭이느냐
너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다정하고 살뜰하다
살뜰하고 다정하다
내리면서도 조용조용
내리면서도 한들한들
내려서 쌓이는 눈송이 눈송이
뿌리는 꽃송이의 꽃잎
내려 다오
뿌려 다오
이해 가을엔 귀여운 어린이들에게
사과는 달디달고 배는 병배를
배 불리 먹인
무릉도원 우리 나라 과일군의
그 무성한 가지마다에
하얀 눈꽃을 만발하게 피워 다오
컴퓨터를 마주하고 나란히 앉아
지혜로운 눈을 반짝거리며 재물을 부리는
붉은 넥타이 나어린 재간둥이들의
그 고운 손우에 내려 다오
일망무제 새로 정리한 논벌에서
머리수건을 벗어 땀을 씻던
연백별 농장원너인들의
그 성실한 어깨우에 내려 다오
우뢰 울고 비 내리는 캄캄한 밤
최고사령관기를 앞에 날리며
포차들이 산으로 달리고
땅크들이 물을 건느던
선군혁명의 그 천리길우에 내려 다오
우리 나라에서 첫 위성을 쏘올린
그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을 쳐다보며
그 하늘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과학자들의 지혜 비끼 이마우에 내려 다오
하나의 산악파도 같은
금진강의 긴긴 언저우에
벼랑에 덩굴며
소리쳐 내리는 울림폭포에
가는이 오는이 발길 멈추는
메기떼 육질거리는 공장에
천이랑 만이랑
대홍단의 감자밭우에
은은히 땅을 울리며
기차바퀴를 찍어 내는 영웅기대에

봄 여름 가을
땀으로 온몸을 적시며 달려 온
내 나라 성실한 인민들의
그 성스러운 발자욱마다에
내 노래의 꽃다발을 엮나니
내려 다오
뿌려 다오
한생 농사를 지으며 사는 내 어릴적동무들
한생 기대와 운명을 같이 하는 내 동갑친구들
한생 군복을 입고 고지에 사는 내 전우들
다 보고 싶고 다 만나고 싶은
그들이 나의 동시대인들이다
우리는 험하게 살지 않았다
우리는 부유하게 살지도 않았다
우리의 웃음은 비싼 값을 치른 웃음이였고
우리의 행복은 피땀으로 가꾼 행복이었다
미국놈들과 판가리전쟁을 할 때엔
총을 들고 싸워 이겼는데
그처럼 처절한 고난의 시절은
무엇으로 싸워 이겼던가
굶주림을 이겨 내는것도 《전쟁》
추위를 물리치는것도 《전쟁》
그것은 그것은 오 그것은
미국과의 결사전이였다 하나의 전쟁이었다
우리를 말려 죽이고
우리를 나라 없는 고아로 만들려고 달려 든
미국과의 전쟁이었다
그래! 이긴것은 누구였고
패배한것은 뉘였던가
돌격대원들이 한걸 천막으로
겨울을 막아 내면서도
거리의 가로수 한대도 다치지 않은 애국
돌도 깨물면 삭일 젊은이들이
나라의 창고 유리 한장도 다치지 않은 애국
바란것은 무엇이였고
생각은 어디로 달렸기에
그처럼 강인했더냐
인간으로 인간을 지켜 냈고
인간으로서 조국을 지켜 냈더냐
인간이 자기 인격을 버리면
인간이 자기를 버리고
인간이 도덕을 버리면
인간자체를 버리고
인간이 량심을 버리면
나라도 버리는것이기에
그 인격을 지키고
그 도덕을 버리지 않고
그 량심을 수호하여 왔나니

오늘 당장 죽는대도
 버릴수 없는 조선사람의 삶의 법칙
 의리에 살며
 의리앞에서는 목숨도 서슴 없는
 조선사람 나의 동무들
 자기를 손 잡아 키워 주신
 아, 어버이이신
 아, 태양이신
김정일 장군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따르는 그 의리로
 우리는 미국을 이겨 냈나니
 보아라 세계여
 제 집의 쌀독이 빈줄 알면서도
 나라의 쌀독을 채우려 땀을 흘리는
 이 나라의 평범한 로인의 인격을
 억만금을 감추며 사는
 미국의 억만장자들과
 어떻게 나란히 놓을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 바로 그것
 자기조차 믿기 어려운 고난의 그 나날에
 오직 장군님만을 믿었고
 그 믿음을 버리면 죽음이고
 그 믿음을 지키면 승리인
 조선사람의 남다른 인격은
 공산주의혁명가의 인격!
 부러워 하라 세계여
 도덕의 완성
 인격의 완성
 이것을 안고 새 세기를 행진해 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에
 눈이여 내려 다오
 꽃잎처럼 뿌려 다오
 의리의 깨끗한 눈
 의리의 눈꽃송이를

3

너는 무엇을 속삭이느냐
 너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고운 눈송이
 깨끗한 꽃잎
 너는 멀리 산너머에서도 내릴테지
 너는 멀리 타국땅에도 내릴테지
 고이 고이 내려 다오
 부디 삼가 내려 다오
 한해 삼백예순다섯날
 우리 장군님 걸으신
 그 사연 많은 길우에 내려 다오
 전선길 농장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장군님의 그 선군길우에

꽃이여 함뿍함뿍 뿌려 다오
 야전차의 행군길을
 외국방문의 렬차행군으로 이어 가신
 5만여리 그 장정의 길우에
 눈이여 곱게곱게 내려 다오
 점점 험악해 지는 세상사를
 한눈으로 일별하시며
 점점 오만해 지는 원썬들을
 그냥 내버려 둘수는 없어
 자주의 행군길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 장군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선것은
 인류 량심의 그 뜨거운 눈길이었고
 따라 선것은 오, 따라 선것은
 온 세계였다
 우리 장군님 다니신 그 거리 그 광장
 들리신 그 정거장 그 궁전은
 오래전에 우리 수령님 다녀 오신
 사연 깊은 그 길이었다
 우리 수령님 잠시 들리셨던
 그 정거장을 돌아 보시는
 장군님의 감회는 그리도 뜨거우시였다
 우리 수령님 공장의 로동계급에게 남기신
 활달한 필적을 펼쳐 보시는
 우리 장군님의 눈시울은 뜨거우시였다
 낮에도 달리고 밤에도 달리는 렬차에
 우리 장군님 싣고 가신것은
 선군의 붉은기 그 빛발이었고
 천리에 굽이치는
 두만강의 물결소리였고
 천리만리를 단숨에 달리는
 백두산의 바람소리였다
 그때문에 오 그때문에
 조로공동선언문에는
 북나무의 설레임소리로 찾고
 백두밀림의 바람소리로 찾다
 우리 장군님은
 공동선언문에 수표를 하시며
 그 수표에
 세계의 안정을 책임지신다는
 지구의 무게를 실으시였다
 그때는 여름
 우리 장군님
 레닌묘를 찾으시여
 숙연히 머리를 숙이실 때
 세상에 오직 한분
 공산주의 붉은기의 수호자이시며
 그 붉은기의 사령관이신
 우리 장군님의
 공산주의자의 그 의리앞에
 전 세계가 경건히 머리를 숙이였나니
 그때의 그 계단에도 지금은 눈이 내릴테지
 그 하늘에선 눈꽃을 뿌릴테지

내 알기엔 조상 반만년이어
 어느 해 어느 세월부터였거나
 내 나라가
 이처럼 존엄 높고
 이처럼 강대하고
 이처럼 세계의 한복판에 우뚝 솟은
 그런 때가 일찌기 없었나니
 가슴에서 터져 오르는 한목소리
 한생을 살아 온 이 몸을 불 붙이는 한목소리
 아, **김정일!**
 수령이 위대하여
 당이 위대하고
 인민이 위대하고
 조국이 위대하다는
 이 절대불변의 진리로
 세계를 깨우치신 우리 장군님
 우리 장군님을 떠나서는
 세계를 이야기할수 없고
 세계의 질서를 세울수 없는
 이 세기의 정치원로
 이 세기의 중심

이 21세기의 태양이신
 우리 장군님의 그 거룩한 자욱마다에
 눈이며 부디 삼가 내려 다오
 축복의 꽃잎을 뿌려 다오
 내리는 눈은 푸근도 하지
 정답기도 하지
 수많은 눈송이와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정들은 이 거리를 걷는다
 눈하늘을 올려다 보고
 또 올려다 보느라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조차
 우리 장군님 뿌려 주시는
 사랑의 눈송이 같아라
 나는 그 사랑의 눈송이를 어깨에 얹으며
 이 시인의 가슴 부풀게 하는
 또 한해를 눈앞에 내다보노라
 내려 다오
 뿌려 다오
 가는 해의 눈송이여
 오는 해의 눈꽃이여

사랑의 선물시계

(총련)오홍심

나에게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손수 내 팔목에 채워 주신
 존함시계가 있습니다

30년 긴긴 세월
 내 삶과 더불어
 하루도 쉼없이 가고 가는 초침소리
 나에게는 이 소리가
 시간을 가리키는 소리로만
 생각되지 않습니다

새벽이 조용히 밝아 올 때면
 수령님의 목소리로
 다정히 나에게 속삭입니다
 -홍심아, 일어 날 때가 되었다
 그러면 나의 하루일이 시작됩니다-

교단에 서서 우리 말과 우리 글
 가르칠 때에도
 정다운 그 음성 들려 오고
 찬바람 휩쓰는 일본땅에서
 내 때로 힘겨워 주저앉을 때면

먼저 찾아 와 힘을 주는 목소리

《모범분단》으로 단연 뽐냈을 때에는
 기쁨을 함께 나누시고
 것처럼 귀중한 입학원서 받아 안고
 또 하나 우리 학교 학생이 늘어 났다고
 수령님께 아뢰일 때면
 수고했다고 속삭이는 목소리

별들도 잠든 고요한 밤
 교수안을 준비할 때면
 -홍심아, 밤이 깊었다
 자거라 어서 자거라-
 속삭이고 속삭이는
 어버이목소리

아, 초침소리, 초침소리
 어제도 내곁에 있었고
 오늘도 내곁에 있고
 래일도 내곁에 있으리
 변함없이 변함없이
 수령님의 이 딸과 함께

총대철학의 지성이 번뜩이는 선군시대의 력작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열병광장》에 대하여-

김학

선군혁명명령도로 빛나는 력사의 새 시대를 노래하며 총대철학의 심오한 진리를 무게 있는 형상으로 밝혀 낸 우수한 력사문헌적수령형상작품이 세상에 나온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열병광장》(정기종)은 총대처럼 사상적대가 바로 서고 구성형식이 정교하며 형상적중량감이 묵직한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의 관심속에 책이 보물이 일도록 널리 읽히고 있다.

소설은 총체적으로 지성도가 매우 높은것이 특징이다. 작품의 갈피갈피마다에는 보통의 상식으로써는 상상도 못할 깊고 풍부한 지식의 세계, 끝없이 경탄하며 놀이 올려다 보는 고상한 미의 세계와 형상기교의 세계가 황홀하게 펼쳐져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가 높은 지성세계에서 현실을 분석하고 잘 형상한 작품은 사상예술적으로 높은 경지에 오를수 있고 사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화시킬수 있다.》

독자는 무엇보다도 작품에 펼쳐진 새로운 철학세계, 미의 세계에 매혹된다.

문학의 지성세계는 작가에 의하여 발견된 새로운 생활철학의 세계와 아름답고 고상한 미의 세계의 개척에 있다. 생활의 귀중한 진리를 담은 심오하고 독창적인 내용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작품의 높은 지성도를 느낄수 있고 작품에 고상한 미의 세계가 펼쳐져야 형상은 만사람의 공감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

우리는 벌써 소설의 첫 머리, 서장에서부터 누구도 체험해 보지 못한 비범하고 위대한 철학세계에 빠져 들게 된다. 그것은 조국해방직후의 조성된 국제국내정세와 우리 나라에서의 정규무력건설을 두고 깊은 사색에 잠겨 아무르강기슭의 숲속을 밤새 걷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내면세계에 대한 매혹이다.

알에서 까나온 연인들이 작은 물가를 향해 쉬없이 돌진해 가고 있는 신비스런 자연본능을 놓고 론쟁을 벌리는 대원들에 대해, 그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겪게 될 눈물겨운 상봉과 기쁨만이 아닌 헤아릴수 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 아픔과 눈물에 대하여 그리고 일제가 항복서에 서명하는것

과 함께 참혹한 제2차세계대전은 종결되었으나 전쟁의 불티들이 도처에 널려 진채 아직도 끄물끄물 연기를 피우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심각한 정세를 놓고 깊은 생각에 잠기신 어버이수령님.

특히 38도선을 경계로 쏘미 두 대군이 주둔하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장으로 화할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민족력량도 좌익과 우익, 애국과 매국으로 갈라져 당쟁이 성행하고 종당에는 망국의 피눈물을 또다시 삼키게 될 엄중한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시며 조국에 나가면 즉시 당, 국가와 함께 정규무력을 건설할 의지를 굳히시는 어버이수령님.

계속하여 정규적혁명무력건설과정에 제기될 복잡다단한 시련과 난관을 두고, 여러 나라들에서의 혁명군대조직전례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을 두고, 지어 중국혁명에 대한 우리의 지원과 그 의의를 두고, 철두철미 우리 식의 혁명적무장력건설구상을 펼쳐 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사색의 폭과 깊이에 독자들은 절로 머리를 숙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얼마나 선견지명한 천재적위인의 예언이고 강인담대한 결심이었던가. 해방된 조국의 현실은 이국의 강기슭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예상하신 그대로였다.

총, 누구에게나 총은 관심박이였다. 아니 경멸의 대상이였다. 총 한자루 다룰줄 몰라 애인을 원수들에게 뺏기고도 그 큰 주먹으로 눈물만 씻고 다니는 억대우 같은 청년이 있는가 하면 무기수리만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기계기사도 있고 총 맨 사람은 자기 집대문안에 들여 놓을수 없다며 딸과 함께 온 경위대원을 문전박대하는 목사도 있다.

보통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적지 않은 간부》들조차 군건설사업을 《시기상조》요 뭐요 하면서 반대해 나선다. 더우기 그들은 쏘련군대가 진주해있는 조건에서 군건설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아무런 경제적밑천도 없이 어떻게 군건설을 한다고 그러는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얼 입히고 먹이겠는가, 돈 한푼 없이 그 많은 천과 신발, 식량을 어떻게 대겠는가, 공장 하나 돌아 가는게 없는데 총은 어디서 나며 대포와 탱크, 비행기와 함선은 어디서 나는가, 괜히 군건설이요 뭐요

하면서 쏘련사람들의 비위나 상하게 하지 않겠는가, 헛된 짓이라고 하면서 군건설을 시비하였다.

당시의 정세는 그야말로 《보통사람들》이나 《적지 않은 간부》들의 안목으로는 도저히 헤아릴수 없는 정치정세였다. 해방된 조국의 현실은 당, 국가 건설과 함께 군건설을 초미의 문제로 제기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시 중국동북에서 일어난 내전, 《중쏘우호동맹조약》에 의해 쏘련군대가 철수하는 때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이 장개석군대를 로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벌여 질 사태를 명철하게 분석하신다. 그러시면서 지금 일부 사람들이 해방만세만 부르며 미국을 《해방자》, 《원조자》로 취율리는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하시였다.

또한 수령님께서서는 일부 쏘련사람들까지 우리의 군건설을 방해해 나섰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손에 무장을 잡고 일제와 결전을 선포할 때도 그렇고 쏘련이 동서양쪽에서 공격 받을 위험에 처했을 때에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는 구호를 들고 피 흘려 싸운것이 누구에게 잘 보이거나 그 누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였다고, 우리는 절대 남의 똥에 놀지 않는다, 남의 눈치를 볼것도 없고 무서워 하지도 않는다, 누가 뭐라든 우리는 자기의 신념에 따라 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준철히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책동지에게 이러한 실정을 이야기하시면서 예견했던것보다 더 많은 애로와 난관이 앞을 막아도 우리는 군건설사업을 적극 내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혁명이자 총이고 군대이자 겨레의 운명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수난의 력사가 되풀이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정녕 해방직후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 우리 수령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내릴수 없는 대결단이고 배심이고 위력한 총대철학인것이다.

인적요인도 경제적밀천도 없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전적으로 우리 식으로, 우리의 혁명적무장력건설에 그 어떤 다른 나라 방식도 섞어서는 안된다는 우리 식에 철저히 의거한 총대철학.

혁명이자 총대이고 군대이자 겨레의 운명이라는 우리 수령님의 선언에는 얼마나 심오한 뜻이 깃들어 있는가. 여기에는 계급투쟁의 특수한 폭력수단으로서의 총이 생기고 군대가 태어난 때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장구한 총대력사가 함축되어 있고 류례없이 간고하고 특수했던 조선혁명의 피의 경험과 교훈이 집약되어 있다.

소설은 우리 수령님의 총대철학이 얼마나 심오하고 비범하며 확고부동한 군건설의 지침인가 하는것을 전형적인 력사적사실들에 대한 진실한 형

상적화폭으로 감동깊이 펼쳐 보이고 있다.

당창건준비로 그토록 분망하신 때 개선연설도 하시기전인 10월 2일 평천리 병기공장에 대한 현지지도, 군사정치간부핵심의 원중앙인 평양학원터전확정을 위한 지율리현지지도, 새 나라의 항공무력창설을 위한 신의주비행장 현지지도, 위협에 처한 중국혁명의 결정적전환을 위한 단동방문, 전국 도처에 설치된 보안간부훈련소들에 대한 현지지도, 최현의 제2분소 시범전술훈련에 대한 현지지도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기관단총에 대한 국가시험사격집행...

그리고 수령님과 김책, 안길, 최현을 비롯한 항일의 전우들, 한종삼, 광일무, 지용도, 최정보, 리학, 홍근수, 고운, 지율리농가집주인내의 등 수많은 각계층 인간들과의 밀접한 관계는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우리 총대의 성격과 사명, 군건설의 원칙과 방도 등 총대철학의 과학성과 진리성, 독창성과 혁명성에 대한 위력한 형상적해명으로 된다.

특히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경위대의 실탄사격장에 나오시어 시범사격도 해보시며 총에 대한 귀중한 말씀도 해주시는 장면에서 독자들은 우리 총대의 무게를 다시금 묵직히 감수하게 된다.

《...총이란 쇠불이가 아니예요. 이 총에도 정신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말하자면 자기 주인이 얼마나 아껴 주고 귀중히 여겨 주는가 하는데 따라 달라 진답니다. 총을 벗으로, 더없이 귀중한 혁명동지로 여겨야 해요...》

작품의 철학세계는 미의 세계와의 결합속에 승엄한 화폭의 련속으로 더더욱 깊어 진다. 여기서 안길과 박락권 등 혁명전우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동지의 사랑의 세계는 참으로 눈물없이 읽을수 없는 인간사랑의 숭고한 미의 세계이다.

신병으로 고생하는 안길을 위해 때로는 타일러도 보고 때로는 엄포도 놓으면서 시종 마음 쓰시는 아버지수령님, 오래동안 헤어져 생사를 알길 없는 안길의 가족을 끝내 찾아 내시어 훌륭한 집까지 마련해 주시는 김정숙어머님.

아버지수령님께서 점점 더 깊어 가는 안길의 병치료를 위해 외국으로 떠날것을 엄명하시고도 속이 편치 않으시어 열병식훈련장으로 되어 있는 눈덮인 미림벌에서 안길을 말에 태우시고 견마잡이로 밤새 걸으시며 그를 위로해 주시는 장면, 그처럼 아끼시던 박락권의 유복자를 만난것이 그리도 기쁘시어 손수 이름까지 지어 주시며 앞날을 축복해 주시는 화폭은 정녕 백두산위인들만이 지닐수 있는 사랑의 최고정화이고 숭고한 미의 최절정인것으로 하여 사람들을 끝없이 매혹시킨다.

결국 작품의 철학세계, 미의 세계에 대한 매혹

은 소설의 화폭의 중심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철학세계, 미의 세계에 대한 배후이다.

이것은 수령형상작품의 지성도는 작품의 중심에 모신 수령의 위대한 품모에 대한 폭 넓고 깊이 있는 탐구적형상을 통해서만 확고히 담보될수 있다는것을 말해 준다. 여기에 수령형상문학을 창조하는 작가의 남다른 영예와 긍지가 있고 피라는 탐구와 사색이 있다.

장편소설 《열병광장》에는 사람들이 새롭게 알고 받아 들일만 한 깊고 풍부한 지식이 적지 않게 담겨져 있는것으로 하여 인식적의의도 크다.

사람은 작품을 통하여 사상정서적으로 교양받을뿐아니라 인간과 사회, 자연에 대하여 모르던것을 새로 파악하기도 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지식을 더깊이 다지기도 한다. 지성도가 높은 작품일수록 거기에 새로 배울것이 많다. 독자들이 이 소설에 매혹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작품을 통해 자기들의 지성세계를 한층 더 높여 주기때문이다.

물론 해방직후 정규적혁명무력건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사실이다. 하지만 그세부에 이르기까지 풍만한 생활체험으로, 한마디로 말하여 산 숨결로 약동하는 생동한 화폭으로까지 감수하고 있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우리는 소설을 통하여 당시 정규무력건설과정에 성장발전하여 온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성격적특징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며 당시 정규무력건설이 어떤 복잡다단한 시련과 난관을 뚫고 진행되어 왔는가를 구체적인 산 현실로 인식할수 있다.

제2차세계대전의 종결후 중국과 조선사이에 존재했던 미묘한 국제적관계, 중국동북지방에 조성되었던 심각한 정세와 그를 타개하기 위한 우리 항일투사들의 결사적인 투쟁, 중국공산당군대에 대한 우리의 10만정의 무기지원과 우리 나라 경내를 통한 동북진출, 박락권부대에 의한 희생적인 장춘해방작전! 우리의 정규군건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부 조선사람들의 방해, 정규군골간 양성을 위한 조직구성체제와 각 단위의 지휘성원들, 그 지역적분포정형...

해방당시 남조선에 조성된 엄중한 정치정세와 괴뢰군창설을 위한 미제의 교활한 책동...

실로 방대한 인식적자료가 소설에 담겨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작품의 내용과 뗄수 없는 필수적요소로 설정된것으로 하여 그 효과가 비상히 크다.

작품의 지성세계는 등장인물들의 리지적성격을 옹계 살려 낼 때 더욱 풍부해 지는 법이다.

작가는 무엇보다도 소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리지적품격형상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었다.

사실 이 장편소설의 지성도의 무게는 심오한 총대철학을 지니시고 독창적인 주체적군건설사상

을 현실로 펼쳐 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 품모의 무게라고 말할수 있다.

소설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지니신 총대철학을 토지개혁사업에 참가하게 될 한중삼을 비롯한 평양학원학생들에게 하시는 수령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뚜렷이 강조하고 있다. 이날 그이께서는 이 세상 제일 귀중한것이 총이라고, 총이 없으면 나라도 주권도 없다고, 동무들이 메고 있는 총우에 나라와 인민의 운명이 실려 있다고, 총이자 동무들이고 동무들이자 총이라는 뜻 깊은 말씀을 하신다.

하기에 우리 수령님께서 남조선의 정세와 주변 나라들의 실태를 선견지명의 천리혜안으로 내다보시고 인적요인도 물질적밀천도 없는 우리 나라 실정에서 한시바빠 당, 국가 건설과 함께 정규군건설에 선차적힘을 넣으시지 않으셨던가.

독창적인 주체적군건설사상을 내놓으시고 군건설을 철저히 우리 식으로, 언제나 인민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계속 중단함이 없이 힘 있게 다그쳐 나가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지 않으셨던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모두 한품에 안아 훌륭한 총대로 역세계 키워 주시는 아버지수령님.

소설은 아버지수령님께서 광일무, 한중삼을 비롯한 천대 받던 근로인민의 아들딸들뿐아니라 친일파로 물리우던 지용도기사나 량심적인 홍목사의 딸 금옥이와 같은 사람들을 나라와 인민을 지키는 총대로, 혁명의 총대의 무성한 숲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해방된 조국땅에 새 정규무력을 안아 오신 수령님의 위인적품모를 구체적인 생활화폭으로 품위 있게 펼쳐 보여 주고 있다.

소설은 등장하는 각이한 인물들도 높은 지성세계에서 형상함으로써 작품의 지성도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작가는 지용도기사나 홍근수목사, 류덕호원장 등 리지적성격을 가진 인물들은 물론 우직스럽고 《미련한 촌뜨기》 한중삼, 꺾하면 우락부락하는 《도끼모태》 광일무 등 긍정인물들을 지성 있게 그려 내고 있으며 지어 반동패거리의 두목 서경팔을 비롯한 부정인물들도 높은 수준에서 형상하고 있다.

총에 대해서, 군대에 대해서, 생명에 대하여 제단의 일가견을 가진 지용도, 홍근수, 류덕호의 형상이 그 나름대로의 지성미를 풍긴다면 총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어디다 써야 할지도 모르던 한중삼, 광일무의 성장과정은 또한 그것대로 작품의 지성도에 무게를 실어 주고 있다. 그리고 계급적본심은 깊숙이 속에 묻어 두고 시종 거짓웃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서경팔의 형상도 얼마나 단수 있는가.

작가는 항일의 맹장들인 최현, 안길의 리지적

측면을 잘 살려 뉘으로써 투사들의 성격, 인간됨에 대한 인식을 더 깊이 하고 작품의 지성세계에 한결 밝은 빛을 던져 주었다.

쏘련 붉은군대출신인 고운의 교조주의적인 군사관점과 태도를 두고 것처럼 무섭게 펄펄 뛰며 지어 혼련지도로 내려 왔던 그를 쫓아 버리기까지 했던 《무지》한 최현, 그가 스스로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 뵙고 자기 잘못을 심심히 뉘우치고는 다시 고운을 찾아 가 사과하고 자기 부대로 데려 가는 장면, 쾌활하고 락천적이며 익살꾸러기인 안길, 그가 박일무와 홍금옥의 사랑을 성사시키기 위해 원심을 쓰는가 하면 또 자기를 입원시키려는 류덕호원장과 《대결》하는 장면은 그가 얼마나 높은 충성과 지성세계, 전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세계를 간직한 참된 인간인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설은 이러한 각이한 인물들을 단순한 개성으로가 아니라 정규군건설시대의 특징과 사회의 본질적면모를 체현한 시대의 전형들로 형상함으로써 작품의 지성도를 한층 높였다.

총을 다루어 본 사람들은 누구나 느껴 본것이지만 정녕 총처럼 정교한 구조를 가진 물건은 세상에 있을것 같지 않다. 수십개나 되는 때 부분품들이 얼마나 기교 있게 서로 맞물려 있는지 약간의 드림에도 작용하지 않는다. 총이야말로 정교한 《예술작품》이다.

장편소설 《열병광장》은 총의 구조처럼 장, 절의 형상과제가 명백하고 구성체계가 정교하게 맞물려 있다. 소설의 지성적향기는 여기에서도 풍긴다.

소설에는 수많은 역사적사건과 사실, 인물과 생활, 자연과 정황, 세부와 일화들이 들어 있지만 그 모든것은 다 군건설이라는 하나의 형상선에 얹혀 들면서 그 역사적사변속에 심어 진 총대철학을 밝히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소설의 어느 절이나 어느 인물이나 지어 작은 세부 하나를 들어 내도 마치 총대의 어느 부분품을 빠뜨린것처럼

전반적인 구성이 흐트러 지며 장면들의 결합이 이루어 질수 없게 되었다.

비록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인물들 같지만 작품에서 한종삼과 박일무와 같은 인간들의 성격형상이 없었다면 소설은 아마 총대의 귀중함과 필요성, 우리 총대의 계급적사명과 혁명적성격에 대하여 그토록 생동한 체험과 심오한 철학으로 밝혀내기 힘들었을것이다.

소설은 50여년전의 역사적사변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데만 그치지 않았다. 시종 오늘의 견지에서 그 거대한 사변이 가지는 의의를 투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이 소설의 지성도를 담보하는 구성상기교이다.

특히 이국의 크지 않은 병영마당에서 조선빨찌산대장 **김일성**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한 소박한 열병식으로 서장을 시작한 소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사열하시는 성대한 열병광장의 장엄한 모습으로 종장을 장식한 구성조작은 우리 식 총대철학의 진리성과 그 거대한 생활력,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승승장구할 우리 혁명무력의 불패의 위력에 대한 조형적확인으로 된다.

소설은 홍목사의 일기와 전운필의 속기, 고운의 사업기록을 그대로 펼쳐 보이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작품의 역사문헌적특성을 강화하고 함축과 비약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기교도 보여 주었다.

작품의 지성도는 작가의 지성도이다. 이런 의미에서 독자들은 몇해전 종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를 창작하여 자기들과 친숙해 진 작가가 이번에 또다시 지성미가 번뜩이는 작품을 창작한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한다. 아울러 작가가 자기의 개성적특기를 더 잘 살려 오늘의 위대한 역사를 안고 노래하는 수령형상 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해 줄것을 바라는바이다.

총대처럼 곧고 정교하고 묵직하며 또 위력한 《열병광장》과 같은 작품을...

명언해설

《혁명적인 노래는 투쟁의 대오에 높이 울리는 진군가이며 시대의 행진곡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언에는 혁명적인 노래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 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혁명적인 노래는 예술의 여러 형태들가운데서 가장 선동적이고 호소력이 강한 형태이다. 그것은 혁명적인 노래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커다란 사상정서적감화력을 가지기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혁명적인 노래를 투쟁의 대오에 높이

울리는 진군가, 시대의 행진곡이라고 하는것이다.

혁명적인 노래는 자본의 철쇄를 마스기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의 첫 시기부터 전장에 울리는 북소리나 진군의 나팔소리와도 같이 천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 있다. 우리 인민이 사랑하는 명곡 《동지애의 노래》를 비롯한 혁명적노래들은 동지적단결로 개척되고 승리하여 온 주체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시대를 진감시키고 있다.

그날은 8월 4일이였다

송재하

얼마나 쓸쓸한
날과 달들이 흘렀던가
수치와 배신의 그림자
무겁게 드리운
붉은광장의 레닌묘에

그칠새 없었던 발걸음소리
희미해 진지 오렸고
상실과 아픔의 낮과 밤들로
위인의 모습은
고요한 정적속에 묻혀 있었거니

허나
우리 장군님 오신 그날
태양이 금시 떠오른듯
붉은광장의 하늘가에
희디흰 비둘기떼 날아 올랐다
모스크바의 푸른 가로수들은
환희로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그날은 8월 4일
레닌묘앞에서 맹세를 다지던
사단과 군단의 근위기발들이
다시 펄럭이기 시작한 날이였다
붉은광장을 짝 덮던
수백만의 긍지로운 환호성

다시 메아리치기 시작한 날이였다

밝은 해살을 받으며
머리 든 명예위병들이
레닌묘앞에 줄을 지어 서 있고
10여년만에 울리는 장중한 군악은
차넘치는 격정으로 뜨겁고...

아 우리 장군님
짓밟히고 기울어 저 가는
도덕과 의리를
선군의 붉은 기발로 휘감아
세기의 하늘가에
우뚝 올려 세운 그날

우울과 절망으로 흐려 졌던
수억만의 눈동자
희망으로 밝은 빛 뿌렸다
앞날에 대한 열렬한 확신으로
심장과 심장은 고동쳤다

아 우리 장군님
참다운 정의로 아름답고
위대한 진리로 수호될
새세기의 모습을 인류앞에 펼쳐 놓은
아, 아, 그날은 8월 4일이였다

가사

우리 장군님 명필체

리혜옥

보기만 해도 정이 끌리는
우리 장군님 명필체
다정다감한 인정미 흘러
누구나 매혹된다네
만민을 포용하는 태양의 빛발인가
아 우리 장군님필체 세상명필체

보기만 해도 새힘이 솟는
우리 장군님 명필체
서리발시선 눈앞에 어려

원썬무리들 벌벌 떠네
천지를 뒤흔드는 령장의 기상인가
아 우리 장군님 필체 세상명필체

보면 볼수록 천하제일인
우리 장군님 명필체
자주평화의 밝은 미래도
그 옥필속에 빛나네
온 세계가 우러르며 심장으로 받드는
아 우리 장군님 필체 세상명필체

어머니들이 래여나다

리영환

1

단풍이 붉게 타는 칠봉산 숲속길을 따라 세사람이 걸어 가고 있었다. 혼성림이 우거진 울창한 수림속으로는 한낮의 해빛이 가닥가닥 스며 들었다.

맨앞에서는 키가 작달막한 로인이 가라말을 끌고 갔다. 그 뒤로 검정치마에 자주색저고리를 입은 김정숙동지께서 회색봄외투를 입고 안경을 낀 몇쟁이녀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며 뒤따랐다. 대살져 보이는 로인은 여기 칠봉산 《부인료양소》 경비원인데 김정숙동지께 길안내를 하여 드렸다.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보기 좋게 지저 넘긴 현숙한 녀인은 쏘련의 의료대표단 성원으로 조선에 나온 렬채봉의사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굵이굵이 큰길이나 있었지만 산책을 할바에는 숲향기를 맡으며 숲속을 걸어야 제맛이 난다고 하시며 오솔길을 택하시었다.

칠봉산은 그 옛날 칠선녀가 무지개를 타고 내려왔다가 일만정치에 취하여 그대로 일곱개의 봉우리로 굳어 졌다는 전설의 산이다. 칠봉산은 경치도 아름답지만 《명릉사》를 비롯한 큰 절간과 고적유물들도 많은데다 만병을 고친다는 약수까지 샘솟아 예로부터 유흥지로 소문이 났다. 하여 나라에서는 해방된 이듬해 봄 이곳에 《부인료양소》를 지었다.

여기저기 등산을 하는 녀성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녀인들은 손나팔을 하고 산이 울리도록 웨치기도 하고 은방울을 굴리는듯 한 웃음발을 날리기도 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환희에 넘친 녀성들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었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렬채봉을 돌아 보시었다. 눈확이 우뚝하여서인지 별스레 코마루가 우뚝 일어난것처럼 보이는 녀인의 얼굴은 질게 화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수척하고 여위어 보였다. 지어 침울해 보이는 그 얼굴에 이쁨할수 없는 흥분이 조용히 타올랐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걱정애 잠긴듯 한 렬채봉을 바라보며 그에 대한 생각을 이어 나가시었다.

그이께서는 얼마전에 렬채봉을 만나주시었다. 렬채봉은 한달가까이 조국에서 지냈건만 그의 얼굴은 병색이 짙었고 그 어떤 알지 못할 번민과 수심에 잠겨 있었다. 가슴속에 말 못할 곡절이 있는것이 틀림 없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렬채봉의 가슴속 고충을 풀

어 주고 싶어 물으시었다.

《채봉선생, 조국에 와서 말 못할 비밀이 무엇이 있겠어요. 제가 힘 있는껏 도와 드리겠으니 무슨 사연인지 말씀하십시오. 의사선생이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가야 조국의 마음도 편할게 아니나요.》

그이께서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자 렬채봉은 자초지종을 털어 놓았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 렬채봉은 세살난 딸애를 데리고 친정어머니와 함께 나무리벌에서 살았다. 어느 봄날, 돈 벌러 떠나갔던 남편이 연해주에서 병에 걸려 운명직전에 놓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남편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렬채봉은 당장 떠나겠다고 나섰다. 어머니는 녀자가 홀몸으로 그 먼 길을 어떻게 다녀 오겠느냐고 만류했지만 남편없이 하루도 살수 없는 렬채봉은 떨어 지지 않겠다고 울며 발버둥치는 딸애를 어머니에게 맡겨 놓고 무작정 떠났다. ...간난신고끝에 연해주에 이르니 남편은 멀리 서쪽에 있는 병원에 실려 갔다고 한다. ... 걸음걸음 힘겹게 중앙아시아까지 찾아 갔지만 맞아 준것은 남편의 무덤뿐이었다. 이제는 돌아 갈 힘도 없었고- 조국은 아득한 만리끝에 있었다. 두고 온 딸애가 그리웠지만 이제는 제 마음대로 돌아 갈수 없는 이국인이 되었다.

낯설은 이국생활은 외롭고 서글웠다. 고독한 이국생활을 숙명으로 감수하며 빛없이 살기에는 렬채봉의 심장은 너무도 젊었고 모지라진것이였다.

그는 운명에 도전하여 독한 마음을 먹고 일어섰다. 병원 간호부로부터 시작하여 조산원을 거쳐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으며 학사의 학위까지 받았다. 지금은 큰 병원의 기술부원장으로서 국제민주녀성련맹 리사직을 겸하고 있다. 그는 녀성으로서 얻을수 있는 명예와 지위를 다 쟁취하였다. 하건만 제아무리 큰 명예와 지위를 얻었다고 해도 마음속의 공허와 우울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헤어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던 딸애의 모습이였다. 그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름은 리성녀, 나이는 28살... 살았으면 어머니가 되었을 딸애, 그의 생사를 알기전에는 죽을수도 없는것이 렬채봉의 심정이다. ...

《찾아 보지요. 살아만 있다면 꼭 찾을수 있을거예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나무리벌에 알아 보았다. 25

년전 친정어머니가 손녀를 업고 방랑의 길을 떠났다고 한다. 친정어머니는 돌아 갈 년세라 치고 딸애는 어디로 갔을가? ... 곳곳에 수소문하여 28살나는 리성녀에 대하여 다 알아 보았지만 렬채봉의 딸은 없었다.

어제 군인민위원회에서 칠봉산절간에 살고 있는 너승의 이름이 리성녀라는것을 알려 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렬채봉에게 말씀하셨다.

《그 너승이 혹시 딸일수도 있어요. 칠봉산구경도 할겸 저와 함께 가보지요.》

숲속은 어디를 둘러 보아도 절경을 이루었다. 불길처럼 타오르는 단풍나무들, 다복다복 피어난 들국화, 우짖는 새소리, 맑은 시내, 산열매 무르익는 향기... 기암절벽을 미끄러져 내리는 장쾌한 폭포는 또 얼마나 멋진가!

저 멀리 잣나무가 우거진 골짜기에 《명릉사》의 청기와지붕이 보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절간이 가까와 올수록 가슴이 울렁거리는것을 느끼시였다. 렬채봉이도 《상봉》의 순간이 가까와 오자 흥분되는듯 안경을 닦아 끼며 머리를 비다듬었다.

그들은 잠시 다리쉬을 하고 경비원아바이의 안내를 받으며 《명릉사》로 갔다.

유구한 렬사의 유물인듯 팔각탑이 솟아 있는 마당을 지나 어느 한 암자에 이르니 장삼을 걸친 너승이 불상앞에서 정신없이 념불을 외우고 있었다. 너승은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섰지만 인기척을 못 느낀듯 정신없이 빌고 또 비는것이였다.

그의 옆에는 예닐곱살쯤 되어 보이는 총각애 하나가 기신없이 누워 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한순간 너승이 가궁하게 생각되시였다. 어이하여 녀자가 불도의 길에 나서게 되었을가? 해방된 오늘 많은 중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너승은 부처와 떨어 질수 없는 그 무슨 연고라도 있단 말인가?

이윽하여 너승은 뜻밖의 래방자들을 놀라웁게 바라보며 두손을 읊하고 일어 섰다.

《나무아미타불.》

경비원아바이가 너승에게 다가가 귀속말로 뭐라고 이르자 너승은 어찌할바 몰라하며 다시금 무릎을 꿇었다. 빨찌산의 녀장군으로 소문난 김정숙동지께서 이 한적한 절간에 찾아 오실줄이야 꿈엔들 생각했겠는가.

《제 미천한 중머리로 루추한 곳에서 녀사님을 뵈는 망녕을 부렸으니 부디 용서해 주옵소서.》

《스님, 그러지 말고 머리를 드십시오.》

김정숙동지께서는 너승의 두손을 잡아 일으키시였다. 너승의 오목할사한 두눈에 눈물이 펴고 여울랐다. 검스레한 버들잎형얼굴이며 기다란 코 날개밑에 움푹 패인 깊숙한 주름때문인지 사람이 곱혀 보이고 나이를 좀처럼 가늠할수가 없다. 인중까지 길게 내리드리운 두드러진 코가 인상

적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너승의 눈확이며 코생김이 렬채봉의것과 비슷한데 놀라시였다.

렬채봉은 기대가 간절한 눈빛으로 너승을 찬찬히 살펴 보았다. 너승은 렬채봉을 보는 순간 입을 반쯤 벌리며 최면술에 걸린 사람처럼 까딱하지 않았다. 허공에서 부딪친 두 녀자의 눈길은 오래도록 엉켜 있었다. 이어 너승이 먼저 눈시울을 내리깔며 쓰러져 있는 아이를 그어안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없이 굴러 내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너승이 안고 있는 아이의 머리를 짚어 보시였다. 불뉘가 같다.

《이 애는 웬 아이입니까?》

너승은 누가 뺏기라도 하는듯 아이를 꼭 그어안으며 기겁하여 물러 섰다.

《엠편에 걸린 애울시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이다.》

아이는 간신히 숨을 몰아 쉬고 있었다.

《그런데 왜 가만 놔둬니까? 병원에 가지 않고... 어찌다 이렇게 됐습니까?》

너승은 안절부절하며 말씀 드렸다.

...해방이 되어 두해가 흘러 다른 중들은 다 집으로 돌아 갔지만 혈혈단신인 리성녀는 갈데가 없어 한 늙은 녀중과 함께 절에 그대로 남아 살았다. 그런데 늙은 녀중마저 묘향산에 갔다가 오지를 않아 리성녀는 혼자서 적적하게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치성터에서 먹다 버린 음식을 주어 먹는 나 어린 아이를 보게 되었다. 성녀는 그가 불쌍해서 자기 밥을 나누어 주었다. 아이는 배가 불렀으나 가려고 하지 않았다. 갈 곳이 없는 방랑자였던것이다. 이름은 철이, 리성녀는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그가 가엾기도 했고 저혼자 절에 사는 고적감을 덜어 보고 싶기도 하여 같이 살자고 하였다. 철이는 밥이라도 배불리 먹게 되자 인차 너승을 따랐다. 너승도 철이에게 정이 들었다.

그런데 며칠전에 철이가 갑자기 앓아 눕더니 일어 날줄을 모른다. 너승은 당장 애가 죽을것 같아 겁이 나서 부처님에게 살려 달라고 빌고 있는 중이였다...

《불쌍한... 저 애가 잘못될가봐 전 겁이 나오이다.》

너승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떨어 떨어 저 내렸다. 렬채봉이 철이의 이마며 맥박을 짚어 보고 김정숙동지께 장티브스에 걸렸다고 말씀 드렸다.

《스님, 우리가 이 애를 료양소에 데리고 가서 치료하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상심 마십시오.》

그이의 말씀에 너승은 고마와 어쩔줄 몰라했다.

기분이 좋아 진 너승을 보시자 그이께서는 نن지시 물으시였다.

《스님, 미안하지만 한가지 물을것이 있는데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너승은 동의한다는 뜻으로 머리를 주억거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너승에게 렬채봉을 소개하셨다.

《이분은 우리 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렬채봉의 사입니다. 선생은 리성녀라는 딸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을 모르시겠습니까?》

렬채봉은 안경을 벗었다. 너승은 두팔을 반쯤 벌리고 주춤주춤 다가서는 멋쟁이녀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은 말없이 오래도록 마주보았다.

애 타게 바라보는 렬채봉의 눈에는 바라고 또 바라던 간절한 기대와 금시라도 포옹할듯 싶은 혈연의 감정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25년동안 어느 하루도 기억속에서 사라져 본적이 없는 딸애의 모습이다. 그가 설사 머리를 뺨뺨 깎은 중일지라도 자기의 딸이라면 무작정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싶었다. 이제와서 용서를 빈다고 무슨 소용이 있으랴만 그래도 만나고 싶고 안아 보고 싶었다.

너승은 무슨 말인가 할듯말듯 입술을 움직거렸으나 이어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저에겐 어머니가 있었사옵습니다. 오분녀라구... 아직도 곡산에 계시오이다.》

렬채봉의 입에서 절망적인 신음소리가 새여 나왔다. 그는 탁 풀어 진 눈빛으로 너승의 모습을 다시한번 어루쓸면서 입술을 감쳐 물었다. 금시라도 눈물이 쏟아 질듯 싶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긴장한 한순간이 지나가자 온몸이 나른해 지는것을 느끼시었다. (어이 딸이 아니란 말인가?) 어딘가 석연치 못한 너승의 언행이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

그이께서는 허전한 심정을 달래이며 조용히 물으시었다.

《스님, 절간에서 살기가 적적하지 않습니까?》

《적적합니다. 죽지 못해 살아 가는 목숨인걸요...》

《그러면 이제는 속세로 돌아 가 어머니도 찾아 뵈고 녀성답게 사는것이 어떻습니까?》

《어머니라구요?!》

너승은 시답지 않게 뇌이고 나서 배운것이 목탁 두드리는것밖에 없어 보살님을 기리며 살아가지만 자기한테는 어머니라고 부를 사람이 없다고 신세타령을 하였다.

《저의 어머니는 제가 아홉살 나던 해에 부자집 민며느리로 팔았습니다. 그후 골골하던 <남편>이 열일곱살에 사망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또다시 뚜쟁이한테 넘겼습니다. 논다니로 뵈바에는 죽는것이 나을듯 싶어 인간세상에 침을 뱉고 절간으로 들어 온 이녁이옵시다.

저는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나를 팔아 버린 그 어머니의 품으로 다시 돌아 가지 않으렵니다.》

너승은 코물인지 눈물인지 연신 훔쳐 댔다.

별안간 아이가 신음소리를 냈다. 렬채봉이 본능적으로 아이를 그러안으며 다급하게 말씀 드렸다.

《빨리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너승은 정작 헤어지게 되자 아이에게 매달리며 눈물을 좌르르 쏟았다.

《이 애와 헤어지기 싫소이다.》

《스님, 걱정 마십시오. 료양소에서 치료할테니 종종 내려 와 보십시오.》

김정숙동지께서는 큰 절간을 너자의 몸으로 지켜 나가는것도 애국심의 표현이라고 너승을 위로하며 《명릉사》를 떠나시었다.

너승은 일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두손을 읍한채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이께서는 승당앞에 망두석처럼 굳어 저 있는 너승을 바라보며 가슴 아프게 말씀하셨다.

《어두운 밤에 절간에 홀로 있을 너승을 생각하니 마음이 별나구만요. 나는 그가 일개의 중이기 전에 녀성으로서 동정하게 돼요. 어찌서 홀로 고독하게 살아야 하나요? 물론 신앙은 자유이지만 녀성으로서 그 생활이 좋을가요? 녀성의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렬채봉은 가슴이 서늘해 지는것을 느꼈다.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수림속에는 바람소리, 맹수의 울부짖음만이 가득할것이다. 청승 맞은 밤새의 구슬픈 울음소리를 들으며 너승은 무엇을 생각하며 긴긴밤을 지새울것인가. 가련한 인생이다.

렬채봉은 자기도 그 못지 않은 서글픈 신세라는것을 가슴 아프게 느꼈다. 그는 딸파의 상봉을 일일천추로 고대하였다. 너승이 자기의 딸로만 생각되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한다. 상봉의 기대가 허물어 지자 온 세상을 잃은듯 한 허무감이 정신과 육체를 나른하게 하였다. 나의 딸은 정녕 이 세상에 없단 말인가.

이 시각 김정숙동지의 가슴은 렬채봉 못지 않게 쓰리시었다. 오로지 너승이 렬채봉의 딸이기를 그토록 바랬으나 모든것은 수포로 돌아 가고 말았다. 만약 그의 딸이 이 세상에 없다면 렬채봉은 영영 모성의 권리를 상실하고 만다. 녀성으로서 어머니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것처럼 서운한 생활이 어디 있으랴.

리성녀의 석연치 않은 얼굴표정이며 허둥거리던 눈길들이 떠오르며 무엇인가 애매한 생각이 드신다. 여기에는 필경 무슨 곡절이 있으리라는 예감이 자꾸만 드신다.

료양소에 이르자 김정숙동지께서는 렬채봉에게 말씀하셨다.

《채봉선생, 여기 칠봉산에 오셨던김에 료양생활을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렬채봉은 인츰 대답을 드릴수 없었다. 머지 않아 의료단은 돌아 가야 한다. 하지만 왜그런지

조국에 그냥 남아 있고만 싶어 진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는 신음소리를 내는 아이를 가슴에 끌어 안으며 솔직히 말씀 드렸다.

《당분간은 아이도 치료하면서 료양소에 있겠습니다.》

《선생의 의향이 그렇다면 칠봉산에 눌러 앉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무때든 가고 싶을 때 떠날도록 하십시오.》

철이가 다시금 신음소리를 냈다.

그이께서는 어서 치료실로 가자고 하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오늘 철이를 보니 정말 생각이 많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해방직후부터 일제와 싸우다 희생된 혁명가들의 유자녀들을 한명한명 찾아 내어 만경대혁명학원에 데려다 키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철이처럼 보호자없이 떠돌아 다니는 아이들이 더러 있어요. 그렇다고 철이를 절간에서 키울수야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애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혁명의 계승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린 여기 칠봉산지구에도 애육원을 하나 내왔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그이께서 해방의 그날부터 관심하여 오신 일이다. 그보다 저 멀리 유격근거지에서 아동단지도원을 할 때부터 소중히 무르익혀 오신 찬란한 미래였다.

《이제는 나라가 부모 없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놓고 보면 아이들을 키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거예요. 욕심 같아서는 난 이 나라의 모든 고아들을 다 데려다 키우고 싶어요.》

렴채봉은 가슴이 뭉클해 지는것을 느꼈다. 자기는 아이들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는 아이들을 언제 한번 조국과 사회와 혁명의 계승문제와 결부시켜 본적이 없다. 부지중 자기의 한생이 돌이켜 진다.

...학사가 된 다음 련채봉에게 있어서 부러운것이란 없었다. 높은 의술을 지니고 정성껏 치료를 했기때문에 늘 사람들의 떠받들림속에서 살았다. 탐구와 사색, 지칠줄 모르는 치료사업은 그에게 자식이 없다는 서운함을 조금도 느낄수 없게 하였다. 영예와 행복으로 충만된 젊음은 너무도 빨리 바람처럼 지나가 버렸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자 부러운것, 그리운것이 생겨 났으니 그것은 버리고 온 딸자식에 대한 혈육의 정이었고 가고 싶은 조국에 대한 향수였다. 그 어떤 명예와 지위도 행복의 전부는 아니었다. 자식 없는 서글픈 가슴속에 못처럼 박혀 나날이 숨 막히는 아픔으로 녹이 쏘여 갔다. 자식 없는 녀자는 화려한 꽃을 피울수는 있으나 열매만은 맺을수 없는

나무와 같다.

딸을 만나고 싶어 조국에 왔건만 조국에도 딸은 없다.

자신의 어제날을 돌이켜 볼 때 련채봉은 자기가 지금껏 무엇을 잃고 살아 왔는가를 어렴풋이 느낄수 있었다. 아이를 모르는 녀성으로서의 무감각이 자기를 그토록 메마르고 령정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린것이다.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때 조국을 아는 감정도 적어 지는 법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래일의 조국이기때문이다. 어머니가 되지 않고는 아이들을 알수 없을진대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가? 나는 왜 여적 딸을 잃고 살아 왔을가? 그것이 과연 의학탐구에 대한 성실성 때문이었던 말인가? 아니 이것은 한갓 위안이다. 제아무리 행복하다고 애 써 자부하여 왔어도 실은 자식도 조국도 없이 세상 한끝에 밀려 난 불행한 녀자였을뿐이었다. 나는 녀성으로서의 실패한 인간이다. 더는 어머니로 될수 없다. 오, 가련한 련채봉이여!

2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련채봉과 함께 료양소앞에 있는 못가를 거니시었다. 해빛을 받아 금비늘처럼 반짝거리는 물우에는 빨간 금붕어들이 점점이 떠다니었다.

조금 떨어 저서 버들가지가 휘늘어 진 나무밑에는 중년의 한 녀인이 그런듯 앉아 있었다. 벌에 탄 가무잡잡한 얼굴, 뾰족한 턱과 여윈 목... 퍼그나 가냘픈 보이는 모습이다.

녀인의 맞은편에서는 철이가 잡자리를 잡느라고 강충거리며 뛰어 다녔다. 아이가 되어 그런지 주사를 놓자마자 열은 깨끗이 내렸다. 그의 입에는 빨간 잡자리의 날개가 물려 있다.

녀인은 무슨 상념에 잠긴듯 하염없이 물속만 들여다 보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긴 녀인을 바라보며 어제 있었던 일을 되새겨 보시었다.

...수산합작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바다 멀리 등대섬을 찾아 가셨다. 갈매기만 처량하게 울어 예는 돌섬에는 중년의 등대지기 내외가 외로이 살아 가고 있었다. 뚱뚱한 남편은 정우범이라고 했고 연약한 안해는 박남희라고 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무도 보논이 없는 한적한 돌섬에서 말없이 성실성을 묻어 가는 그들의 애국충정을 치하하시면서 오래동안 생활이야기를 나누시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렘렘하고 서글서글한 정우범은 그이의 친절에 끌려들어 허물없이 말씀 드렸다.

《집사람이 아이를 낳질 못합니다. 약풀이여서 그런지 두번씩이나 죽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박남희는 부끄러워 몸둘바를 몰라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즐겁게 웃으며 권고하시었다.

《그렇다면 친척네 애라도 하나 데려다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적적하실텐데...》

그러자 정우범은 얼굴이 벌개서 더수기를 곁었다.

《그런데 지금... 제 처가...》

정우범은 한동안 갑자르더니 민망스럽게 중얼거렸다.

《제 처가 지금... 임신중에 있습니다. 마흔살 지난 사람이... 참 우습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순산을 할수 없어 봐서...》

김정숙동지의 얼굴에 반가운 웃음이 피어 나셨다. 그이께서는 정우범의 걱정을 위로하시었다.

《등대장동무, 그건 넘려 말아요. 남희동무를 칠봉산료양소에 데려다 치료하자요. 제가 성의껏 돌봐 주겠어요.》

이리하여 남희는 료양소에 오게 되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박남희를 진찰한 렬채봉에게 물으시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남희동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대답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박남희를 다시 진찰한 렬채봉은 자신 없이 말씀 드렸다.

《아이 는 낳을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절개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나이도 많은데다 몸이 허약해서... 수술을 견디여 낼수 있겠는지는...》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뒤말의 무서운 의미를 짐작하고 계시었다. 박남희의 앞일이 걱정되신다.

참으로 생각이 많으시다.

녀성으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되지 못하는것처럼 한스러운 일이 어디 있으랴. 이것은 아이를 낳는가 못 낳는가 하는 세태적인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인간은 만물의 령장이다. 이 세계의 주인들은 바로 녀성들이 있음으로 하여 력사와 함께 계승되고 있는것이다. 할진대 녀성들이야말로 사회와 력사와 혁명앞에 얼마나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인가. 하나하나의 어머니는 그저 평범한 존재들이지만 어머니들을 다 합쳐놓으면 그것이 곧 력사로도 되고 온 세상으로도 되는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바로 이 녀성의 사명, 어머니라는 위대한 존엄이 무시되는것 같아 박남희의 일이 마음에 걸리시었다. 그이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지으시었다.

《아니예요. 박남희는 꼭 아이를 낳아야만 해요.》

그이께서는 렬채봉의 손을 꼭 잡고 절절하게 말씀하셨다.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남희동무는 지난 날

왜놈의 <정신대>로 끌려 가다가 죽겠다고 바다물에 뛰여 든 해녀였어요. 다 죽게 되었던 그를 등대지기가 구해 주어 그들은 같이 살았어요.

...그들은 물과 너무도 멀리 떨어 져 있는탓에 두번씩이나 죽은 애를 낳아야만 했어요. 그때는 제 나라가 없어 그랬지만 이제는 해방이 되고 제 나라가 있는데 왜 그들이 지난 날처럼 슬픔에 울어야 하나요?

안돼요. 남희동무의 건강은 제가 책임지겠어요. 보약을 쓰자요. 제가 그의 몸을 꼭 추세워 놓겠어요.》

렬채봉은 놀라운 눈길로 그이를 우러러 보았다. 어찌면 이름도 없는 섬마를 촌녀인에 대하여 그토록 큰 관심을 돌려 주시는것일까?

잠자리잡이하던 철이가 김정숙동지에게 쪼르르 달려 와 손에 든 잠자리를 내보이며 자랑을 했다.

《이걸 제가 잡았어요. 몇 있지요?》

《그래, 참 용쿠나.》

그이께서는 철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었다. 철이는 졸랐다. 《여기에 실을 좀 매줘요. 가지고 놀게...》

뒤따라 나온 렬채봉이 철이를 꾸짖었다.

《철이, 그럼 못 써. 이리 온...》

철이는 렬채봉에게 달려 가 덩석 안기며 응석을 부렸다.

《그럼 할머니가 해줘요.》

어느새 정들었는지 철이는 할머니, 할머니한다. 렬채봉이 철이의 손목을 잡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천천히 박남희쪽으로 걸어갔다.

박남희는 어깨우에 드리운 버들잎을 훑어 못가에 한잎두잎 띄우면서 얼없이 물속만 들여다 보고 있다. 무슨 생각에 골몰했는지 까딱하지 않는다. 이어 인기척을 느낀듯 놀라며 돌아 섰다. 수심에 잠긴 그의 얼굴에 언뜻 부끄러움이 비쳤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일어 서려는 그의 어깨를 꼭 눌러 짚으시며 그곁에 앉으시었다.

《앉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박남희는 쿨룩쿨룩 기침을 했다.

잠자리 한마리가 날아 와 꼬리를 초췌하며 물 위에 파문을 일으켰다. 둥그렇게 퍼져 나가는 파문을 바라보며 박남희가 말씀 드렸다.

《여기 료양소생활이 너무도 편안해서 그런지... 남편생각이... 납니다.》

순간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이 쿵 마쳐 오는것을 느끼시었다. 파도소리, 갈매기소리만이 울리는 망망대해속에서 오로지 등대만을 지켜 긴긴 밤들을 지새우고 있을 정우범의 얼굴이 우렷이 떠오르면서 어깨가 무거워 지신다. 박남희를 칠봉산에 데려 오긴 하였지만 해산에 대한 전망을 확

신할수가 없어 정우범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것이 아닐까 하는 한가닥 우려가 깃드는것이였다. 박남희도 모름지기 그때문에 속 썩일것이다. 이제나저제나 아이만이 태어나길 바라는 그 등대지기에게 떡돌같은 아들을 안겨 준다면 얼마나 좋아 하겠는가? 그이께서는 그것을 믿고 싶었고 확신하고 싶으시였다. 아무려면 제 나라가 있고 의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큰 문제라고 고심하라. 모든것은 다 제대로 될것이다. 박남희는 어머니로 될것이며 아이는 고고성은 터치고야 말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날을 그려 보며 밝게 웃으시였다.

《이제 남희동무가 등대장을 기쁘게 해줄수 있는 일은 아이를 낳는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건만 박남희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는것이였다.

《그렇지만 전... 자신이 없습니다.》

박남희는 자기가 난산한 이야기를 덧붙여 말쑼 올리였다.

《젊어서도 그랬는데... 40살이 넘은 제가... 정말 아이를 낳을수 있을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피로와 하는 박남희의 마음을 풀어 주시려고 소리내여 웃으시였다.

《의심이 병이라는 말을 들어 보았어요? 언젠가 자료를 보니 어느 한 나라에서는 60이 넘는 할머니가 순산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50대에 아이를 낳아 <선동>이라는 아명을 갖고 있는 애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 마음을 꼭 놓으세요.》

저 럽채봉선생이 산부인과에서는 소련에서도 손꼽히는 권위자인데 어련히 잘 돌봐 주지 않을라구요?》

박남희의 수척한 얼굴에 한가닥 웃음이 흘러 지나갔다.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도 마음이 가벼워 지는것을 느끼시였다.

《그러니까 남희동무도 나약한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굳게 먹으세요. 이렇게 하는것이 우리가 등대장한테도 약속을 지키는것으로 될거예요. 안그래요?》

박남희는 사례가 들린듯 몹시 기침을 해댔다.

그이께서는 걱정스럽게 물으시였다.

《해소병이 있는가 보군요.》

《예, 환절기마다 도지군 합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오미자이든 마가목이든 따와야겠다고 생각하시였다. 료양소에 기침약이 없으랴만 몸에 이상이 생길까 봐 신약을 먹이고 싶지 않았고 또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달여 먹이고 싶으셨다.

갑자기 등뒤에서 《철이야... 철이야...》 하고 찾는 럽채봉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김정숙동지께서 돌아 보시였다. 초간히 떨어져 아름다리 들메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밑에 럽채봉과 장삼을 걸친 녀승이 서 있었다. 두 녀인은 나무의 상수리를 향해 머리를 젖히고 애 타게 소리친다.

《철이야-》

《어서 내려 오너라.》

김정숙동지께서는 순간 들메나무 옷초리에 걸터 앉아 있는 철이를 띠여 보시였다. 가슴이 철렁한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아이를 실은 옷초리가 이리 기울 저리 기울 한다. 저러다가 떨어 지면 어쩔려고... 새동지라도 털자고 올라 갔을가?

그이께서는 다급하게 나무밑으로 다가가셨다.

그이를 알아 본 녀승이 두손을 합장하며 절을 하였다. 녀승의 손에는 무슨 꾸레미가 들려 있었다. 녀승은 철이가 보고 싶다면서 매일과 같이 띄이며 엿이며 닭알이며 과일 같은것을 꿇겨 가지고 오곤 했다. 그는 오늘 철이를 아주 데리 가려고 왔다.

럼채봉은 섭섭한 표정을 짓고 그이께 말쑼 드렸다.

《철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저 애가 안가겠다면...》

김정숙동지께서는 마음이 좋지 않으시였다.

(끝내 데려 가려 한단 말인가? 또다시 절간으로?)

그곳으로 철이를 돌려 보내서는 안된다는것을 아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철이를 돌려 보내지 않으면 안되는 딱한 심정에 사로잡히시였다.

《스님, 철이를 꼭 데려 가겠습니까?》

리성녀의 우묵한 두눈에는 철이를 뺏기지나 않을가 하는 공포감 비스한것이 비졌다.

《전 저 애 없이 못 살것 같습니다.》

《스님, 우린 여기에 애육원을 지으려고 합니다. 애육원에 와서 철이를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그건 좀 더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녀승의 고집을 돌려 세울수 없다는것을 그이께서는 아시였다. 어쨌든 철이는 녀승이 키워 온 아이가 아닌가. 후에 다시 데려 오더라도 지금 당장은 보내야 할것만 같다. 하여 나직이 철이를 불렀다.

《철이야, 내려 오너라. 그럼 못 쓴다. ... 어서 내려 오라는데두...》

철이는 할수 없는지 한치한치 꽤 오래도 내려 왔다. 나무밑에 뛰여 내린 그 애는 만만치 않은 눈길로 리성녀를 쏘아 보았다.

녀승이 꾸레미를 헤쳤다. 그안에서는 검은 양복 한벌과 흰 운동화 한켠레가 나졌다. 녀승이 그것을 두손에 받쳐 들고 철이 앞으로 다가가셨다.

《애야, 이걸 입고 가자꾸나.》

철이가 비실비실 뒤걸음쳤다. 다음 그는 럽채

봉의 치마자락에 매달리며 왕 울음보를 터뜨렸다.

《싫어, 싫어, 난 안 갈래. ... 중엄마 싫어...》

소년은 싫게도 울었다.

《나 절간에 안 갈래.》

소년의 울음소리는 무섭게 메아리치며 하늘가에 퍼져 갔다.

《그래, 그래... 넌 어디에도 못 간다.》

렴채봉이 철이를 끄당겨 꼭 그러안았다.

너승의 두손이 후들후들 떨리고 옷구레미가 떨어 저 내렸다. 일진 돌풍이 불어 오면서 너승이 쓰고 있는 갓을 날려 버렸다. 장삼깃이 세차게 펄럭인다. 너승의 우묵한 두눈에는 온 세상을 잃은 듯한 절망감이 컴컴하게 비졌다. 이어 얼굴이 해쓱하게 질리고 눈지방에 물기가 맺혔다. 그는 어깨를 들먹이며 서럽게 울었다. 처량한 그 모습이 보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뿜게 했다. 한동안 울고 난 너승은 머리를 번쩍 들었다. 어질어 보이던 그의 두눈에 살기 같은것이 내뿜었다. 그 너자는 려채봉을 서술 푸르게 바라보며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다.

《선생은... 나에게 인간으로서 남아 있던 마지막 심장까지 뺏아 가는구만요. 당신도 녀성이예요?!》

너승은 무엇인가 결심한듯 목탁을 내던지고 목에 건 녀주를 와락 끊어 버렸다. 녀주알들이 땅바닥에 마구 흩어 졌다. 마치 실성한것 같다. 너승은 돌아 섰다. 비칠거리며 걸어 갔다. 장삼깃을 펄럭이며 멀어 저 가는 그 모습은 곧 하늘중천에 날리어 까마귀로 변신할듯 싶었다. 그 정상이 너무도 처량하여 김정숙동지께서는 나직이 말씀하셨다.

《아무래도... 녀승이 이상해요. 무슨 일이 생길것만 같아요.》

철이가 울먹이며 려채봉의 품으로 파고 들었다. 려채봉은 어느 사이 철이와 헤어질수 없는 정에 엉켰다. 불과 며칠 안됐지만 정성껏 치료해 주고 따듯이 애무하여 주었더니 친할머니처럼 따른다.

려채봉은 철이의 얼굴에 머리를 부비며 간절히 말씀 드렸다.

《안됩니다. 철이를 절간으로 보내면 정신적인 기형아로 자랄거예요.》

김정숙동지께서도 가슴이 아프시었다. 너승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것을 보면 그도 녀성답게 살기를 원하는것이다. 그런데 왜 인간세상으로 돌아 오려고 하지 않는가? 여기에는 필경 곡절이 있다. 처음 리성녀를 만났을 때 그는 오분녀가 자기 어머니라고 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 한 일군을 오분녀가 산다는 곡산에 보내어 알아 보도록 하셨다. 그런데 아직 이렇다할 소식이 없다. 그이께서는 오분녀

어머니를 직접 찾아 가 만나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셨다.

《어떻게든 너승의 마음을 돌려 세워야겠어요.》

녀성으로서 녀성의 불우한 처지를 외면할수 없는것이 그이의 마음이었었다.

《그런 의미에서 애육원건설을 서둘러야겠어요. 애육원을 짓고 철이를 데려 오면 너승의 마음도 달라 질거예요. 우린 아이도 버릴수 없고 너승도 버릴수 없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애육원건설문제를 토의하려고 급히 평양에 다녀 오겠다고 말씀하셨다.

려채봉은 오직 녀성들과 아이들을 위해 계시는 것만 같으신 김정숙동지를 우러르며 뜨거운것을 삼켰다.

(조선의 아이들과 녀성들은 너무도 행복하다. 그들은 영원히 불행을 모를것이다. 위대한 어머니가 보살펴 주시기에...)

3

찌물쿠던 날씨는 한낮이 되면서부터 점점 흐리기 시작하였다. 비가 내리려는가 싶다.

온천에서 목욕을 한 남희와 려채봉은 철이의 손목을 잡고 료양소로 향하였다.

료양생활을 하는 녀성들과 등산객들이 삼삼오오 때를 지어 오고 갔다. 하나같이 건강하고 활력에 넘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남희는 자기에게도 새힘이 솟구치는것을 느꼈다. 이제는 나른해 지는 허약감도 사라져 버리고 얼굴에는 혈기가 돌았다.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 진다.

김정숙동지께서 곰의 열이며 산꿀이며 보약들을 구해다 복용시켰기때문이다.

남희는 소생한 삶의 환희를 느낄 때마다 녀사의 지성을 생각하며 조용히 눈물 짓군 하였다.

며칠전에는 감기에 걸려 입맛을 췌히자 잉어탕을 끓여 한술두술 떠넣어 주시었다. 진정 친어머니인들 이보다 다심하고 살뜰할수 있으랴. 이 촌아낙네가 기침을 하는것이 무슨 큰 일이라고 마가목열매를 따러 험한 산정에까지 오르셨으랴! 아, 그때 그이께서는 발목을 풀치시었다. 발회목이 툭툭 부으셨지만 그이께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셨지. 정녕 그이가 아니라면 자기가 오늘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낼수 없었을것이다.

남희는 녀사의 은정에 가슴 뜨거워 지면서 한편 자기가 녀자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수 있겠는지 은근히 걱정속에 잠겨 있는것이다. 그는 려채봉과 간호원이 가끔 자기를 두고 우려하는 소리를 귀동냥해 들었다. 나날이 몸은 좋아 지고 기운이 솟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근심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 하나는 김정숙동지께서 친정어머니처럼 돌봐주시는데도 아이를 제대로 낳지 못하면 어찌랴 하는 위구심이었고 다른 하나는 홀로 있을 남편생각이었다. 녀사께서 젊은 등대원을 보내주었지만 남정네들끼리 녀자의 손길이 없어

얼마나 불편해질것인가? 마치 심장의 반쪽은 등대섬에 떼놓고 온 심정이었다. 이러한 걱정은 때없이 남편한테로 돌아 가자고 무섭게 피줄을 흔들어 대군 하였다. 남희는 자기의 정신적고충을 려채봉에게 그대로 터놓았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가 될수 있을까요?》

려채봉은 가던 길을 멈추었다. 그 녀자는 대답을 피하며 길옆에 가담가담 피어 난 들국화를 한송이두송이 꺾어 나갔다.

남희는 안타깝게 입술을 감쳐 물었다.

《솔직히 전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무서워요...》

《왜 그렇게 나약한 말을 해요. 해너답지 않게...》

채봉은 위로하자고 했지만 말소리는 여물지 못했다. 남희는 려채봉이 대답하기 몹시 힘들어 한다는것을 똑똑히 알았다.

《선생님, 차라리 이제라도 단념하는것이 옳지 않을까요?》

남희는 등대섬으로 가버리겠다고 말하려다가 차마 그 말은 입밖에 내지 못했다.

채봉의 두눈은 휘둥그래지고 입은 반쯤 벌어졌다. 그는 남희를 놀라운 시선으로 오래도록 바라보더니 이어 머리를 흔들었다.

《그건 안돼요. 녀사께서 동무일을 두고 얼마나 마음쓰고 계시는지 알아요? 그이께서 여기 칠봉산에 오래 묵어 계시는것이 모릅지기 동무때문일거예요.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부터 말아요.》

남희는 머리를 수그리었다. 그라고 왜 녀사의 은혜를 모르랴. 하지만 자신심이 없는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채봉은 안타깝게 남희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요즘 이 지구의 사업을 지도하시기에 여간 바쁘지 않아요. 말이 휴식이지 밤낮없이 뛰여 다녀요. 수산합작사며 종이공장, 젓소목장, 신발공장... 며칠전에는 애육원건설때문에 벽돌공장에도 다녀 왔어요. 바쁘신 그이를 대할 때마다 휴식시키지 못하는 죄송함으로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가 그이의 부담을 덜어 드릴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런데 오히려 이일로 근심을 하시게 해야 되겠나요. 남희동무, 마음을 굳게 먹자요.》

남희는 머리를 수그리었다. 자기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녀사에게 죄를 짓는것 같았기때문이다. 부지중 그이를 만나뵙고 싶은 생각이 불쑥 치밀어 오른다. 그이께서는 애육원건설문제때문에 며칠전 평양으로 가셨는데 아직 돌아 오지 않으시였다. 며칠 헤어져 있었는데 몇달이 흘러 간듯 그리워 지는분이다.

(오늘은 돌아 오셨을가?)

저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 진다.

어느덧 료양소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오늘도 돌아 오지 않으시였다. 두 녀자는 서운한 마음으로 침실에 들어 가 말없이 앉았다.

저 멀리에서 우뢰소리가 꾸르릉거린다.

웬일로 들어 왔겠는지 창문가에서 벌 한마리가 봉봉거리며 빠져 나가지 못해 맴돌이친다. 벌은 창가에서 물러 나 방안을 한바퀴 빙 돌았다. 벌을 따라 눈길을 옮기던 려채봉은 문득 한쪽 벽면에 걸려 있는 것과 녀주를 보았다. 녀승이 버리고 간것인데 김정숙동지께서 한알두알 모아 하나로 꿰놓으신것이다. 그이께서는 이제 녀승이 찾으러 올것이라고 하시였다. 하지만 녀승은 오지 않았다.

그때 처참하게 이지러졌던 녀승의 모습이 떠오르며 가슴이 알찌근해 온다. 그가 혹시 내 딸이 아닐가 하는 룩감이 새삼스럽게 갈마든다.

앞산에서 접동새 우는 소리가 구슬피 들려 왔다. 무료한 정적을 참기 어려웠던지 채봉이 먼저 말을 건네었다.

《남희동문 이런걸 생각해 본적이 있어요. 녀자의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글쎄요.》

남희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터이라 그저 마주 보기만 했다. 채봉은 잠든 철이가 차버린 모포깃을 바로 잡아 주며 자기가 살아 온 지난 날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나는 의학으로써 인간을 위해 이바지한다고 생각해 왔지만 녀성으로서의 실패한 인간이에요. 나에겐 부러운것이란 없었으며 늘 사람들속에 떠받들려 살았어요. 그러나 나는 녀자의 행복이 거기에만 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남희동무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제발 그 행복의 기회를 차버릴 생각을 마세요. 진심으로 부탁하는거예요.》

채봉의 눈에서는 눈물방울이 맺혀 구울려 떨어졌다.

남희는 코마루가 시큰하며 채봉에게 동정이 갔다. 마치 그의 모습에서 래일의 자기를 보는듯 마음이 쓸쓸하기도 하고 자기가 고명한 의사의 동경의 대상으로 되었다고 생각할 때 가슴이 울렁거리기도 했다.

밖에서 들려 오는 접동새 우는 소리가 그들의 아픈 마음을 가만가만 쪼아 댔다.

마침내 김정숙동지께서 돌아 오시였다. 먼 길을 걸어 오신듯 흰 버선을 신은 다리목에 먼지가 뽀얗게 올랐다.

남희는 너무도 반가와 마주 달려 나갔다.

그이께서는 들고 오신 약꾸레미를 내여 미셨다.

《비삼을 좀 얻어 왔어요. 기관지에는 까마귀열이 특효라면서요... 그리고 이건 경육고...》

남희는 파스한 정을 느끼며 약꾸레미를 받아

안았다.

《제 몸은 이제 일 없습니다. 더는 제 걱정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이께서는 창가에서 봉봉거리는 벌을 보시고 창문을 여시었다. 벌은 쏜살같이 빠져 나갔다.

그이께서는 잠 자는 철이를 정겹게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곧 애육원건설이 시작될거예요. 애육원을 다 지으면 난 철이부터 거기 데려다 키우겠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 질거예요.》

김정숙동지의 얼굴에는 자식들을 한품에 안은 어머니들만이 지을수 있는 행복의 미소가 어리시었다. 그 자애 깊은 모습을 우러르는 럼채봉의 가슴은 눈물로 젖어 들면서 그들먹이 차올랐다.

후두둑... 비방울이 창문을 두드린다. 이어 줄금줄금 비가 내린다.

김정숙동지께서 럼채봉을 돌아 보며 말씀하셨다.

《이번에 평양 갔다 오는 길에 곡산에 들려 오분녀라는 녀인을 만나고 왔어요. 그 녀승의 어머니말이에요.》

원래 오분녀는 남편과 단둘이 살았는데 여러해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대요. 어느 날 친정집에 나들이 갔다 오던 오분녀는 다리밑에서 죽은 할머니의 시체를 붙들고 울어 대는 계집애를 보았대요. 우는 아이를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 지지 않는데다 자식이 없었던탓에 그 애를 데려다 딸처럼 키웠대요. 남편과 성이 같아서 이름을 그대로 리성녀라고 불렀대요. 그 애를 데려다 키운탓인지 한해후에 아들 쌍둥이를 낳았대나요. 다음해에 년년생으로 또 딸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살림이 몹시 힘겨워 지자 오분녀는 할수없이 리성녀를 민며느리로 팔았대요. 보다싶이 오분녀는 리성녀의 친어머니가 아니였어요.》

럼채봉의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그러니 김정숙동지께서는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도 리성녀의 일을 알아 보기 위해 먼 길을 다녀 오신것이 아닌가?

김정숙동지께서 갑자기 생각난듯 물으시었다.

《참, 그 동안 녀승이 다녀 가지 않았나요?》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바라보시었다. 그리고 보면 녀승과 헤어지신지 한주일이 지났다. 왜 그런지 마음이 무거워 지신다. 그가 어째서 나타나지 않을까? 중노릇을 그만 두기로 마음먹기라도 했단 말인가? 아니라면 갇히라도 찾아갔어야 할것이다.

이번 걸음에 그이께서는 평양에 있는 불교인들도 만나보셨다. 그들은 《명릉사》를 보호하기 위해 남자중을 곧 보내겠다고 하였다. 남자중이 오면 리성녀가 마음을 달랠지 먹을까 어이 알랴.

은근히 바라고 오신 길인데 리성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것을 아셨을 때 그이께서는 마음이 자못 착잡해 지셨다.

다시금 녀승의 모습이 떠오른다. 실성한것처럼 목탁이며 넘주를 쥐여 뿌리던 녀승, 이 세상 모든것을 다 잃은듯 절망에 싸여 있던 컴컴한 얼굴, 좌절되고 체념한듯 허청허청 걸어 가던 모습...

그이에게는 녀승에게 무슨 일이 벌어 졌을것만 같은 예감이 드시었다. 그이께서는 서둘러 말씀하시었다.

《아무래도 제가 절간에 다녀 와야겠어요.》

그이께서는 녀승에게 친어머니를 모르는가고 물어 보고 싶으셨고 어쩌면 럼채봉이 그의 어머니로 될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시었다.

럼채봉과 박남희가 동시에 일어 서며 그이의 앞길을 막았다. 녀승이 무엇이라고 먼 길을 다녀 오신 피곤도 푸실 사이 없이 또 험한 산길을 가신단 말인가?

《안됩니다. 밖에 비가 내립니다.》

《날이 어두웠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웃으시며 그들의 간청을 거절하셨다.

《저를 생각해 주는 마음은 고마와요. 하지만 녀승의 일이 마음에 걸려 내려 가질 않아요.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을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경비원아바이와 함께 얼른 마차를 타고 갔다 오겠어요.》

그이께서는 일단 결심하시면 그만이다. 한 녀성의 운명이 걱정되어 어두운 산길을 갔다 오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세계앞에 남희도 럼채봉도 머리를 수그리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방문을 열면서 럼채봉을 따로 조용히 불러 내시었다.

그이께서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조용히 물으시었다.

《저... 박남희동무의 몸이 어때요?》

《이젠 마음을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남희동무의 건강이 훨씬 좋아 졌습니다. 모든게 다 정상입니다.》

《그래요?!》

그이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확 피어 났다.

얼마후 경비실앞마당에서 말발굽소리가 울렸다. 고요와 안식과 정적이 차흐르는 산골짜기에 말발굽소리가 메아리를 일으키며 멀어 져 갔다.

저녁 저녁...

박남희는 약구레미를 가슴에 그리안고 오래도록 서 있었다. 말발굽소리가 세차게 가슴을 두드려댔다.

(한 녀승이 무엇이라고 이 밤길을 가신단 말인가?)

가슴이 뜨거워 올수록 녀사의 은혜를 망각하고 등대섬으로 돌아 가려고 하였던 자신의 잘못이 뼈저리게 뉘우쳐 졌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지러번

했던가.

남획는 세상의 버림을 받고 생활의 기슭으로 밀려 났던 못녀성들의 운명까지 다 안으시고 녀성으로서의 권리를 찾아 주시려는 녀사의 한량 없는 은정앞에 깊숙이 머리를 수그리었다.

저벅 저벅... 말발굽소리는 아득히 멀어 저 갔다.

비발은 점점 더 세차졌다.

4

깊은 밤...

승방의 한구석에서는 초불이 가물거리며 타오른다.

김정숙동지께서 의식 잃고 누워 있는 녀승에게 한술두술 미음을 떠넣어 주시었다.

자정이 훨씬 넘어 녀승은 깨어 났다. 저승의 문턱을 향해 한치한치 다가가던 리성녀는 실신상태에서 눈을 떴다. 이 세상을 버리자고 독한 마음 먹고 한주일간 절식하여 중태에 빠졌었는데 비몽사몽간에 다시 이승의 하늘을 보게 될줄이야.

자기가 어떻게 되어 숨 가진 인간으로 소생하였는가를 알게 된 리성녀는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중얼거렸다.

《저를 왜 이 세상에 다시 살려 났나요. 저를 왜 내버리지 않았는가 말이에요? 제가 정말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났단 말입니까?》

리성녀는 쉽게 쉽게 울었다.

모든것을 체념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려는 리성녀의 구슬픈 푸념은 김정숙동지의 가슴을 아프게 끓어 내렸다. 녀성으로서 한번 녀성답게 살아보지 못하고 꽃 같은 나이를 절간에서 시들게 하고 있는 녀인, 갓 쓰고 푸른 하늘조차 마음껏 바라보지 못하고 늘 땅만 보며 한숨속에 살아 온 녀인이 어이하어 죽을 생각까지 하였던 말인가?

그이께서는 정녕 밤중에 오지 않으셨더라면 살아 있는 리성녀를 다시 보지 못했을수도 있었으리라. 울씨넨스러운 범당, 싸늘한 방안... 그 녀자는 짐승이 울부짖는 적막한 절간에서 사람의 손길 한번 받아 보지 못하고 불쌍히 운명했을것이다. 죽어도 절식하고 죽는이만큼 고달픈 죽음이 어디 있으랴.

그이께서는 도착하는 즉시 모든것을 알아 차리시고 경비원아바이에게 불을 때도록 이르시었다. 물을 덥혀 손발을 씻어 주시고 미음을 쑤어 먹인탓에 리성녀는 꺼져 가던 숨을 다시 내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한 생명을 위기에서 구원한 안도감으로 다소 마음을 놓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이마에 맺힌 땀을 씻을념도 안으시고 리성녀의 눈물을 꼼꼼히 닦아 주셨다.

《그만 진정해요. 자꾸 울면 미음이 내리지 않아요. 이제 됐어요.》

울만큼 울었는지 리성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

다. 멍청하던 그의 두눈에 삶의 의욕인듯 생기가 흐르기 시작하였다. 그 녀자는 자기때문에 밤을 때는 김정숙동지를 뵈기 민망했던지 일어 나 앉으려고 애 썼다.

그이께서는 이불깃을 꼭 꼭 여며 주며 다정히 타이르시었다.

《가만히 누워 있어요. 이제 꿀물을 좀 마시지요.》

꿀물을 마신 리성녀는 잠이 오는지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주절주절 비가 내렸다. 이따금 짹짹 숲이 설레이는 소리가 골짜기를 뒤덮곤 했다.

다시 엄습해 오는 정적... 멀리에서 간단간단 들려 오는 맹수의 울부짖음...

리성녀는 자지 않았다. 그 모든 소음을 다 듣고 있었으며 수호신처럼 자기의 곁에 앉아 계시는 김정숙동지의 거룩한 영상을 우러르며 가슴속으로 뜨거운것을 삼키고 있었다. 인간세상과 격리된 절간, 더더구나 해방된 다음부터 그 누가이 절간에 찾아 오기나 했던가? 오직 그이만이, 그이만이 오셨다. 낮에도 오시였고... 밤에도 오시였다. 정녕 그이가 아니셨다면 내 다시 그이를 뵈울수 있었으랴. 내 감히 그이의 뜻을 거역하다니... 리성녀는 자신도 모르게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왜 그래요. 어디가 말썬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수건을 뜨거운 물에 행구어 이마를 닦아 주셨다.

리성녀는 참자고 참자고 모지름 찢지만 심장에 차고 넘치는 격정을 누를길 없어 자기의 설음을 마음껏 터뜨리었다.

《전 모든 어머니들로부터 버림 받은 녀자입니다. 저를 낳아 준 어머니도 저를 길러 준 어머니도 명색이 <시어머니>인 녀인도 모두 저를 버렸습니다. 아니, 짐승처럼 팔았습시다. 저는 그 어머니들을 중요합니다.》

저는 세상의 어머니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쩌면 책임도 질수 없는 아이들을 낳을수 있는가고 말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책임질수 없는 녀성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런 녀성들은 과연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김정숙동지께서는 묵묵히 듣고만 계셨다. 일타러진 물목은 막기 어려운 법이다. 저 리성녀가 언제 한번 저렇게 마음껏 가슴속 설음을 헤쳐 보았으랴.

그이께서는 친근하게 리성녀를 타이르시었다.

《우리 어머니들을 다 나쁘게 생각 말아요. 전 이번에 오분녀어머니를 만나봤어요. 왜놈세상에서 살기 힘드니까 할수없이 그랬더군요.》

리성녀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었다.

《세상이 험악해서 그랬다구요. 그건 구실이여

요. 거짓말이에요. 오분녀어머니는 그렇다고 치고 저를 낳은 어머니는 어떻게요. 그 아라사의사가 저를 낳았어요. 전 알아 봤어요. 제 눈이 알아 보기전에 심장이 먼저 알아 보더군요. 제 가슴엔 아직도 할머니가 남겨 놓고 간 한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이 쿵 울리는것을 느끼셨다. 짐작이 옳으신것이다. 어머니와 딸, 그들은 코를 맞대고 있으면서도 남남처럼 지내고 있으며 딸은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다. 칼로도 벨수 없는것이 피일진대 혈육간에 왜 그렇게 한을 품고 살아야 하는가?

그이께서는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프시여 리성녀를 책망하셨다.

《그건 어머니의 마음을 다는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럼채봉선생은 할수없이 딸을 떨구고 갔어요. 제 나라가 있었다면 왜 그런 생리별을 당했겠어요. 다 나라를 빼앗겼던탓이에요. 용서하랴요. 어머니를 이해하랴요.》

리성녀의 가슴속에 너사의 말씀이 단비처럼 흘러 들었다. 그이의 말씀이 옳다. 나라를 빼앗겼던 탓에 그는 어머니마저 잃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지 않았다. 그는 늘 어머니를 그리워 했다. 할머니가 남겨 주고 간 사진속의 어머니를 바라보고 또 보며 언젠가는 어머니가 자기를 찾아 오리라고 믿었다.

그 시각은 왔다. 리성녀는 럼채봉이 자기의 어머니임을 첫눈에 알아 보았다. 그래서 기다렸다. 《내 딸아-》 하고 덥석 안아 주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럼채봉은 찬찬히 살피기만 하였다. 나이에 비해 젊고 아름답고 현숙한 용모는 대번에 리성녀의 비위에 거슬렸다. 그의 가슴속에는 지금까지의 그리움이 사라져 버리고 고까움이 차올랐다. 어디 가서 부러운것 없이 지내다가 이제 와서 딸을 찾는다고... 어른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이제 와서 어머니대접을 받겠다고... 그는 저도 모르게 머리를 저어 버렸다.

리성녀의 어머니에 대한 야속함은 철이로 하여 더 악화되었다. 그는 철이를 아들 삼아 키우려고 했다. 철이는 리성녀를 인간세상과 연결시켜 주는 유일한 《다리》였다. 그런데 럼채봉은 그 《다리》를 끊어 버렸다. 럼채봉은 철이를 자기의 품에서 빼앗아 냈다. 이것으로써 리성녀의 가슴속에서 가물거리며 타오르던 생의 등불은 꺼져 버렸다. 그는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전 죽으려 했습니다.》

리성녀는 몸을 털고 일어 나 앉았다. 눈물을 닦고 옷매무시를 바로 잡았다.

《전 여직짓 어머니를 찾아 달라고 석가모님께 빌었습니다. 빌고 또 빌어도 부처님은 저에겐 어머니를 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오늘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모든 어

머니들이 다 저를 버렸지만 저의 어머니는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님은 바로... 너사님이십니다.》

리성녀는 두팔을 벌리며 김정숙동지의 품에 와락 안겨 들었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 갔다.

리성녀는 만시름을 잃은듯 혼곤히 잠들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머리맡에 앉아 새날을 맞으시였다. 리성녀는 어머니를 용서하였으며 몸이 추서면 내려 가 럼채봉에게 문안 드리겠다고 하였다. 어머니와 딸이 상봉하는 모습을 그려 보니 벌써부터 가슴이 달아 오르신다. 뿐만아니라 다른 중이 오면 애육원으로 가서 보모를 하면서 철이를 키우겠다고 하였다. 실로 래세에 행복이 있다는 《인파옹보》의 교리를 숙명처럼 감수하고 부처를 섬기던 리성녀가 삶의 길을 찾고 참녀성이 된것이다.

행복이 어런듯 한 리성녀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김정숙동지의 마음은 마냥 즐거우시였다. 세상 밖으로 밀려 났던 또 한명의 녀성이 생활의 한가운데로 들어 섰기때문이였다. 그것이 그지없이 기쁘시였다.

저 멀리 푸름푸름 새날이 밝아 온다.

5

그 이듬해 봄.

박남희가 아들을 낳았다. 그를 축하해 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 이날 새로 지은 애육원의 의무부원장으로 된 럼채봉은 이렇게 말하였다.

《전 결코 오늘 아이만이 태어났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대기던 녀성의 행복이란 무엇인지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녀자의 행복중에서도 행복은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후대를 키우는 담당자이기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머니들이 없다면, 아이들이 없다면 래일은 과연 어떻게 될가요?

이 래일이 귀중하여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머니와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거랍니다. 그분에게 매혹되어 저는 늦게나마 이 땅에 새삶의 닳을 내리였습니다. 정녕 그이는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어머님이십니다.》

럼채봉의 말을 들으며 박남희는 행복의 눈물을 지었고 보육원이 된 리성녀는 철이를 가슴에 꼭 그르안았다.

단편소설창작과 형상의 초점에 대한 소감

류윤화

형상의 초점에 대한 문제는 비단 단편소설창작에서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편소설창작에서 형상의 초점에 대한 문제를 논하게 되는것은 최근에 발표된 위대한 령장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한 몇편의 단편소설을 읽으면서 형상의 초점에 대한 문제가 작품의 사상예술적성과를 평가하는데서 결코 소홀히 하여서는 안될 문제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었기때문이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형상의 초점을 맞춘다는것은 작품에 설정되는 인물과 사건, 생활세부를 비롯하여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작품의 기본과제를 밝히는데로 하나와 같이 집중시킨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시대의 본질을 드러낼수 있는 의의 있는 생활의 한 단면, 한 측면을 선택하여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 나가는 단편소설창작에서 형상의 초점문제가 보다 중요하게 제기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수령의 혁명활동가운데서 어느 한 단면을 선택하여 작품에 담을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가득 찬 영광스러운 나날이였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부터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시고 조국앞에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펼쳐 놓으신 선군혁명령도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벌리신 혁명활동은 눈물없이 들을수 없고 뜨거운 심장이 없이는 말할수 없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날이 밝으면 《애국가》의 장엄한 선률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헌지지도의 새 소식으로 새날을 맞이하는 내 나라, 잊지 못할 오성산의 험준한 령길이며 파도 사나운 초도의 배길 그 어디나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스며 있고 위대한 장군님의 체취가 풍기는 내 조국, 이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격동적인 이러한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단편소설들이 수없이 창작되어 선군혁명문학의 화원을 더욱 활짝 꽃 피우고 있다.

실재한 력사적사실중에서 하나의 단면을 선택하고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보여 준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단편소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숭고한 높이에서 보여 주자면 실재한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실을 두고도 철학적으로 깊이 탐구하여야 하며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에 혁명의 운명과 관련된되는 형상적과제를 체현시키고 이것을 해결하는데로 형상의 모든 요소를 집중시켜야 한다.

넓은 공간에 비치는 빛발을 하나의 작은 점으로 모으고 그것을 다시 더 크게 확대하여 보여주는 렌즈처럼...

위대한 장군님을 형상한 단편소설창작에서 형상의 초점도 작품의 기본과제를 밝히는데 두어야 한다. 이것은 감성조직의 미학적요구이다. 문제는 작가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형상을 보여주는 작품의 기본과제를 어떻게 제시하고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형상의 초점을 어떻게 살려 나가겠는가 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대한 심오한 분석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에 작가가 독창적으로 발견한 새로운 형상과제를 체현시키고 여기에 형상의 초점을 돌려야 한다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나날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보여 주는 력사적사실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또 누구나 다 알아야 할 뿐아니라 시대와 더불어 력사에 길이길이 전해 가야 한다. 온 세상에 알려 진 실재한 력사적사실에서 그것도 한 단면, 한 측면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숭고한 높이에서 보여 주기 위해서는 작가가 새롭게 독창적으로 탐구한 몫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없으면 작품에서 형상의 초점을 맞춘다 해도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새로운 높이에서 창조할수 없다.

단편소설 《요영구풍경화》(《조선문학》 주체 89년 6호, 안금성)가 거둔 사상예술적성과가 이것을 말해 준다.

단편소설 《요영구풍경화》는 위대한 장군님의 집무실에 걸려 있는 요영구풍경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풍경화, 여기에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제국주의 때무리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 내시는 위대한 령장의 세계를 보여 줄수 있단 말인가.

작품의 첫페지를 읽을 때 독자들은 풍경화에 깃든 사연에 호기심을 품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집무실에 걸려 있는 요영구풍경화를 그곳 혁명력사의 체험자인 오진우가 보게 된다.

누가 그랬을까? 신통히도 요영구사령부의 풍경
을 그대로 옮겨 놓아서 오진우조차 놀라게 한 화
가는 도대체 누구인가. 독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작품속에 끌려 든다. 풍경화에 깃든 사연이 위대
한 인간만이 지닐수 있는 가장 숭고한 정신세계
를 펼쳐 놓으리라고는 미처 생각할 사이도 없
이...

이제 작품의 형상세계에 함께 들어 가보자.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자신의 한생에서 가장 어
려웠던 시기가 요영구에서 활동하던 시기라고 하
시면서 그때 소대장을 하던 리순국의 자녀라도
찾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말씀하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
국고립압살책동이 악랄해 질 때마다 요영구시
기를 회상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요영구풍경화를 자신의 방에 걸어 놓으시고 요영
구태생인 오진우에게 소대장의 자녀를 찾아 내어
아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 드리자고 말씀하
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전선시찰로 바쁘
신 속에서도 오진우에게 임무를 주시어 화가의 아
버지가 유격대소대장의 아들이 아닌가를 확인하
도록 하시였을뿐아니라 아버지수령님께 직접 말
씀드려 리순국이라는 이름이 가명일수 있다는 귀
중한 가르치심을 받으신다. 드디어 오진우는 화
가의 아버지가 리순국(본래의 이름은 고인찬)의
아들이라는것을 확인한다. 여기에서 소설은 끝
나는가. 아니다. 보통소설이라면 유격대초창기
에 소대장을 하던 리순국의 자녀를 찾아 아버지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 드렸다는 《예술적일반화》
를 거쳐 소설을 끝맺을수도 있었다. 여기에 무슨
이야기를 더 덧붙일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소
설은 계속된다. 이제부터는 작가가 새롭게 탐
구한 몫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선시찰의 길에서 오
진우로부터 고정환(리순국의 아들)로인이 운
명직전에 자녀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에 혁
명의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가지
지 못하고 잠시나마 혁명적신념이 흔들린다면
그 자손들까지 피로운 그들을 안고 산다는
심각한 교훈을 유언으로 남기였다는 보고
를 받으시였다. 고정환, 얼마나 깨끗한
량심의 소유자인가. 사실 그는 항일혁
명렬사의 유자녀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 올수도 있는 사람이며 또 그렇게 살
았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유격구를 떠나
중국소년으로 가장하고 살아 온것을
혁명가의 아들로서 못할것으로 생각하고
한평생 가슴속에 품고 있다가 자식
들에게 뼈저린 교훈을 심어 준것이다.

소설은 이렇게 끝 맺고 있다.

《그이께서는 고정환과 그 일가에 대하여 말씀
하시고 결연한 어조로 이렇게 이으시였다.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혁명적
량심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며 한생의
총화로 귀중한

교훈을 후대에 넘겨 주고 간 고정환과 같은 혁
명전사들과 인민이 있는 한 나는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으며 설사 우리앞을 1930
년대 전반기의 요영구사태보다 더
엄혹하고 준엄한 시련이 막아
선다고 해도 맞받아 뚫고 나가 역
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교야 말
것입니다.>

력사의 선언처럼 울리는 장군님의 우렁
우렁한 음성을 심장에 새기며 군사지
휘관들은 오래도록 요영구풍경화
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었
다.》

작고 평범한 풍경화의 이야기로 시작
된 소설은 마감에 이르러 얼마나 격
조높이 위대한 령장, 위대한 인간
의 숭고한 세계를 펼쳐 보이는가.

소설은 끝났다. 소설은 끝났으나 독
자들의 머리속에서는 소설의 여운이
고재치며 새로운 세계를 펼쳐
놓기 시작한다. 혁명의 령도자를
순경한 량심과 혁명적신념으로 받
들여 모시려는 우리 인민, 우리
인민을 믿고 그 어떤 난관과 시
련이 겹쌓여도 이 땅우에 기어
이 장성대국을 일떠세우
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
의 신념과 의지...

만약 이 소설이 《요영구풍경화》에
대한 이야기를 항일혁명렬사의
유자녀를 찾는 이야기로 끝
냈다면 작품의 사상예술적성과
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없었을
것이다. 《요영구풍경화》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역경속
에서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참된 신념과 량심에 대한
이야기로 승화시켜 보여
준 여기에 작가의 새롭고
독창적인 발견이 있으며
거기에 형상의 초점을
집중하였기때문에 위
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승고한 높이에서 창조
할수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단편소설
《붉은 눈보라》(《조선문학》주
제 87년 9호 리희남)는
론의할 여지가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눈 오는
설날 위대한 장군님
께서 만경대혁명학
원을 찾으신 력사적사
실에 기초하고 있다.
소설은 시종일관한 사
건선이 없이 경애하
는 장군님의 내면세
계에 굴절되어 있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관련된 아버지수령
님의 회상으로 줄거
리를 조직하고 있다.

《붉은 눈보라》, 얼
마나 심오한 사상이
형상적으로 안겨 오
는가. 읽고 싶다. 그
러나 읽어 보면 아
쉽다. 작가의 형상적
인 의도는 안겨 오
지만 《만경대의 눈
보라는 애초부터
붉은 눈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경애하
는 장군님의 심오한
내적체험 세계가
안겨 오지 않는다.

작품은 원아들의
가슴팍에 기록처럼
휘날리는 붉은 넥
타이와 바지에 친
무수한 붉은 줄들이
흘날리는 눈발을
붉게 물들여 만경
대의 눈보라가
《붉은 눈보라》로
보인다고 하면서
도 경애하는 장
군님께서 지니신
만경대의 혈통,
주체의 붉은 혈
통을 대를 이어
가시려는 신념과
의지에 대하여
서는 깊이 있게
펼쳐 보이지 못
하고 있다.

작품은 만경대혁명학원을 세워 주시고 원아들을 혁명의 대를 이어 나가는데서 골간으로 키워 주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그치고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내부적체험세계에 깊이 침투하지 못한 결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형상창조로 초점이 집중되지 못하고 흩어지고 있다.

단편소설창작에서 형상의 초점을 살리자면 또한 사건과 일화들도 바로 설정해야 한다.

하나의 줄거리를 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여 풀어 나가는 단편소설에서는 사건과 일화들을 형상의 초점에 하나와 같이 집중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하나의 티가 밝은 빛에 그늘을 던져 준다면 초점이 흐려 질것은 자명한 일이다.

사건과 일화도 형상의 초점에 집중되어야 그것이 다시 크게 확대되면서 작품의 기본파제해결에서 뚜렷한 자기의 몫을 가지게 된다. 작고 평범한 사건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보여 줄 수 있게 다양한 시점에서 파고 들어 립체적으로 형상한다면 초점이 명백하고 선명해 진다.

단편소설 《고고성》(《조선문학》 주체 88년 10호 김성관)에서 형상의 초점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한 산모에게 돌려 주신 사랑의 이야기이다.

평범한 산모의 이야기가 어떻게 위대한 령장의 숭고한 세계를 펼쳐 보이는가. 작가는 형상의 초점을 이루는 산모이야기를 서둘러 펼쳐 놓지 않고 있다. 이야기의 전체가 마련되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그 어떤 극적효과를 노렸기때문인가.

아니다. 산모의 이야기가 위대한 령장의 숭고한 세계를 펼쳐 보이는데서 형상의 초점을 이루는 이야기로 되자면 그에 맞는 극적정황이 필요했기때문이다. 소설의 첫 머리에 펼쳐진 극적정황은 얼마나 예리했던가. 적들은 큰 비가 내리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수많은 수륙량용장갑차를 군사분계선전역에 배치하며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리고 날뛰었다. 여기에 합세하듯 서방세계는 지구상에서 량극대결구조가 무너진후 골치거리로 되어 온 조선의 사회주의마저도 종말을 고할것이라고 췌쳐댔다.

이때 우리 나라에서는 압록강하구의 일부 섬들이 100년래의 큰 비로 침수되게 될 위급한 정황이 조성된다. 바로 이러한 극적정황속에서 산모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극적정황에 비추어 볼 때 산모의 이야기는 얼마나 작고 평범한가. 그러나 평범한 그 이야기에는 군사사상의 근처에 인간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리념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세계가 펼쳐져 있다.

작품의 첫 머리에 설정된 극적정황이야말로 작고 평범한 사건속에서 위대한것을 밝힐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이며 바로 여기에 평범한 생활에 대한 작가의 철학적인 탐구정신이 비껴 있다.

단편소설 《설레이는 바다》(《조선문학》 주체

81년 10호 김동호)에서도 산모이야기가 형상의 초점을 이루고 있다. 소설은 바다에서 해상사격이 있게 되는 부근의 한 섬에 산모가 있다는것을 아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격시간을 뒤로 미루시며 산모를 안전한 물에 보내시는 내용을 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바다도 세차게 설레이고 해병들의 눈가에 걱정 of 눈물이 어린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사랑의 세계가 단편소설 《고고성》에서처럼 새로운 높이에서 안겨 오지 않는다. .

그것은 산모의 이야기를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사랑이 새로운 각도에서 펼쳐 지도록 형상의 초점을 집중하지 않은 결과 그저 산모에게 어떤 사랑이 돌려 졌다는 식으로 끝났기때문이다.

단편소설 《달래천가에서》(《문학신문》 주체 88년 41호 박찬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련합부대를 현지지도하시는 과정에 원호물자를 가지고 부대로 찾아 오는 인민들을 위하여 《군민다리》를 건설하도록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설은 인물관계도 립체적으로 조직하고 그들의 호상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건들을 무리없이 펼쳐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작품에 펼쳐진 사건들이 자기의 고유한 몫을 가지고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창조에 하나와 같이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위대한 장군님께서 련합부대의 어느 군사지휘관도 생각하지 못한것(콩크리트다리건설)을 풀어 주는 식으로 그리였기때문에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여 주지 못했다.

사건뿐아니라 일화들도 다양한 시점에서 분석적으로 파고 든다면 그속에 담겨진 생활적의미를 립체적으로 보여 주면서 사건에 못지 않은 형상적기능을 수행할수 있다.

일화는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이지만 작품의 기본내용에 복종되어야 한다. 문제는 어떤 시점에서 분석적으로 파고 들어 기본이야기에 맞물리는가에 따라 작품의 기본파제해명에 형상의 초점을 맞출수도 있고 맞추지 못할수도 있다.

단편소설 《요영구풍경화》에서 풍경화에 그려진 구름나무에 대한 일화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시점에서 깊이 있게 분석되면서 작품의 주제사상적해명에 초점을 맞추어 형상되고 있다.

《요영구풍경화》에 그려진 구름나무에는 잊지 못할 사연이 있다. 요영구시기 《소년선봉대》원들이 유격대군복의 물감원료로 쓰기 위해 구름나무를 찍으려 했다.

이 사실을 아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구름나무를 찍어서는 안된다고, 적 《토벌》대가 집을 불사르면 30번, 40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이 나무도 꼭 살려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소년선봉대》대원들은 나무의 상처자리도 싸매주

면서 잘 가꾸어 그 나무는 꽃구름을 하얗게 이고 향기를 풍기었고 온갖 새들이 날아 들어 우짖었다고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요영구풍경화》에 그려진 구름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는 요영구의 상징이라고 하시면서 요영구시절을 회고할 때마다 그때 소대장을 하던 리순국의 자녀를 찾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구름나무일화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걱정하시는 유자녀문제때문에 필요했던가 싶다. 작가가 실친듯 한 인상도 든다. 그러나 작품의 마감에 가서야 구름나무일화에 대한 세부는 작품의 종자해명에서 중요한 형상적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전선시찰을 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파도 사나운 바다가운데 우뚝 솟은 기암절벽의 소나무를 보시고 집무실에 있는 《요영구풍경화》의 구름나무로 련상하시는 대목에 대한 내면세계의 묘사는 구름나무일화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형상창조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불에 끄슬리고 타버린 구름나무밑둥, 그러나 어떤 재난과 상처도 다 이겨 내고 흰 꽃 만발하여 온갖 새들을 불러 온 구름나무의 기상처럼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이 제아무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에 미쳐 날뛰어도 이 땅우에

기어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야 말리라는 기상이 그이의 가슴속에 산악같이 일어 서는것이였다.》

결코 작가는 서툰것이 아니었다. 세련된 솜씨를 보인것이다. 구름나무일화에 대한 세부를 깊숙이 묻어 두었다가 작품의 절정에 이르러 터쳐 놓음으로써 집무실에 《요영구풍경화》를 걸어 놓으신 위대한 령장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높이에 있는가를 가슴깊이 받아 안게 한다.

위대한 장군님을 형상한 단편소설창작에서 형상의 초점에 대한 문제는 작가의 기교에 대한 문제이기전에 력사에 실재한 사실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형상을 어떻게 창조하겠는가 하는 자세와 립장에 대한 문제이다.

위대한 령장, 위대한 인간에게 진실로 매혹된 작가만이 누구나 다 아는 작고 평범한것에서 위대한것을 발견할수 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자욱에 발을 맞추어 기동성 있게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사상에술성이 높은 단편 소설들이 송이송이 꽃으로 호합지게 피어 날수록 우리의 선군혁명문학의 화원은 사계절 짙은 향기를 풍기며 더욱더 아름다와 질것이다.

군복의 푸른 빛은 어디로...

주경

색날은 군복을 입으며
소중히 끌어 본다
양어장건설에 첫삽을 박던 그날엔
어설핀 갈대숲사이로
그리도 유표하던 군복의 푸른빛

이제는 총기름내보다도
감탕내 더 풍기는
군인건설자의 이 군복

허리치는 감탕속에서
서걱이는 얼음장을 헤치며
한치한치를 떠밀어 가던
잊지 못할 그 나날에
너의 푸른빛은 사라졌는가

흙탕물에 군복은 젖고
스며 드는 흑한에
얼음버께가 끼여도
또다시 질통을 지고 달릴 때
흘러 내리는 감탕물은
너의 푸른빛을 씻어 갔는가

오, 꿈결에도 뵈고 싶던 장군님을
양어장에 모시던 그날
그이의 환한 미소로 출렁이는
양어바다의 푸른 물은
내 군복의 푸른빛-

푸른빛, 푸른빛으로
여기에 다 모이였구나
폭우 쏟아 지던 그 밤
장석을 쌓으며 흘리던 땀방울들도
우등불 추켜 들고 맞이하던
잊지 못할 그 새벽의 푸르름도

우리 장군님 기쁨이 되고
우리 장군님 젊음이 되여
끝없이 설레이는 저 푸른 물은
오늘에 바친 청춘의 푸른빛-

아, 병사의 군복은 색이 바래였어도
그날에 나는 보았노라
우리 장군님미소로 일렁이는
조국에 남긴 푸른빛 그 푸른빛을...

- 룡담양어장에서 -

어머님의 영웅메달

곽명철

그처럼 값 높은 위훈 세우시
고도
아직은 단 한번도 달으신적
없는
어머님의 영웅메달이
여기 조선혁명박물관
크지 않은 진렬장에 놓여 있
구나

울릴수만 있었다면
정녕 울릴수만 있었다면
혁명동지를 위해
끓는 죽가마를 이고 탄우속을
달리시던
가슴 뜨거운 그날에 벌써
달아 드렸어야 할 이 메달

수여해 드릴수만 있었다면
조선의 심장을
한몸 방패되시여 보위한
대사하치기 그날에
벌써 달아 드렸어야 할 이

메달
아, 얼마나 좋았으랴
우리 생전에
이 금별메달을 앞가슴에
다시고
인민들의 다함 없는 축원을 받
으시는
어머님을 뵈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다문 한장이라도
이 금별메달을 달고 환히 웃으
시는
김정숙어머님의 존귀하신 영상
이 어린
그런 사진을 남겼더라면

쌓으신 업적 하늘에 닿고
남기신 위훈 별무리되여 빛 뿌
리건만
너무나도 뒤늦게야 제정된 영

웅메달
너무도 일찌기 가신 우리 어
머님

가다듬노라
어머님의 영웅메달앞에서
충신의 참다운 자세를
다짐하노라
어머님처럼 우리도 한생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위해
한목숨 다할 불 같은 맹세를

아직은 한번도 달으신적
없으신
어머님의 영웅메달
그 금별메달은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님의 모
습으로
인민의 가슴에서 빛 뿌리고
있어라

어머님 밝히신 그 새벽에

진동화

천연수림도 숨엄히
그 설레임을 멈추고
별무리 거느린 보름달이
소백수물가에 내려 앉은 밤

백두밀영귀틀집창가에
꺼질줄 모르는 불빛-
김정숙어머님 등잔불아래
마분지를 펴놓고 글을 그으
시네
우리 나라 지도를 도별 쪽무이
로 만드시네

하나를 배우시면 열백을 헤아
려보시고
한마디 말에도 슬기와 예지를
번뜩이는
어리신 장군님께
조국의 력사와 지리를
눈앞에 펼쳐 드리고
싶으셨거니

오늘도 왜놈들 무찌르는
군사놀이로 해 지우신 장군님

꿈결에도 나무칼 번쩍 드시는
가
《돌격 앞으로!》 오돌찬 목소
리에
조용히 미소 지으시는 어머님

다함없이 정겨운 손길로
모포를 꼭꼭 여머 주시며
함경도를 그리시고...
해방의 만세소리 귀전에 들으
시며
평안도를 오려 내시고...

아, 꿈결에도 그리 보신 조
국산천
명승지들을 표시하시는 어머님
마음
장군님손 다정히 잡으시고
아름다운 만경대고향집사립
문을
조용히 열어 보시는가

백두산정기를 지니시고
광명성으로 탄생하신 장군님

조국의 미래를 이끄실 그날을
그리시며
등잔불심지 그 몇번 돌구시였
던가
어머님 만드신 3천리 금수강산
지도를
장군님앞에 펼치셨을 때

아 귀틀집창가에 먼동이 터왔
네
아름다운 조국강산에 새날이
밝아 왔네
백두에서 솟아 오른 태양의 빛
발로
조국강산을 붉게 물들였네

오, 그날 그 새벽에
어머님은 장군님께 안겨 드리
시였네
수령님 찾아 주신 내 나라
주체로 빛나는 사회주의 내 조
국
세계의 머리위에 거연히 솟아
오를
오늘의 위대한 김정일조선을

선군시대가 드리는 영생의 노래

김철민

선군정치속에 꽃 피난 선군서정은 선군혁명시문학의 재부를 풍부히 하였다. 그 나날에 울려 퍼진 수많은 혁명의 노래들중에는 서사시 《어머님의 그 위업 영원하리》(리범수)도 한송이 꽃으로 피어있다.

이 시를 읊어 보면 선군시대가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 드리는 노래에는 지나온 력사의 뜨거운 진실이 있고 심오한 철학이 있으며 오늘이 있다는것을 알수 있으리라!

살아 계시다

오늘 선군시대의 찬란한 각광을 받아 새로운 빛을 뿌리는 김정숙어머님의 건군업적!

시인은 그 찬란한 업적에 눈길을 모아 박고 그 빛발의 의미를 밝혀 내려고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시인의 사색은 먼저 해방후 우리의 정규무력이 탄생의 고고성을 터치던 력사의 기슭에 가닿는다.

아직은 군대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군기조차 없었던 그때 위대한 수령님의 건군사상을 심장으로 새기시고 정력적인 실천활동으로 그를 충실하게 받들어 나가시던 어머님께서서는 우리 군대의 군기부터 만드시였다.

미술가도 설계가도 아니시건만 몸소 연필을 드신 어머님께서서는 《수령님두리에 한뜻으로 뭉친/병사들의 불 타는 충성의 마음》을 담아 붉은색을, 《억년 푸른 백두의 기상처럼/수령님 받들어 변함이 없을/병사들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푸른색을 넣어 군기의 도안을 그리시고 한뼘한뼘 정성다해 수 놓으시여 첫 군기를 만드시였다.

이렇게 군기부터 마련하신 어머님께서서는 주체적인 정규무력창건을 위한 기틀을 닦는데 정력을 다 기울이시였다.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 드릴 군대의 후방사업규정을 놓고 저택에서 간부회의가 열렸을 때였다. 우리 군대도 다른 나라처럼 빵을 주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렬하게 제기되자 어머님께서서는 우리 병사들의 구미에 빵식사가 맞지 않는다고, 더우기 우리 나라 주작물은 밀이 아니기때문에 현실성도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군대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 실정에 도 맞고 병사들의 체질과 기호에도 맞게 우리 식

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힘 주어 강조하신다.

아 우리 식으로!
아직은 누구도 말한적 없고
아직은 어디서도 들어 본적 없는
어머님의 그 말씀
-우리 식으로!

번쩍
일군들의 두눈을 띄워 주시는
어머님의 그 말씀에
얼마나 투철한 주체의 안목
비범한 정치적식견이 깃들었는가

그렇다. 어머님께서 지니신 투철한 주체의 신념과 의지에 의하여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에 조금도 물 젖지 않은 우리 식의 정규군대가 건설되었던것이다.

그 숭고한 모습을 우리르는 시인의 가슴에 또 다시 뜨겁게 젖어 드는 생각이 있다.

그것은 우리 혁명무력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실천적모범으로 깨우쳐 주신 어머님의 불멸의 혁명활동에 대한 뜨거운 회억이였다.

건군의 나날에 병사들의 사격장을 찾으신 위대한 김정숙어머님! 어머님께서서는 백발백중의 신묘한 사격술을 보여 주시고 그 비결을 묻는 병사들에게 자신께서는 살아도 죽어도 장군님을 보위해야 하겠기에 명사수가 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그 숭고한 뜻은 세월의 언덕 넘어 오늘의 벽찬 시대에도 메아리치며 병사들의 심장마다에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할 불 타는 신념을 안겨 주고 있다.

백두산너장군이 걸으신 길에서 혁명의 총대가 지닌 가장 중대한 사명이 밝혀 졌고 그 사명이 병사들의 심장마다에 수령결사옹위의 념으로 깊이 자리 잡게 되었던것이다.

시인은 또한 우리른다. 총대사랑의 빛나는 력사를 창조하신 존귀하신 어머님의 영상을...

어머님께서서는 병사들의 후방공급사업으로부터 일과생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 주시였다.

동지들을 위해, 병사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머님이시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세상에 태어나 일생동안 닭알 한개 먹어 보지 못한 사람은 정숙동무 한사람뿐일거라고 목메여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진정 《어머님의 봄빛 같은 병사사랑은/태양 가까이 못별을 이끄시는/인력이 되고/다리가 되었》으며 《그 인력에 끌려/그 다리를 건너/수령님두리에 총대가 모이고/수령님 받들어 병사들이 뭉쳤》던 것이다.

더 높이 내려쳐 오르라 시상이여, 더더욱 힘차게 달리라 붓대여!

시인은 어머님께서 이룩하신 건군업적의 정수를 노래한다.

어머님께서 탄생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추대하여 모신 12월 24일! 이날은 얼마나 숭고한 사연들과 잇닿아 있던가!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준비하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는 락하산훈련장으로 나오시었다. 대원들이 조선혁명의 장래운명을 위하여 락하산만은 타지마시기를 간절히 만류해 나서자 어머님께서는 바로 그래서 어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과 함께 나오시었다고 하시며 조선의 장군을 키우는 일이라면 하늘도 날고 바다도 건느시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조선혁명의 장래를 위하여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 않으시는 어머님의 그 위대한 헌신적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수령복, 장군복을 대를 이어 누린다고 긍지높이 말하는 영광의 시대가 펼쳐진 것이다.

12월 24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년중 그 많은 날들가운데서 이날을 경애하는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는 날로 정하심으로써 어머님께서 계시여 장군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력사의 진리로 천명하시었다.

이날은
어머님의 영원한 충성
고귀한 그 품도를
만대에 이어 가는
숭고한 의리의 날이었다

이날은
어머님의 총대위업을
선군시대로 빛내여 가는
위대한 력사의 날이었다

이날이 있기에 우리 군대가 있고 수령결사옹위가 있고 동지애의 력사가 있고 오늘의 선군시대가 있는 것이다.

시인의 줄기찬 사색의 시작도 끝도 여기에 있다.

어머님께서 만드신 군기를 창공높이 날리고 어머님께서 발휘하신 수령결사옹위정신, 총대사랑을 자기의 넋으로, 숨결로 간직 한 선군시대!

선군시대속에서 어머님은 살아 계신다. 군기와

함께 살아 계시고 수령결사옹위정신, 총대사랑과 함께 살아 계시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으로 살아 계신다.

바로 여기에 서사시의 시적종자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혁명의 력사적로정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시대를 열어 놓은 선군시대의 어머님 김정숙어머님! 선군시대의 탄생을 어머님의 위대한 건군업적, 총대생애와 결부시키고 그가운데서 어머님의 영생을 노래한 여기에 종자의 탐구와 해명에서 서사시가 거둔 성과가 있다.

추억속에 오늘이 있다

추억은 오늘이 불러 오는 과거이다. 아름답고 귀중한 과거에 대한 애뜻한 정과 그리움을 불러내는 생각이 바로 추억이다.

이 추억의 나래를 펼치고 우리 시인들은 어머님의 노래를 얼마나 절절하게 열정적으로 불러왔던가.

서사시문학에서만 보더라도 《삼도만의 봄》, 《동지》, 《영원한 충성의 해발》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이 깊은 추억속에서 어머님의 불멸의 혁명활동을 감명 깊게 노래하였다.

이 작품들은 한결같이 인민의 깊은 추억속에 새겨져 있는 어머님의 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절절한 그리움의 형상으로 보여 주었다.

어머님에 대한 추억은 이처럼 수많은 서사시를 낳을만큼 폭 넓고 심오한 생각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떠나서는 그 어떤 서사시도 생각할수 없는 시인의 필수적인 체험과정이다.

물론 서사시 《어머님의 그 위업 영원하리》도 례외가 아니다. 작품도 어머님에 대한 추억의 노래이다. 그러나 그속에는 보다 새롭고 심오한 추억이 퍼덕이고 있다.

과거를 안은 추억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안고 있는 추억이...

승리자의 발걸음 높이 울리는
10월의 열병식광장에서
나는 들었노라
무적필승의 총검을 번쩍이며
병사들이 터치는 신념의 웨침
《결사옹위 김정일》
《결사옹위 김정일》

그 웨침에 화답하며
나는 생각하노라
수령님의 건군사 첫 갈피에
결사옹위의 넋을 새기신
어머님의 불멸의 공적

어머님에 대한 추억은 이렇듯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높이 울리는 수령결사옹위의 구호에 화답하

기 위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추억은 흘러 어머니를 모시였던 병사들의 사격장으로 가닿는다. 항일투사유자녀인 한 병사가 목표를 맞히지 못하자 어머니께서는 그에게 아버지의 피를 이어 받았다고 하여 훌륭한 경위대원이 되는것은 아니라고 간단히 말씀하고 나시여 몸소 총을 잡으시고 백발백중의 명중탄을 날리신다.

시에서는 그 명중탄총성은 《사령부를 지켜 한 목숨 바친/선렬들의 붉은 피 잊지 말라고/심장을 두드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였고 《수령님 계시여 조국도 있고/인민의 참된 삶도 있다고/간곡히 타이르는 어머니당부》였음을 강조하면서 그날의 그 총소리가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결사옹위의 구호가 되어 오늘도 시대의 목소리로 울려 퍼지고 있음을 긍지높이 노래하고 있다.

수령결사옹위로 빛나는 어머니의 그 숭고한 넋을 지니고 리수복, 김광철, 길영조를 비롯한 수천 수만의 결사옹위영웅들이 태어나는 우리 시대, 그리고 오늘!

이 오늘에도 향하여 나래치는것이 시의 정서이고 그 정서속에서 울리는것이 어머니의 노래이다. 어머니를 추억하는 정서적체험은 이렇듯 오늘날 선군시대의 숨결과 시대정신을 깊이 절감하는 과정으로 되고 있다. 시형상을 오늘의 시대정신에 대한 시적일반화로 풀어 나간 바로 여기에 작품이 추억의 체험으로 어머니께서 살아 계시는 오늘에 대하여 격조높이 노래할수 있는 비결이 있지 않겠는가.

작품에서는 어머니의 영생철학을 밝혀 내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시형상을 어머니의 혁명활동은 계속되며 어머니의 고귀한 생애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데 대한 굳은 확신과 믿음의 정서적형상을 조형하고 있다.

추억은 그리움의 정서를 동반한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은 절절한 그리움의 추억인 동시에 끊임없이 그리움을 불러 내는 정서적체험이다.

그 그리움의 정서적바탕우에서 어떠한 시형상이 조형되는가에 따라 시적체험의 철학적무게가 결정된다.

서사시의 3장(시는 일관한 사건줄거리를 가지지 않은 송가적서사시형식을 취하고 4개의 부분별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에는 사전에 대한 세부형상이 있다.

병사들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어머니의 사진!

전선시찰의 길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 사진을 보시고 자신께서 처음 보는 사진이라고 못내 기뻐 하신다.

수십년 세월 병사들이 소중히 간직해 온 그 사진은 얼마나 하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것인가.

밤 깊도록 아궁에 달군 불뎀을 감싸드리고 병사들의 보초소로 찾아 오시던 어머니! 병사들에게 김치도 손수 만들어 먹이시던 그 사랑으로 언제나 병사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따뜻이 돌보아 주신 김정숙어머니!

병사들에게 바치신 그 뜨거운 헌신으로 하여 《병사들의 마음속으로 가는 길을/제일 많이 알고 계신》 김정숙어머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초소에까지 찾아 오시여 보아 주신 그 한장의 사진과 함께 어머니는 오늘도 병사들의 마음속에 병사사랑의 화신으로 살아 계신다.

어머니의 그 숭고한 사랑의 모습은 오늘 천만 리 전선길을 이어 가시며 언제나 병사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모습으로 빛나고 있는것이다.

아 추억이여! 추억이여!

추억으로 끝나지 말아

그리움 그리움이여!

그리움으로 끝나지 말아

하늘엔 해와 달과 별이
만유인력으로 함께 떠 있고
땅우엔 어머니와 병사들이
사랑과 의리로 리별이 없는
영원한 상봉의 한길에 산다

그렇다. 어머니는 오늘도 병사들과 함께 계신다. 이러한 굳은 확신의 감정이 극히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울려 나오는 시형상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시사해 주고 있다.

어머니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노래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어머니의 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이 영원불멸함을 굳게 확신하는 감정세계에 승화시켜 터쳐 올린 여기에 추억의 정서적체험이 도달한 새로운 철학적경지가 있지 않겠는가.

확신의 감정, 이것으로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오늘도 들을수 있고 어머니의 발자욱이 오늘도 짙히게 할수 있으며 어머니의 생애가 오늘도 흐르게 할수 있다.

작품은 추억의 체험을 보여 주면서도 그속에서 시대정신을 노래하고 확신과 믿음의 정서적형상을 조형함으로써 어머니는 선군시대속에 살아 계신다는데 대한 종자의 형상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 철학적깊이를 보장할수 있었다.

영생철학을 완성하자면...

어머니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건군업적과 선군시대와의 관계를 의의 깊게 해명하고 형상함으로써 보장된 작품의 철학성은 시적구성과 언어형상

에 의하여 담보된다.

앞에서도 언급한바이지만 작품은 4개의 장으로 이루어 졌다.

어머님께서 정규무력의 창건을 위하여 기울인 심혈과 로고를 노래한 1장과 수령결사옹위의 시원을 열어 놓으신데 대한 2장 그리고 어머님께서 지니신 혁명적동지애와 병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형상한 3장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불멸의 공헌을 칭송한 4장...

이 네개의 장들이 어머님의 영생을 노래하는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속에서 어머님의 건군업적을 측면별로 전면적으로 노래할수 있게 폭 넓게 전개되어 있으면서도 매장이 독자적인 형상력을 최대한 높이 발휘할수 있도록 깊이 있게 주어져 있다.

매 장들마다에는 형상의 기둥을 이루는 사연과 사실들이 있다.

1장에서는 군기에 깃든 사연, 3장에서는 뜻 깊은 사진에 어려 있는 사연, 4장에서는 어머님의 탄생일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추대한 날이 일치한 력사적사실에 대한 형상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러한 형상의 기둥들은 수많은 사실과 사건, 일화와 세부, 주정토로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강력한 시적감화력을 가지는 완결된 하나의 형상으로 조형시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시에서는 언어형상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많은 탐구의 흔적을 보이고 있다.

그가운데서 어머님께서 해방직후 원썬들의 준동이 발악적으로 벌어진 어느 날 밤에 현관문을 나서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을 한몸으로 막아나서신 이야기를 형상한 부분만 놓고 보자.

어머님 딛고 계시는
넓지 않은 현관프락엔
사령부를 지켜 멸적의 불을 뿜던
무송현성 잘루목의 전호가 펼쳐 지고
대사하의 언덕이 솟아 오르고
흥기하의 산발이 뻗어 내렸다

어머님은 한분이여도
천만의 병사
천만의 총구도 대신할수 없는
결사옹위의 그 위치여

짧은 시련속에서 어머님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얼마나 폭 넓게 그리고 강렬하게 보여 주고 있는가! 어머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막아나서신 넓지 않은 프락을 수많은 항일의 혈전장들로

확대점층시키고 어머님 한분의 위치와 천만병사들의 총구를 대조시킴으로써 어머님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은 항일전의 그날로부터 체질화된것이며 천만이 따르지 못하는 가장 숭고한 정신이라는 것을 강렬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이 철학적언어가 아니겠는가.

시에서는 《한생을 총과 함께 사시며》, 《보석은 땀으로 캐고 닦아서/눈 부신 빛을 뿌리고/병사들은 어머님의 해발을 받아/충성의 별무리로 빛을 뿌린다》, 《눈 내리는 12월에 탄생하시여/봄이 없던 이 땅에 봄꽃을 피우시고》를 비롯하여 형상적비유와 대조의 수법이 능란하게 활용된 시련과 시문장을 수많은 구사함으로써 언어형상에서 생활반영의 깊이를 보장하려고 하였다.

서사시와 철학성은 깊다. 그러나 선군시대 어머님의 영생철학 그자체가 발산하는 비상한 감화력과 견인력에 맞게 시적형상력을 따라 세웠다고는 말할수 없다.

시형상의 밀도를 보다 높이였으면 좋았을것이다. 시형상의 밀도는 시적구성에도 관계되는 문제이지만 보다 많이는 시적언어의 새맛과 함축성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이다. 서사시에서 형상의 밀도가 높지 못하면 독자는 지루감을 느낀다.

서사시일수록 새롭게 씌여 지고 함축성이 강해야 많은 분량이라도 빨리 읊어 지고 크게 감명을 줄수 있다.

총은 말해 주더라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투사들이 안고 온 불멸의 기치
수령결사옹위의 그 기치는
어머님의 기치였다고

총은 말해 주더라
백두밀림에 시원을 두고
파란만장의 시련과 역경을 넘어
수령님위업을 지켜 온 그 력사는
어머님의 력사였다고

투철한 사상정신적위력
탁월한 군사예술적재능
고매한 미덕으로 쌓아 올리신
백두산호위장군의 그 지위여

이런 대목에서야 좀 더 새롭게 쓸수도 있지 않겠는가? 담담한 어조, 구체적인 설명식의 시문장은 응당 불러 내야 할 흥분과 걱정을 불러 내지 못한다. 물론 공허하지는 않다. 그러나 상식처럼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시적형상대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설명으로 보여 주

있기때문에 응당한 감화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시에서는 사건형상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 특히 시인의 주정로부분에서 새롭지 못한 표현으로 이어진 설명이 도간도간 보인다.

그래서 함축되지 못하고 시가 《길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명이 아니라 체험의 형상으로 일관되어야 한다는데는 지어 한두줄의 시문장일지라도 시인특유의, 시인개성의 느낌에서 굴절되어 형상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시인의 얼굴이 드러나는 개성적인 체험세계를 노래하려면 새롭고 함축된 시문체부터 확립해야

할것이다. 혁명시인 조기천처럼 자기의 고유한 언어발을 가지고 썼더라면 더할나위없이 훌륭한 서사시가 되었을것이다. 물론 이것은 평자의 욕심에 불과하다.

하지만 선군시대 어머님의 영생철학을 시문학형상에 금문자로 아로 새겨야 할 시인의 숭고한 사명감에 비추어 볼 때 평자의 욕심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모든 시인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노래한 서사시창작의 필봉을 더욱 높이 들고 종자와 사상, 주체해명으로부터 구성과 언어에 이르기까지 형상의 모든 면에서 철학적깊이가 보장된 서사시들을 더 많이 창작해야 할것이다.

상식

영화부문에서 콤퓨터화상처리기술의 도입

최근 년간에 영화부문에서 3차원콤퓨터화상처리기술(CG)이 널리 도입되고 있는것이 하나의 세계적추세로 되고 있다.

CG 가 영화부문에 도입되게 된 경위를 보면 우선 보다 생동하고 실감 있는 화면(촬영상으로는 실현불가능한 화면)을 보여 줄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하여 도입되었다고 볼수 있다.

CG 가 도입되기전에는 생활영으로 할수 없는 조건, 례하면 강한 회오리바람의 피해라든가 배우가 벼랑에서 떨어 지는 장면 같은것은 막대한 위험을 동반하였다. 이런것들을 피하기 위해 이전에는 합성촬영이라든가 모형 등을 리용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조품이야》 혹은 《닭았다》 등의 표현보다 《아주 생동해...》라는 감각을 느끼기를 보다 희망하였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CG 가 출현하였다.

다음으로는 비용문제이다.

례를 들어 회오리바람을 촬영하자고 하면 그 피해 즉 나무가 뿌리채 뽑혀 지면가 승용차가 뒤집혀 박산나는 모양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는 모양 등을 찍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며 또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 나는가를 미리 알고 촬영을 계획한다는것자체가 불가능하며 안다고 해도 실시 촬영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현대과학기술은 CG 로 해결하고 있다. CG 는 우에서 지적인 모든 경우를 능란

히 무리없이 자연스럽게 처리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CG 는 영화촬영형상에서 실지로 어떻게 도입되고 있는가.

주체86(1997)년 CG 미술가만 해도 120여명이나 동원되어 제작된 려객선 《타이태닉》 호의 침몰사건을 취급한 예술영화에서는 대부분의 화면이 설마 3차원CG로 만들었다고는 생각할수 없을 정도로 매 화면이 완전무결하다.

특히 저녁노을이 비낀 바다우를 떠가는 《타이태닉》 호의 장면에서 하늘과 바다, 파도의 갈기와 물방울, 바다면을 떠다니는 거품, 비치는 태양 빛과 구름의 반사 등은 실물이상으로 실물다운 완성도를 보여 주었다. 이 영화의 제작자들은 바다에 대해서는 《정복》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 영화에서는 전혀 새로운 시도들이 실현되고 있는데 그것은 배우자체를 CG 화한것이다.

둘로 갈라진 갑판의 높은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도 갑판을 걸어 다니는 사람도 CG 로 만든 《사람》들이며 젊은 녀성의 확대된 얼굴이 어느새 늙은 녀자의 얼굴로 변하는 장면도 CG 의 조화이다.

이처럼 CG 는 영화부문에서 콤퓨터를 받아들인 최첨단기술로서 앞으로 그 지위는 더욱 높아 질것이다.

어찌하여 북쪽의 녀인들이...

럼형미

어찌하여 북쪽의 녀인들이
그토록 아름답고 강의하고
일손은 류달리 웅골찬것인지...
집집의 부엌문을 열어 보라
크고 작은 깨단지 옥단지 층층 쌓여 있고
옷칠한듯 까만 무쇠가마들
안주인의 알뜰함을 자랑하거니
넓고넓은 동해바다 붉고붉은 쇠물노을
가슴마다 비좁도록 일렁이여선가
인정은 얼마나 깊디깊고
성미는 또 얼마나 시원스러운가
말 없고 부드러운 눈매들에
리해와 열정의 불꽃 될 때면
꺼져 가던 해탄로도 불길 치솟구고
어기여차 노래 부르는 치마자락아래
광란하던 파도도 잠 자버리더라
대범스럽고 억세기도 한 이 녀인들에게
그렇게도 감미롭고 재간 많은
보배손이 있다는것은 참...
이들이 담그는 김치와 토장은 참으로 별맛
식혜, 낙지젓, 참나물김치
눈맛도 입맛도 천하의 별맛
남정네들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던가
녀인맛은 음식맛, 음식맛은 사랑맛이라 했거늘
북쪽의 녀인들과 한번 인연을 맺으면
천겁 바줄로 칭칭 동여 댄듯
떨어 지기 정녕코 쉽지 않아라
참된 사나이는 더더욱 참되어 지고
그렇지 못한 사나이는 비로소
삶의 진미를 알게 되나니
오, 이 녀인들이 바로
자식과 남편, 가정과 일터를 거느리고
이 땅에 휘몰아 친 고난의 광풍을
누구보다 일찌기 맞았고
누구보다 억세게 견디었고
누구보다 참담게 마무리한
이 나라 북녘의 들국화들이거니
예로부터 남남북녀라 일컬어 온
그 유래와 전통이
아니 북부의 싱그러운 수풀과 이슬이
이름 없는 산꽃들을 이토록 아름답게 피운것인가
아니여라 그대 누구든 사심없이 물어 보라
약초밭 김 매는 저 녀인에게

염소때 몰아 가는 저 처녀에게
발전소 세워 가는 녀맹돌격대원에게
정말로 북쪽태생인가를
조상대대로 살아 온 토배기녀인인가를
그러면 알게 되리 그대는
남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편 따라 출가해 온이 얼마나 많은가
림산으로, 바다로, 대흥단으로
진출해 온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이상하고 신비로운것은
여기서 3년만 살게 되면
누구나 아름다운 북녀가 되고 마는것
어찌하여 북쪽의 녀인들이
그토록 아름답고 강의한가를
알고 싶거든 또 그렇게 되고 싶거든
오시라 그리고 북녀가 되어 보시라
그러면 그대는 듣게 되리 알게 되리
류다른것을, 친근한것을 그리고 숭고한것을
이 땅엔 우리모두의 친정어머님이신
김정숙동지의 고향집이 있어라
군복 입은 어머님 오산덕에서
밤이나 낮이나 거울처럼 서계시여라
집삼의 바다가, 고말산과 염분진사격장들에선
오늘도 백발백중 총성이 메아리로 울리고
학교와 병원, 옹기상점과 빨래터에까지
어머님의 부드러운 음성 깃들어 있어라
수림마다 어머님 쓰신 구호나무
기념비인양 서 있고
어머님 올리시던 제철소의 첫 기적소리
천배만배로 진동하나니
아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누군들
어머님을 생각지 않고 닳지 않을수 있으랴
피도 숨결도 모습도 어머님처럼
혁명도 생활도 사랑도 어머님처럼
어머님처럼! 김정숙어머님처럼!
성스런 갈망과 소원속에
심장의 박동은 격렬해 진다 순결해 진다
저도 모르게 누구나 어머님처럼 되어 간다
아, 녀인의 정과 그리움 소중한 믿음을
송두리채 맡기고 사는 친정집
이 나라 녀인들을 어머니로, 투사로 되게 하는
넋의 친정집, 혁명의 친정집이
바로 여기 북쪽에, 회령에 있지 않는가!

돈지갑

강귀미

나의 어린 시절은 일본땅에서 흘러 갔다. 그 시절 할머니는 제비콩지 같은 나의 머리태를 땅아주며 이런 옛말을 들려 주었었다.

《옛날에 한 착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돈지갑을 하나 얻었다. 주인을 찾아 주려 해도 제것이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돈지갑을 열어 보았지. 돈지갑에는 엽전이 딱 한알 들어 있었더라. 주인은 없고 배는 고프고 해서 그 사람은 지갑안의 엽전 한알으로 떡을 한그릇 사먹었다. 그러니 이제는 빈 지갑만 남았지. 그런데 얼마 후에 돈지갑을 만져 보니 글썽 엽전 한알이 또 들어 있더라. 아니냐? ... 그건 한알 꺼내쓰면 한알 생기구 또 꺼내쓰면 또 생겨 나는 신기한 돈지갑이었단다.》

옛말은 끝나고 할머니는 부엌으로 동자질하러 나갔으나 나는 조고만 두손에 턱을 올려 놓고 창가에 앉아 끝없이 출렁이는 파란 바다를 내다보며 골똘히 생각하였다.

(나도 그런 신기한 돈지갑을 하나 얻었으면 얼마나 좋을가) 하고...

그때로부터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러 갔다. 반세기라는 세월이.

그 옛말을 듣던 때로부터 10년후 나는 귀국의 배길에 올라 조국으로 왔고 다시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은 할머니가 되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먼 옛 시절의 일을 회상하게 된것은 늙을수록 옛일이 더 선명히 떠오른다는 생리적인상때문이 아니다. 지금 바로 나의 앞에 먼 옛 시절의것인 낡은 돈지갑이 놓여 있기때문이다. 낡을대로 낡은, 점잖게 말하면 《고색창연》한 물건이다. 이 물건을 내가 처음으로 보게 된것은 33년전이었다.

33년전, 그해에 나는 결혼하였었다. 그러니 이 돈지갑과 내가 알게 된 년한은 결혼생활의 년한과 일치한다고 할수 있다.

33년, 꼭 33년이다...

시집 온 새색시는 집안을 정돈하는것으로부터 자기 일을 시작한다. 어찌 보면 새살림이란 가구들과 물건들을 주부의 기호에 맞게 배치하고 정리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는것인듯 하다. 여담이지만 그래서 앵겔스가 《너자들의 제일 가는 우점은?》라는 물음에 《물건을 제 자리에 놓을줄 아는것》이라는 룡담식의 경구로 대답했는지도 모른다.

나 역시 신혼생활을 그 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날은 신혼생활을 시작한 첫 일요일이었다.

도자기무늬가 새겨진 누르스름한 창가림이 벗겨지고 하르르한 꽃무늬의 레스창가림이 드리워져 방안은 한결 밝아 졌다. 옷장들의 위치도 달라지고 킁킁하던 방구석에 내가 가져온 3면경대가 놓여 지니 이제는 이 방에도 너주인이 생겼다는감을 안겨 주었다.

방안에 꽃향기도 그윽해 졌다. 창턱에는 활짝핀 수국화분이 놓이고 책상우의 꽃병에는 한아름이나 되는 다리야꽃이 꽃혔다. 경대앞에도 갈쭉한 유리꽃병에 한송이 빨간 장미가 꽃히고...

책상보도 꽃무늬, 침대보도 꽃무늬.

꽃, 꽃, 꽃 ...온방이 꽃으로 그득해 졌다.

나는 꽃을 무척 사랑했다. 하기가 짧은 녀성들치고 누가 꽃을 좋아 하지 않으랴.

처녀시절에 내가 뜬 하얀 레스원탁보와 꽃병받치개로 장식하니 방은 녀성의 섬세함을 한결 돋구어 주었다.

나는 문앞에 서서 두팔을 허리에 짚고 방안을 휘둘러 보았다.

(이쯤하면 신혼살림방답다고 할수 있겠지.)

그때 뒤에서 언제 돌아왔는지 외출했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이게 내가 살던 방이 맞긴 맞소? <남자냄새>라곤 재털이밖에 남지 않았구만!》

방꾸리기에 열중하다나니 남편이 돌아 온것도 몰랐던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남편이 쓰던 옷장정리에 달라 붙었다. 남편은 옆에 서서 싱글거리며 내가 하는 일을 구경만 하고 있었다. 구경하는것이 즐거운 모양이었다.

옷장의 제일 옷서랍을 정리하던 나는 명주천으로 싸놓은 물건을 발견하였다. 꺼내여 보니 낡은 돈지갑이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나의 앞에 놓여 있는 돈지갑이다.)

그때 나는 난생 처음 보는 너무도 구식인 주머니 비슷한 돈지갑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너무 오래된것이어서 색이 바랜데다 네귀가 많아진 밤색의 낡디낡은 가죽지갑이었다.

이 세상에 자크라는 발명품조차 나오기전에 만들어진 돈지갑인지 지폐가 들어 갈만 한 크기의 네모반듯한 가죽주머니에 약간 더 큰 주머니가 덧씩워져 붙어 있는 물건이었다.

새 살림방에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

다.

《이게 어느 때 돈지갑이에요? 혹시 왜놈들 대정시기쯤에 만든 돈지갑이 아니에요?》

《...》

남편은 대답없이 돈지갑만 바라보고 있었다.

《버릴가요?》

가볍게 던진 나의 말에 남편은 빼앗듯이 내 손에서 돈지갑을 가져 갔다.

《버리다니?!》

그리고는 한동안 말없이 돈지갑을 내려다 보기만 하였다.

나는 영문을 알수 없어 남편과 돈지갑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이윽고 남편은 나의 얼굴으로 눈길을 돌리더니 폭 가라앉은 어조로 말하는 것이었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물이요.》

《예?!》

그러하여 나는 채 정리되지 않은 방에서 돈지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33년이 지났다. 그러나 나는 그때들은 이야기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1

때는 주체10(1921)년이었다고 한다. 경상남도 상주사람인 나의 시할아버지는 일찍 상처한후 외아들인 시아버지를 공부시켜 불가 하여 일본으로 건너 갔다.

그러나 그 땅에 건너 가지만 하면 누구나 돈도 벌수 있고 공부도 할수 있다던 소문은 알쥔한 헛소문이었다.

온 일본땅을 밟으며 류랑결식하던 끝에 겨우 얻은것이 토목로동일자리였던것이다. 거처는 프 내기인생의 정류소인 함바집에 정했다.

일자리를 얻자 시할아버지는 아들을 공부시키려는 희망에 그야말로 기세충천하여 일했다고 한다. 함바집은 일본인과부가 운영했다. 이 녀주인은 눈꼬리가 축 처진데다가 두볼이 늘어져 보기만 하여도 심술이 넘실넘실하였다. 로동자들속에서는 《부르독크》라는 별명으로 불리웠다.

시아버지는 나이가 어려 로동은 못하고 함바집에서 심부름근로자를 하였는데 그 《부르독크》녀주인밑에서 기를 펴수 없었다.

새벽부터 밤 늦도록 나무패기, 물깎기, 식기가지기 등으로 땀이 뚝뚝 했으나 녀주인은 찍하면 일손이 굼뜨다고 욕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눈치가 무딘 주제에 일본에까지 공부하러 와?! 와세다대학에라도 가보지 뭐?》라고 비꼬곤 하였다.

그러나 시할아버지는 끄떡하지 않았다. 아들이기가 죽은듯 하면 이렇게 큰소리를 치곤 했다.

《그따위년의 말은 흘려 버려라. 내가 이제 너를 그년 말하는 와세다대학에 꼭 보내지 않나 봐

라!》

함바집에서 조선로동자들은 물론 일본인로동자들도 항상 조선바지저고리를 입고 호기 있게 다니는 시할아버지를 은근한 경이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웃음거리로 될 때가 있었으니 허리춤에 무명천으로 만든 돈주머니를 언제나 덜렁덜렁 매달고 다니는것이였다. 모두 같은 로동자들이라 그 돈주머니가 때로는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눈물겹게 보기도 하였다.

시할아버지에게는 《무명돈주머니》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시할아버지는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그토록 즐기던 담배도 끊었다. 동료들이 이따금 탁배기를 한대포씩 할 때에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곤 하였다.

《간조》날이면 《간조》봉투를 거꾸로 탁탁 털어 마지막한푼까지 말끔히 무명돈주머니에 집어넣곤 하였다. 어느 《간조》날엔가는 함바에 돌아와서 따져 보니 계산에서 5전이 틀려 있었다. 시할아버지는 큰 일이라도 난듯 두주먹을 부르짖고 퍼붓는 비를 맞으며 도로 달려 가 회계원과 한바탕 떠들썩 다툰 끝에 5전을 마저 받아 오고야 말았다.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고 그렇게 1년나마 모으다 보니 돈주머니는 약간이나마 배가 나온듯 하게 되었다.

함바집 로동자들속에 마침 소학교문전출입개나한 사람이 한명 있어 시할아버지는 우선 아들이 그 사람에게서 식자나 떼게 하기로 작정하였다. 어느 쉬는 날 시할아버지는 일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상점거리에 학습장과 연필을 사러 나갔다. 학용품 파는 상점을 찾아 이 상점 저 상점을 이리기웃 저리기웃하다가 구석진데 자리 잡은 상점으로 찾아 들어 갔다.

개학을 앞둔 때라 학용품상점에는 손님들이 꽤 붐비고 있었다.

(래년쯤엔 내 아들놈을 진짜 학교에 보내야지.)라고 생각하며 시할아버지는 사람들속을 비집고 들어가 소리쳤다.

《아노... 쵸멘오 꾸레(저... 학습장을 주요.)》

서툰 일본말에 상품을 사고 팔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시할아버지에게로 집중되였다.

킁킁거리는 웃음소리도 들려 왔다.

(빌어 먹을 놈들, 조선사람이 네놈들말을 이만큼 하는것도 대단한줄 알아라.) 하고 속으로 코웃음치며 시할아버지는 점원한테서 학습장 몇권과 연필 서너자루를 받아 쥐였다. 그리고는 돈을 물려고 피춤에서 돈주머니를 손더듬으로 찾는데 웬 일인지 그놈의 돈주머니가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이게 웬 일인고?)

왈칵 밀려 드는 불길한 예감에 급히 허리춤을 내려다 보니 아이쿠, 돈주머니는 온데간데 없여지고 돈주머니가 매달려 있던 끈오래기만 달랑거리고 있지 않는가. 어느 소매치기너석이 돈주머니를 칼로 찌뚫 잘라 간 것이었다.

대번에 얼굴이 시뻘개 진 시할아버지는 학습장과 연필을 매대우에 내동댕이치고 온 상점이 떠나가게 고래고래 소리지르기 시작하였다.

《어느 놈이, 어느 놈이, 어느 쪽발이놈의 새끼가 감히 내 돈주머니를 잘라 갔소?! 어느 놈이냐? 흉측한 놈의 왜놈종자새끼들, 문둥이 같은놈들!...》

시할아버지의 입에서 경상도사투리의 별의별 욕지거리가 마구 쏟아져 나왔다.

조선말을 모르는 일본사람들은 눈이 동그래서 벽적 고아 대는 시할아버지를 한동안 멍청히 바라보다가 얼마후에야 사태를 알아 차렸다. 그러나 누구 하나 찾아 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었고 동정의 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도리어 킬킬거리며 웃거나 《마누께나센징》(바보 같은 조선놈)이라고 한마디씩 했다.

그럴수록 시할아버지의 분노는 더욱 격앙되는데 이 소동으로 상점에 손님이 적어 질가봐 두려워난 점원이 매장에서 나와 시할아버지를 문쪽으로 끌고 갔다.

《자, 자, 여기서 암만 고아 대었자 쓸데 없소. 주재소에 가서 찾아 달라고 신고하라고요.》

《주재소?》

그럴상 싫어 시할아버지는 지체없이 주재소를 찾아 달려 갔다. 그러나 시할아버지에게서 전후사연을 들은 주재소의 경찰관은 그의 허리춤에서 데루거리는 돈주머니끈을 보고는 《으하하하》하고 배를 그러쥐고 너털웃음부터 웃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눈물이 질질 나오도록 한참 웃어 대던 경찰놈은 발을 탕 구르며 소리쳤다.

《센징들은 물건건사 하나 제대로 할줄 모르는 바보들이다! 돈주머니를 데루데루 매달고 다니는 거야 <도적이며, 어서 떼가시라> 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시할아버지는 더 말도 해보지 못하고 주재소를 나오고 말았다. 거리에 나서자 더욱 화가 북받쳐 땅바닥에 침을 탁 뱉었다.

(이놈의 왜놈땅은 온통 도적놈들뿐이야. 도적놈이건 경찰관이건 빌어 먹을 다 같고 같은 놈들이다!)

시할아버지는 돈주머니찾기를 단념할수밖에 없었다. 세상을 떠난 안해가 새각시때에 한뼘두뼘 정성 담아 만들어 준 돈주머니였고 아들의 《래일》을 모아 두었던 돈주머니였다.

맥없이 함바집에 들어 섰을 때 돈주머니가 없어진것을 제일 먼저 알아 본것이 《부르독크》너 주인이었다. 아마 그 돈주머니에 제일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었다.

《아니 긴상, 돈, 돈주머니가 어데 갔소?! 아, 혹시 마음 드는 너자라도 생긴게 아니요? 아들공부와 너자를 바랬소?》

(흥, 네년도 나를 놀리는구나. 하긴 네년도 똑같은 도적놈종자지.)

시할아버지는 그년이 자기뒤통을 슬금슬금 따라와 돈주머니를 잘라 간것이 아닐가 하고 생각하였을 정도로 《부르독크》가 증오스러웠다.

그래도 《그것 참 안됐구만.》 하고 동정해 주는것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었다.

《어찌겠소? 이놈의 땅이 원래 이런 땅인걸.》

밤이었다.

하루종일 고역에 시달린 노동자들의 코고는 소리가 사방에서 요란했으나 시할아버지만은 여전히 분한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아 이리뒤척 저리뒤척하고 있었다.

(얼마나 죄가 빠지게 <허가 빠지게> 일해서 번돈이었던고. 탁배기 한사발 씨원하게 마시지 못하고, 아들놈에게 말눈깔사탕 하나 쥐여 주지 못하고 모은 돈인데...)

저절로 꺼지는듯 한 한숨이 터져 나오는데 옆에서 잠든줄 알았던 아들의 손이 슬그머니 허리춤으로 와 빈 끈을 매만졌다.

《너 아직도 안 자냐?》

그러자 울먹거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어둠속에서 들려 왔다.

《아버지, 아까운 돈을... 나를 공부시키려고... 아버지, 나 공부 못해도 돼요... 고향으로 도로 가자요.》

시할아버지는 아들의 눈물을 투박한 손으로 닦아 주며 살뜰하게 말하였다.

《별수 없지. 제 나라도 눈을 번히 뜨고 빼앗긴 바보가 돈주머니인들 왜 떼우지 않겠냐. 제 나라를 빼앗은 놈들의 땅이라는걸 잊었던게 잘못이지.》

이 말은 아들에게 하는 말이면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시할아버지가 나라 찾는 운동에 나서거나 반일투사로 된것은 아니었다.

이 《도난사건》으로 시할아버지가 찾은 《인생철학》은 《돈주머니 하나 마음 놓고 차고 다닐수 없는 이놈의 왜놈땅에서 살아 가자면 한시도 멍해 있지 말고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한다》는 일공인부다운 단순한 것이었다.

그후 시할아버지는 외모부터 달리 했다. 보란듯이 입고 다니던 조선바지저고리는 고향 갈 때

에나 입겠다고 깨끗이 빨아 보자기에 정히 싸놓고 작업복을 하나 장만해서 입고 다녔다.

시할아버지는 《간조》를 탕을 때 제일 먼저 밥색돈지갑부터 하나 샀다. 그리고는 돈지갑을 어떤 왜놈의 눈길도 볼수 없게 복대속에 깊숙이 건사하였다...

바로 그 돈지갑이 지금 내앞에 놓여 있는 돈지갑이었다.

내가 본적이 없는 시할아버지, 조선바지저고리에 돈주머니를 달아 매고 왜놈땅을 거침없이 호기 있게 다녔다는 시할아버지.

허나 끝내 자식공부도 못 시키고 그 땅에 무주고혼이 된 시할아버지모습을 눈앞에 그려 보느라니 살길을 찾아 일본땅에 건너 간 1920년대 민족수난자들의 모습이 선히 떠오른다.

시할아버님은 근 한세기가 지난 오늘 자신이 남긴 그 돈지갑이야기로 손자며느리가 소설을 쓰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하시였을가...

2

이태동안이나 시할아버지의 말투대로 하면 《최가 빠지게》 일하여 밥색돈지갑에는 얼마간의 돈이 들어 있게 되었으나 아들 공부시키려던 꿈은 종시 실현시킬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이제는 제법 사내꼴이 잡힌 아들들을 대전스레 바라보며 《내 갔다 올란다.》하고 함바집을 떠난 시할아버지는 밤 늦게까지 연장작업을 하다가 그만 차에 치웠다.

그는 눈을 감기전에 눈물범벅이 된 아들에게 복대에서 꺼낸 돈지갑을 가까스로 쥐여 주면서 《나는 먼저 간다... 너무 슬퍼 말아. ... 사내자식이 울긴... 이 돈지갑에 돈이 많지는 못하다. 그득 채워 너에게 주려고 했는데...

이놈의 땅에 너 홀로 두고 가자니... 눈을 감지 못하겠구나.》

평생 눈물을 모르던 시할아버지의 두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내렸다.

이렇게 되여 시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몇푼의 돈과 함께 나라 잃은 설움에 부모 잃은 설움까지 덧씌어 진 돈지갑만 남기고 떠나가셨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혈혈단신이 되여 버린 시아버지는 부친을 이름 없는 야산에 묻고 눈물을 뿌리며 와세다대학이 있다는(아버지가 자주 말하던) 도쿄로 향했다.

중학교도 못 다닌 주제에 와세다대학이란 어렵도 없을줄 알면서도 부친이 입버릇처럼 보내주마 이야기하던 그 대학의 근방에라도 가보려는 생각에서였다.

도쿄로 간 시아버지는 집없이 떠돌이생활을 하면서 신문배달, 우유배달, 샛짐... 닥치는대로 일하였다.

아버지가 물려 준 돈지갑에 몇푼의 돈이 있었

으나 차마 손을 댈수 없었다. 거기에는 어찌 보면 어머니의 사랑까지 합친듯 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텁텁한 체취가 숨배여 있었다. 액수는 보잘것 없었지만 그 돈은 천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아버지의 《유산》이었다.

그 시절 시아버지에게 제일 부러웠던것은 집이었다. 하루종일 고달프게 일할 때의 육체적고통은 그럭저럭 참을수 있었지만 밤마다 찾아 오는 외로움이라는 정신적고통은 진정 참기가 어려웠다.

공원의자에서 하루밤, 길바닥에서 또 하루밤...

어느 비 내리는 곳은날 다행히도 그는 한 공사장옆에서 텅굴고 있는 토관을 발견하였다.

그속에 들어 가서 비는 피할수 있었으나 젖은 옷이 몸에 달라 붙으며 덜덜 떨려서 잠들수 없었다. 둥그런 토관아구리로의 집집의 환한 불빛이 바라보였다.

(나는 언제면 저런 집에서 살수 있을까. 집, 집... 집이 있었으면...)

그때의 심정이 일생을 두고 잊혀 지지 않아 시아버지는 늙으신후에도 깊은 밤이면 불 밝은 평양의 거리를 내다보며 《집 없는 천사》라는 노래를 조용히 부르시곤 하셨던것인지도 모른다.

하늘을 지붕 삼고 떠도는 신세
동서남북 바람결에 갈 곳이 없어
찬 이슬 잔디우에 쓰러져 울면
어머님의 옛 사랑이 다시 그림다

고아의 설움, 그것은 곧 집 없는 설움이 아닐가. 집이란 아버지, 어머니의 품이며 형제들의 사랑과 위안인것이다...

싸늘한 비바람이 휘몰려 드는 토관속에 쭈그리고 앉아 밖을 하염없이 내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토관아구리에 시꺼먼 사람의 형체가 불쑥 나타났다.

시아버지가 흠칫 놀라는새에 벌써 그 형체는 토관안으로 쑥 들어 왔다. 순간 토관속에서 두 몸뚱이가 부딪쳤다.

침입자가 소리쳤다.

《누구야?!》

《넌 누구야? 남의 <집>에 뛰여 들면서도 무슨 큰 소리야?》

그러자 침입자의 목소리는 갑절로 높아 지고 《류창》해 졌다.

《남의 <집>이라고? 이젠 내 <집>이야! 거기에 깔린 모포(거적떼기)가 보이지 않아?》

그럴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런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어떻든 이젠 내 <집>이야!》

《뭐?》

상대방의 주먹이 날아 들었다. 시아버지는 토관안에서 뒤로 나자빠졌다. 그러나 곧 일어 났다.

찬비 내리는 밤, 그가 찾아 낸 유일무이한 《집》을 지켜 내는가 빼앗기는가 하는 생사존망의 싸움이였다.

시아버지는 아직 드세지 못한 주먹이었으나 지지 않고 상대방의 면상을 내박았다. 토관속에서의 싸움은 점점 치열해 졌다.

쌍방이 다 한결음도 양보할수 없는 절박한 정황이었다. 타협이란 있을수 없었다. 토관속에서 쫓겨 나면 찬비속에서 죽던가 골병이 들판이였다.

악에 반친 시아버지는 온몸의 힘을 모아 《이 문둥아!》 하고 부르짖으며 상대의 가슴을 내질렀다. 그러자 맞받아 날아 오던 상대방의 주먹이 공중에서 푹 멎었다.

《문둥이?... 너 조선사람이냐?》

《조선사람이다. 왜?》

상대방의 주먹이 아래로 내려 졌다.

《나도 조선사람이다. 이 문둥아!》

《...》

시아버지는 씨근거리고만 있는데 상대방은 꺾 꺾 웃었다.

《왜놈땅에서 조선사람끼리 싸울 멧은 없지.》 하고는 화해의 뜻으로 어깨를 톡 치는것이였다.

알고 보니 그도 역시 경상남도에서 흘러 온 불쌍한 인생이였다. 이국의 거친 땅에서 아무렇게나 굴러서인지 성격이 급하고 거칠었지만 어떻게든 조선사람이였다.

그후부터 그들은 그 좁은 토관안에서 사이 좋게 《동거살이》를 하였다.

그의 이름은 세찬이였다. 나이는 시아버지보다 세살우여서 형구실을 하였다. 하루종일 신문배달이요 집 나르는 일을 하고 밤이면 토관에 돌아와 건빵을 시아버지손에 꼭 쥐여 주곤 하였다.

그의 입에서는 말끝마다 《이 문둥아!》라는 말이 버릇처럼 튀어 나오곤 했다. 일본놈들과 말할 때도 그 버릇은 변함 없었다. 기분 좋아도 《문둥아》, 화가 날 때도 《문둥아》였다. 진짜배기 《경상도문둥이》였다.

그의 그 버릇이 시아버지에게는 고향의 흠냄새처럼 구수하게 느껴 지곤 하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집 없는 천사》의 설음이 없 어지거나 가서 지는것은 아니였다.

《성락이, 우리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서 집부터 마련하자.》 하고 세찬을 말했다.

《이놈의 땅에선 돈이 있어야 돼. 돈만 있으면 만사형통이야. 집도 성락이 가고 싶다면 그 대학도...》

우리 성락의 그 돈지갑을 불룩하게 만들어 집을 사고 그 다음은 대학엘 가고, 응?》

《그러자요 형님!》

그런속에서 주체12(1923)년이 되었고 한여름이 지나갔다. 가을의 숨결이 느껴 지기 시작하던 9월 1일이였다. 오전 11시 58분!

새벽부터 그들이 신문배달, 우유배달로 뛰어다니다 돌아 와 토관속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발밑에서 쿵하는 땅울림소리가 터졌다.

토관은 누가 툭치 울리기라도 한듯 허공에 떠올랐다가 떨어 지며 데굴데굴 굴러 갔고 두사람은 토관밖으로 뿌려 저 나왔다. 일어 서려 했으나 일어 설수 없었다.

땅이 격랑에 휩싸인 물결처럼 솟아 올랐다가 내려앉으며 경풍이라도 인듯 떨어 댔다. 금시 발밑의 땅이 짹짹 버그러지고 깊이를 알수 없는 심연이 입을 벌렸다.

《지진! 지진이다!》

무서운 광경이였다.

와지끈, 쟁가당, 건물들이 모래성처럼 풀썩풀썩 무너졌다. 폭파된 가스탱크에서 타래쳐 오르는 불길, 불바다가 된 거리, 사람들의 비명소리, ... 이것은 정녕 지옥이였다. 아니 지옥이상의 아비규환이였다.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었다. 그들이 다소나마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온 도시가 폐허로 변하여 있었다. 거리의 곳곳에서 타오르는 삼단 같은 불길, 죽어 가는 사람의 비명과 신음소리, 찾고 부르는 악청과 통곡소리,...

이것이 인류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진들 중의 하나로 력사에 기록된 간도대지진이였다. 사상자가 얼마인지는 누구도 몰랐다. 세상천지는 모두 지옥으로 변해 버린것 같았다.

몇차례 계속되는 여진속에서 불길과 연기에 휩싸인 폐허속을 사람들은 유령처럼 헤매였다.

나의 시아버지와 세찬이도 이 지옥속을 유령처럼 헤매였다. 그들의 유일한 보금자리였던 토관은 깨여 저 나갔는지 땅속에 삼키워 버렸는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지옥은 아직 앞에 있었음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다음 날인 9월 2일, 파괴된 도시에 《천왕》의 칙령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였다. 그와 함께 뜻밖의 웨침이 울려 나왔다.

《조선놈들이 거리에 방화를 하였다!》, 《조선놈들이 우물에 독약을 쳤다!》, 《폭동을 일으켰다!》, 《조선놈들을 몽땅 죽이라!》

뒤이어 군대, 경찰, 재향군인, 우익단체불량배들이 감행하는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무서운 살륙의 참극이 벌어 졌다.

길목들마다에는 검문소들이 설치되어 길 가는 사람들속에서 조선사람들을 골라 내여 사정없이

죽었다.

총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불 타죽고 물에 던져 져 죽고 목이 잘리워 죽고 팔다리가 툇으로 켜져 죽고 지어 생눈에 식칼을 대는 자들마저 있었다.

250명의 조선사람들을 태운 배에 석유를 뿌려 불 지른 다음 요꼬하마 앞바다에 침몰시켜 죽게 한것도 이때의 일이었다.

시아버지는 세찬이와 함께 밤어둠을 타서 지옥의 골목골목을 빠져 다녔다. 향방없이 내달려 겨우 도교교외에 이르렀다.

그곳에도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동안 수수밭에 몸을 숨기고 지켜 보았다.

통행인들이 나타나자 검문소놈들은 다짜고짜로 묻는것이였다.

《센징이지?》

《아니요.》

《쥬고엔 고쥬고센(15원 55전)을 해보라.》

《쥬고엔 고쥬고센.》

《다시!》

《쥬고엔 고쥬고센.》

《<고>를 제대로 발음하는걸 보니 센징은 아니구나. 가라! 그리고 너!》

한사람 한사람 검열을 하는것이 보통이 아니였다.

《정말 끔찍한 놈들이구만!》

세찬은 혀를 찼다.

《조선사람들은 아무리 일본말을 잘해도 <고>만은 제대로 하기 힘들어. 쪽발이들처럼 코소리를 섞어 <고>소리를 못 내거든. 자네 제대로 할수 있나? 한번 해보게.》

《쥬꼬엔 꼬쥬꼬센!》

《이러다간 단번에 들창나겠어. 내 하는대로 따라 해보라구. 쥬고엔 고쥬고센.》

세찬은 일본땅에 굴러 와 고아로 오래동안 살다보니 일본말이 류창하였으나 함바집에서 일본말을 약간 배운게 전부였던 시아버지는 어렵도 없었다.

열번 스무번 반복해도 마찬가지였다.

세찬은 한숨을 쉬었다.

《이 문둥이를 어카노? 별수 없지. 될 때까지 해볼밖에.》

《에익, 나는 그만 두겠소.》

시아버지는 손을 꺾 저었다.

《백번이 아니라 백년을 한다해서 내 혀바닥이 왜놈 혀바닥이 되겠소?》

《그럼 어칸다능기노, 이 문둥아?》

시아버지는 히죽이 웃었다.

《걱정마소. 형님은 자신 있소?》

《니 걱정밖에 없다.》

《그럼 형님은 내가 통과하는걸 보고 뒤따라 오

소.》

시아버지는 수수밭에서 나와 활개치며 검문소로 걸어 갔다.

시퍼런 칼날이 앞을 막았다.

《야, 너 센징이지?》

시아버지는 입을 항 벌리고 쳐다보기만 했다.

《야로! 센징인가 묻지 않는가?!》

시아버지는 대답대신 머리만 기웃하고 쳐다보았다.

《야로, 귀머거리로구나.》

그자들은 종이장에 《15원 55전》이라고 써서 쳐들었다.

《이걸 읽어 봐!》

시아버지는 주머니를 발작 뒤져 5전짜리를 하나 꺼내들고는 병어리들이 하는 식으로 엄지손가락과 식지로 가위를 만들어 입가에서 이리저리 뒤집으며 5전밖에 없다는 시늉을 하였다. 입으로는 연신 공공거리는 소리를 냈다.

《재수없이 병어리로구나. 가라!》

그자들의 발길에 채워 꺼꾸러질번 하며 검문소를 통과하였다. 얼마쯤 가다가 길옆에 숨어서 검문소를 지켜 보았다.

검문소에는 세찬이가 서 있었다. 그는 그자들이 하라는대로 15원 55전을 외우고 있었다.

《쥬고엔 고쥬고센!》

그자들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다시 해보라.》

《쥬꼬엔 고쥬고센...》

그자들은 서로 마주 보더니 바싹 다가섰다.

《다시 해봐!》

세찬은 마침내 화가 난듯 목소리가 높아 졌다.

《쥬꼬엔 고쥬고센! 문둥이 같은것들!》

마지막말은 저도 모르게 튀어 나온 버릇된 외마디였으나 그 외마디가 모든것을 결정하였다.

《문둥이? 센징이다!》

다음 순간 《앗!》하는 소리와 함께 왜놈의 칼이 세찬의 가슴을 찔렀다. 세찬은 폭 쓰러졌다.

(아, 세찬형님...)

시아버지는 피 터지게 입술을 깨물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조선사람은 왜 이런 참변을 당해야 하는가?! 무엇때문에? 무엇때문에?)

어찌다 술 한잔 들이키기만 하면 함바집이 들썩하게 《리완용, 이놈!》하고 고래고래 소리치군 하던 아버지가 떠올랐다.

그때의 시아버지 심정으로 말하면 리완용이라는 놈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었다고 한다. 길옆 수수밭에 숨어 한주일을 보냈다.

시아버지는 심리적으로통과 굶주림으로 하여 운신조차 못할 형편이 되고 말았다. 정신이 가물거려 반혼수상태에 있다가 문득 돌아 가신 아버지

가 생시처럼 나타나 《내가 준 돈지갑에 돈이 있지 않느냐.》하는 바람에 정신을 차렸다.

복대를 만져 보니 돈지갑이 잡혔다. 돈지갑은 파스하였다.

(돈지갑?!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어슬넙에 시아버지는 벌벌 기다실이 하여 어느 한 인가를 찾아 들어 갔다. 그 집은 다행히 지진 피해를 입지 않은 집이었다.

《주인님 계십니까?》

이윽고 《거 누구요?》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초롱불을 든 사나이가 내다보았다.

그는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키 힘든 시아버지의 모습에 기겁을 하며 《당, 당신 누구요?!》하고 소리쳤다.

사나이의 웨침소리에 놀란 아낙네가 그의 어깨 너머로 내다보더니 《으악!》 하고 비명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그러건 말건 시아버지는 집안에서 풍겨 나오는 음식냄새에 온 내장이 벌컥 뒤집혀 지는 것만 같았다.

그는 성급히 10원짜리 한장을 꺼냈다.

《이 돈을 드릴테니 밥 한그릇만 주시오.》

사나이는 여전히 눈이 휘둥그래서 내려다 보기만 하였다.

시아버지는 돈지갑에서 5원짜리 한장을 더 꺼냈다.

《5원 더 드리지요.》

그러자 사나이의 큰 눈이 더 커졌다.

《당신 조선사람 아니요?》

저주할 《고엔》(5원) 이라는 말때문이였다.

사나이의 어깨너머로 아낙네의 짜늘한 목소리가 들려 왔다.

《센징에게는 밥을 주지 못해요. 그러다가 우리까지 피해 입으니까요.》

시아버지는 돈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들었다.

《밥 한그릇만 주시오.》

《안돼요!》

문이 확 닫졌다.

세찬 바람이 맥을 잃고 쓰러져 버린 시아버지의 손에서 돈을 한장 두장 빼앗아 훔날려 갔으나 시아버지는 그것을 붙잡을 힘도 없었고 찾고 싶지도 않았다.

(돈, 아버지가 이태동안이나 피땀 흘려 번 돈, 목숨까지 잃으면서 넘겨 준 돈, 그러나 이 돈이 한그릇의 밥도 주지 못하다니...

아, 나라 없는 백성에게선 돈도 휴지장이 되어 버리누나.)

그는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 보니 마을 밖의 언덕아래에 굴러 내려 와 있었다. 죽은줄 알고 갖다 버린것이였다.

다행하게도 언덕밑은 무우밭이였다. 시아버지는 무우를 먹으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그렇게 지내기를 14일간, 그것은 시아버지가 《집 없는 천사》의 설음으로부터 《나라 없는 수난자》의 설음을 뼈속깊이 알게 해준 나날이였다....

나는 그 참변을 당해 보지 못한 재일조선인 후세이다. 허나 어찌 그 참변이 우리 선대들만이 겪은 참변이라. 나의 피속에서도 선대가 물려 준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사무친 원한이 흐르고 있다.

오늘도 간포지방의 하늘에는 그때 학살 당한 세찬이를 비롯한 2만 3천여명의 혼들이 배회하고 있으리라. 눈도 채 감지 못한, 무덤도 남기지 못한 령혼들이...

간포대지진의 체험자인 시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갔다.

그러나 시아버지의 돈지갑은 이렇게 고행의 하 많은 이야기와 함께 전해 오고 있다.

3

드디어 조국해방의 날이 왔다. 일제패망의 날이...

시아버지는 울었다. 이날을 못 보고 너무도 일찌기 돌아 가신 아버지와 때 이르게 서리 맞은 세찬이를 그리고 이역땅에 원통하게 묻혀 진 이름모를 수많은 령혼들을 생각하며 울었다.

시아버지는 인차 고향으로 가려고 보짐을 찼다. 울망줄망한 자식들을 거느리고 부두가에 갔으나 고향땅이 미국놈들의 군화에 짓밟혔다는 말을 듣고서는 실망하여 그만 눌러 앉고 말았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도시, 패전국민의 공포와 허탈감으로 어깨가 축 늘어 진 일본인들...

과연 그때 시아버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눌러 앉기로 작정한 다음날부터 시아버지는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것도 시내에서 제일 번화한 거리였던 역전 맞은편에 일본인들이 폐허우에 주저앉아 감히 엄두도 못내고 땅임자도 어디에 들어 박혔는지, 묻혀 버렸는지 모르는 때였다.

시아버지는 짧은 기간에 다섯칸짜리 2층집을 번듯하게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바깥 출입문우에 《김성락》이라고 써여 진 커다란 문패를 보란듯이 달아 놓았다.

집들이하는 날 시아버지는 아는 동포들이란 동포들은 다 초청하여 소박한 《탁배기연회》를 차렸다. 얼근해 진 동포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다.

《성락씨, 참 잘했소. 내 이 집에 들어 설 때 보니 웅장이 된 왜놈새끼들이 문패를 흘끔흘끔 결눈질하며 지나가질 않겠소?》

《우리 조선사람들이 숨이 다 시원하당께.》

《역시 성락씨는 통이 크다니께. 이쯤해야 조선

사람이지.》

그후 정신을 수습한 일본사람들이 저마다 집을 짓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네 집뒤에는 커다란 국장이, 집옆에는 려관이 들어 앉았다. 그 주변은 변화가가 되었다. 거리형성으로 보아 시아버지의 집은 철거해야 된다는 시역소의 요구도 있었고 그새 어디에 은신하고 있던 땅임자까지 나타나 부산을 피웠지만 시아버지의 강경한 태도로 조선사람이름문패를 단 그 집은 여전히 우뚝 서 있었다.

고향 가기를 단념한 시아버지가 폐허속에 주저앉으면서 그때 생각한것은 이국땅에서지만 왜놈보란듯이 살아 가겠다는 결심이었으리라.

...간또대지진을 겪은 다음 시아버지는 공부할 생각을 싹 걷어 치웠었다. 할수도 없었다. 올라 못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는것이 나왔다. 시할아버지처럼 여기저기서 토목로동을 하며 살아 가던 시아버지는 간또대지진 몇년후에 나고야방직 공장에 팔려 와 10년이나 고생한 파년한 처녀와 짝을 무었다. 짝은 무엇어도 세방살이를 해야 하는 가난한 한쌍이었다. 슬하에 하나하나 자식이 늘어날 때는 기쁨보다도 제 집 없는 설움이 더 커지곤 했다.

오늘은 복으로, 래일은 남으로.

일본각지 토목로동관을 헤매며 생계를 잇는 인생이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따라 가는 곳마다 함바집 식모노릇을 했다.

그러다보니 태어나는 자식들의 출생지가 모두 각각이었다. 혹가이도 삿쵸로부터 규슈 가고시마에 이르기까지...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보다 일제의 패망덕분에 이국살이 스물두해만에 제 집을 마련하였다.

가족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그 2층집은 오까야마에서 조선동포들의 모임장소이기도 하였다.

조국에서 공화국이 창건되었을 때는 시아버지가 손수 만든 공화국기가 창문마다에 휘날려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조국해방전쟁이 일어 났을 때에는 벽에 붙은 조선지도앞에 동포들이 모여들어 인민군대가 진격하는 곳마다 붉은 오각별표시를 하면서 저마다 자기들의 고향이 해방되었다고 기뻐들 했다...

그때부터 몇년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무어 주신 총련이 결성되었고 시아버지는 현본부위원장으로 선거 받았다.

이때로부터 시아버지에게는 하나의 별명이 생겼으니 《총련미치광이》라는 별명이였다.(물론 《민단》계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였다.)

한달치고 20일나마 산하 지부들에 나가 있는것은 보통이였다.

오죽했으면 보름만에 집으로 들어 온 시아버지

가 아침상에 팔밥과 미역국이 오른것을 보고 《오늘이 어느 녀석의 생일이던가?》라고 물었으랴. 이 집에서 팔밥과 미역국은 누구의 생일날에 먹는 특식으로 되어 있었던것이다.

막내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기가 막혀서 입을 쭉 내밀었다.

《아버진 자기 생일도 모르시네.》

《내 생일?! 오늘이 내 생일이던가?》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모두의 생일도 잊어 버리지요? 며칠전에 내 생일날에도 돌아 오지 않으시구...》

만딸의 말에 명랑한 둘째딸이 한마디했다.

《아버지, 다음달 6일이 내 생일이야요. 꼭 오셔야 해요.》

《그래, 그래 비판을 접수하자.》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시아버지는 그들의 아버지이기전에 3만여명 현내 동포들을 책임진 본부위원장이였던것이다.

둘째딸의 생일날에 그는 멀리 떨어진 이름모를 섬-10호내의 조선인부락이 있는 섬에 찾아갔었다.

섬사람들은 인간세상에서 버림 받아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였다. 그들은 조국이 해방된것조차 아직 모르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집에 돌아 와 그들과 만나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영사기로 조국의 모습을 보여 주었더니 모두 흐느껴 울지 않겠소. 갈 때 영사기를 한대 세 내여 가지고 가기를 정말 잘했지. 그러더니 울면서 그냥 박수를 치더구만. 그러면서 <왜놈들도 사람이 사는지 살지 않는지 모르는 곳에 있는 우리를 조국은 버리지 않았구만요. 왜놈들이 망하는 꼴을 보기전에 눈을 감을수 없어 질긴 목숨 연명해 왔는데 이젠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저렇게 부강한 내 나라가 세워 졌으니 말입니다. 본부위원장님, 우리를 찾아 주어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또 우는게 아니겠소.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프오. 아직도 산골에 파묻혀 우리 조국에 대하여 모르는 동포들은 또한 얼마나 많겠소?

본부에 영사기라도 몇대 있었으면 좋으련만. 조선학교도 세워야 하겠는데...》

시아버지는 이야기를 끝낸후에도 그냥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집뒤쪽 극장에서 무슨 영화를 돌리는지 바이올린의 구슬픈 선율이 울려 왔다. (일본에서는 영화상영시 대사와 음악이 바깥확성기에 울려 나오게 되어 있다.)

창밖의 하늘에는 쪼각달이 쓸쓸하게 걸려 있어 울려 오는 구슬픈 선율을 화쪽으로 펼쳐 놓은듯 했다.

시아머니가 저녁상을 차려 들어 왔을 때 시아버지는 창문가에 서서 조각달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밥상 놓는 소리에 머리를 돌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저 조각달을 보며 저 음악을 들으려니 세방을 구하지 못해 한지에서 애들과 함께 밤을 새우던 생각이 나는구만. 당신은 그때 밤새껏 울었지.》

《아이구, 그 소린 왜 꺼내요?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게 악몽 같은데... 어서 저녁이나 드시우.》

그러나 시아버지는 저녁밥을 들넘은 않고 이방 저 방을 돌아 보더니 이제껏 무관심했던 부엌까지도 새삼스럽게 돌아 보는 것이었다.

전에 없던 남편의 거동에 의아해 진 시어머니는 참다 못해 물었다.

《식사는 안 드시고 뭘 찾으시오?》

시아버지는 아무 대꾸도 없이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는 자는 자식들의 얼굴도 한동안이나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문득 생각난 듯 물었다.

《둘째녀석이 왜 보이지 않소?》

둘째녀석이란 바로 나의 남편이 된 사람이다.

한동안 말을 갑자르던 시어머니가 떠듬떠듬 대답하였다.

《시험공부하겠노라고 동무네 집에 갔어요.》

이윽고 아래방에 내려 온 시아버지는 밥상앞에 앉았으나 수저는 들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당신 거기 좀 앉소. 내 당신과 좀 의논할 일이 있소.》

시아머니는 아까부터 평소와 다른 남편의 거동을 심상치 않게 여기던 차라 긴장하여 밥상 맞은편에 앉았다.

《내 오늘밤 당신과 긴요히 토론할 일이 있소.》

말을 꺼내기가 거북한지 시아버지는 같은 말을 두번째 되풀이하고 나서도 또 담배 한대를 꺼내 물었다. 담배 한대를 다 피우도록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담배연기만이 천정으로 모락모락 올라 가 흩어졌다. 마치 시아버지의 말 못할 안타까움이런 듯...

무슨 말이 나오려나 하고 가슴 조이면서 앞치마자락을 만지작거리는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건너다보던 시아버지는 드디어 용단을 내린 듯 재털이에 담배를 비벼 켜었다.

《여보, 이 집을 팔아야겠소.》

《예?!》

시아머니는 처음은 말뜻을 알아 듣지 못했다. 도저히 자기 귀를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단 것이다.

시아버지가 《난 이 집을 팔자는 거요.》 하였을 때에야 펄쩍 뛰었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집을 팔다니...》

《총련본부에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오.》

《...》

시아머니는 억이 막혀 한동안이 지나서야 겨우 말문을 열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생긴 집이요? 평생 고생 끝에 처음으로 마련된 제 집이 아니요?》

시아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었다.

시아버지의 땀땀한 목소리가 뒤따라 울렸다.

《내 왜 그걸 모르겠소?!》

한뉘 시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대꾸질이라고고는 모르던 어질고 순한 시어머니였으나 이때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남편에게 항변하기 시작했다.

《내 당신한테 시집이라고 와가지고 여섯자식을 낳도록 제 집 지붕 밑에서 낳은 자식이 하나나 있어요? 떠돌이 생활에 남정네들이 득실득실한 함바집 부엌데기방에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모진 진통보다 집 없는 설움 때문에 현 모포를 깨물면서 울었던 걸 알기나 해요?》

시아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또 담배 한대를 꺼내 물었다.

《당신은 너무 총련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 집사람도 자식들도 모르고... 당신은 생활이 하도 쪼들려서 둘째가 소년로동 떠난 것을 알기나 해요?》

《둘째가?》

시아버지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얼마 후에야 눈을 뜬 그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여 책상서랍을 열었다. 그리고는 그 돈지갑을 꺼내여 시어머니 앞에 내놓았다.

《당신은 이 돈지갑을 처음 볼 거요. 이것은 나의 아버지가 넘겨 준 돈지갑이요.》

이렇게 허두를 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단명한 시할아버지에 대하여서와 간또대지진때 겪은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그날밤 생각했소. 나라 없는 백성에게선 돈도 휴지조각이로구나 하고 말이요. 생각해 보오. 수천년을 두고 유대인들이 세상 어데서나 쫓기고 얻어 맞고 천대 받고 죽고 한 것이 그들에게 돈이 없어서였겠소? 집이 없어서였겠소?...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었소...》

나도 이 집을 팔 생각을 하니 가슴 아팠소. 그러나 간또대지진때의 생각을 하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소.

내가 벌써 그 밤을 잊었구나 하고 말이요.

여보, 총련일이자 나라일이요. 나라가 없이 이 집은 해서 될하겠소? 이 집이 아무리 든든하고 지붕이 두텁다 해도 우릴 불행에서 지켜 줄 수 있

을상 싶소?》

시아버지의 이야기는 끝났다.

시아머니는 그냥 울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처음의 집을 팔겠다는 말에 절통하여 흘러던 그런 눈물이 아니라 일본방직공장에 팔려 와 자신이 겪은 고생과는 대비도 할수 없는 수많은 조선사람들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절통함에서 오는 눈물이었다.

이윽고 시어머니의 원래처럼 온순해 진 목소리가 방안에 울렸다.

《당신 생각대로 하이소.》

이리하여 거처론 이역땅 가난한 살림속에서도 비바람, 찬바람을 막아 주는 유일한 그들의 보금자리, 매일 김치 한가지로 식사하다가도 팔밥과 미역국을 온 식구가 달게 먹곤 하던 여러 식구들의 생일날 추억이 깃든 그들의 집은 다른 주인에게로 넘어 가게 되었다.

그때 아마 시아버지의 돈지갑은 처음이지 마지막으로 불룩해 져 보았을것이다.

시아버지는 집 판 돈을 돈지갑채로 총련본부 사무실에 가지고 갔다.

돌아 올 때에 돈지갑은 다시 텅텅 비어 있었다.

집을 판후 식구들은 비좁은 세방살이를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기름통을 만드는 공장에 나가 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집안에 《대변동》이 생긴줄도 모르고 소년로동나갔던 둘째(나의 남편)는 두달만에 집으로 향했다.

그사이 교포에 있는 메리야스공장에 고용되어 편직기를 다루었으나 고달프게 일한 샅에서 속식비를 제하니 손에 거의 남는것이 없었다.

빈손으로 집으로 향하자니 어머니에게 면목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어 온 그였다.

그러나 어서 오라 반겨 주는 어머니의 눈빛 같은 집창문이 보이자 그는 저도 모르게 달리기 시작하였다.

집에 이른 그는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내가 왔어요.》

여느 때에는 한마디 하기 바쁘게 《너 왔냐?》하고 반겨 달려 나오던 어머니였는데 이날은 대여섯번이나 불러서야 집안에서 인기척이 났다.

《다래요?(누구요?)》하는 말과 함께 문이 열렸다.

출입문에 실내복차림의 낮 선 녀인이 나타났다.

둘째는 당황해 났다. 얼른 문패를 보려는데 녀인이 모든것을 알아 차린듯 《원래 이 집주인은 이사 갔어요. 우리에게 이 집을 팔았거든요.》하고 말했다.

《예?! 집을 팔다니요?》

둘째는 어둠속에서 달라 진 문패만 한참이나 멍하니 올려다 보았다. 그 집앞을 떠나자니 걸음이 떨어 지지 않았다.

(왜 갑자기 집을 팔았을가? 집에 무슨 불상사라도 생겼을가?)

그는 속이 까매서 식구들을 찾아 캄캄한 시대를 헤매었다. 그 밤은 부슬부슬 비 내리는 밤이었다.

다음날 둘째는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말했다.

《아버지, 총련을 위해 왜 가족까지 희생시켜야 되나요?!》

시아버지는 둘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둘째야, 공부도 못 시키고 소년로동을 시켜서 안됐다. 그리고 집도 없게 되어서... 그러나 이것은 그 어떤 희생이 아니다. 돈은 없다가도 생기지만 조국은 한번 잃으면 모든것이 그만이다.

우리에게는 사회주의조국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집도 생기고 공부도 할수 있다!》

37년만에 처음으로 불룩해 졌던 돈지갑, 그러나 그것은 집에서 본부사무실까지 가는 동안만이였다.

그때로부터 그 돈지갑에는 다시 돈이 많이 들어가지 못했다. 거의 비어 있었다.

4

귀국의 배길이 열렸다.

세계가 떠들썩했던것처럼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다.

시아버지의 가정도 이 《민족의 대이동》에 뛰어들었다.

먼저 세 아들이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의 길에 올랐다.

《아무리 제 나라라 해도 돈 한푼없이 애들을 보내서 어찌한단 말이요?》

시아머니는 걱정이 산 같았으나 돈지갑에는 세 아들이 오까야마에서 니이가다로 갈 때까지 쓸 용돈 얼마밖에 넣어 주지 못하였다.

사실 그들이 니이가다에서 귀국선에 올랐을 때 둘째가 보관한 돈지갑은 텅텅 비어 있었다.

이럴줄 알고 있는 시어머니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얼마후 세 아들에게서 편지가 날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이해 설날을 우리는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부모형제들의 곁을 떠나 설을 맞게 된 총련 현본부위원장들의 자녀들이 녀려되시여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말아 그들의 집에서 설을 함께 지내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삼형제는 경공업을 맡아 보는 일군의 집에서 설명절을 지냈습니다. 잘 차린 설음식상을 앞에 놓고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에게 수저를 쥐여 주면서 음식을 권하던 그 집 식구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소망한 학교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은 날 시어머니는 어버이수령님초상화앞에 점도록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을 것이다!

(수령님, 고맙습니다. 이 에미도 기껏해야 자식들에게 명절날 별다른 음식이라야 팔밥과 미역국밖에 해주지 못하였는데…)

시아버지는 그 밤으로 다시 먼 곳에 있는 다른 현내 동포들을 찾아 집을 나섰다.…」

몇년후에 둘째는 김책공업대학 학생으로 되었고 뒤이어 셋째와 넷째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으로 되었다.

시아버지가 칠순에 이르렀을 때 총련조직에서는 이젠 자식들결으로 가서 편히 쉬라고 시부모를 조국에 귀국하도록 했다.

나는 바로 이 가정의 며느리가 되었고 돈지갑의 주인인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

그런데 아침마다 로부부의 아이들 같은 싱갱이 짙은 옆방에 있던 나에게까지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다.

《집에 가만히 앉아 노시지 왜 자꾸 파철 주으러 사방에 돌아 다니시우?》

나이 들면서 잔소리가 많아 진 시어머니의 지청구였다.

그러면 시아버지의 느슨한 말소리가 울린다.

《파철을 많이 주어 제철소에 보내야 나라에서 강철고지를 점령할게 아니노?》

《어휴- 당신 아니면 강철고지를 점령 못할가봐 그러시우?》

《집구석에 앉아서 락후한 소리만 하네. 강철고진 온 나라가 다 달라붙어 점령해야 하는기다. 당신도 같이 파철 주으러 갑세.》

한번은 무슨 회의인지 구역당회의실에서 있는 회의때 시아버지는 주석단에 앉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시아버지는 더 나이 들어 파철을 수집할수 없게 되었을 때는 아빠트열 아동공원에 나가 오랜 시간을 앉아 계시군 하였다.

조국의 푸른 하늘, 녹색 합각지붕이 예술적으로 조화를 이룬 평양대극장, 줄 지어 늘어 선 아빠트들, 경쾌하게 달리는 무궤도전차, 무성한 나무잎새와 꽃으로 단장한 아동공원, 온갖 유희놀이터, 좋아라고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것이 시아버지가 보고 또 보아도 싫은줄 몰랐던 조국의 모습이었으리라.

시아버지는 아흔한살이 되던 해에도 지팡이를

짚고 나서군 하였다.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워서 《당신 또 어디 나가 시려우?》하고 물으면 시아버지는 혼연히 대답하군 했다.

《아동공원에 나갈란다. 내 죽는 날까지 우리 조국을 실컷 바라보고 죽을란다.》

시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날에도 그렇게 말하고 아동공원에 나가 앉아 있었다.…」

시아버지는 이제는 이 세상사람이 아니다.

그때로부터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시아버지의 체취가 스며 있는 물건은 돈지갑밖에 남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텅텅 빈채로 있는 낡은 돈지갑, 자식들에게 물려 준 시아버지의 《유산》 이라고 할가.…」

X

지금 이 시각 《고난의 행군》을 이겨 내고 21세기 부흥강국건설에 펼쳐 나선 때에 그 돈지갑을 보느라니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여러가지 생각들이 새삼스레 머리속을 짹 채운다.

시할아버지는 그 시절 뜨내기인부로서는 큰 돈이라 할 돈이 들어 있는 돈지갑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으나 아들은 종시 대학은커녕 학교 문전에도 가보지 못했다.

시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빈 돈지갑을 물려 주었다. 그러나 자식들은 모두 어찌되었는가. 세 아들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오늘은 공훈설계가, 박사, 부교수, 공훈과학자의 영예를 지니고 부흥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나라의 역군으로 되었다.

《우리에게는 사회주의조국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집도 생기고 공부도 할수 있다.》

시아버지의 말이였다.

옳았다. 백천번 옳은 말이였다.

하여 나는 지금 돈지갑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서 들은 옛말을 생각해 본다.

《옛날에 한 착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돈지갑을 얻었다. …그것은 돈을 한알 꺼내 쓰면 또 한알이 생겨 나는 신기한 돈지갑이었던단다. 그래서 그 착한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던단다.…」

나도 그런 신기한 돈지갑을 하나 얻었으면 하던 어린 시절의 꿈…

허나 돌이켜 보면 40년전 귀국의 배길에 몸을 실었을 때 벌써 나의 그 꿈은 실현된것이 아니었던가!

만약 나의 할머니가 지금도 살아 계셨다면 나는 어린 시절처럼 소곤소곤 말하였을것이다.

《할머니, 나에게는 지금 옛말보다 더 신기한 돈지갑이 있어요. 아무리 써도 마를줄 모르고 소원한것은 모두 성취시켜 주는 그런…」

내 고향마을

김상조

고향길

지저귀는 산새소리, 청신한 바람소리
백두의 들쭉향기 질게 풍겨 오는 길
군관모 벗어 들고 고개마루에 올라 서니
풍경화처럼 한눈에 안겨 오누나
40년전 군복 입고 떠났던 내 고향마을

어린 시절 뛰놀던 동기와집
앞벌에 설레던 밀보리밭 간데 없고
행복의 창문 충충 웃는구나
감자종합수확기들 대지를 달리누나

말해 다오 고향아
오늘의 대흥단마을 꾸려 주시려
감자풍년별 안아 오시려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험한 백암령은 그 얼마나 넘으시였고
눈보라 이는 백두대지는 그 몇번이나 밟으셨던가

한덩이 췌기밥끼니도 번지시고
봄날의 눈비속에 흙덩이 비벼 보시며
감자농사혁명의 불씨 심어 주신 그 포전길

한낮의 불볕아래 손채양 올리시고
고향마을의 면모를 손수 그려 주신 그 동구길

전연초소에 선 이 아들 대신하여
최고사령관이 먼저 걸으신 길
그 로고의 자욱자욱우에 솟아 올라 빛 뿌리는
사회주의리상촌

인사를 드리노라
천지까벽한 내 고향마을이여
어제날 언땅에 배를 대이고 너를 지키고
산벼랑 뚫아 오르며 부대훈련 이끌던 이 몸
비록 제대명령은 받았어도
《최우등졸업생》의 공지는 넘치여라

돌아 오는 아들의 마음에 앞서
우리 장군님 먼저 걸으신 어버이사랑의 길
수십년 군복 입고 검은 머리는 희여 젖어도
청춘시절 되안겨 주는 어머니고향길이여
첫 군복 입었던 그날처럼
애젊은 병사로 살고 싶어라

시내가 둔덕에서

내 동요시절 흘러 간 맑은 시내가
푸른 언덕우에 올라 서니
어디선가 들려 오는 유정한 동음소리
나의 부대 발전기소리인듯

이 발걸음 이끌어 가 벗어 선 곳
빨간색명관의 글발 빛나네
위대한 장군님 다녀 가신 발전소라고

어느새 달려 나온 녀성운전공들
웃음 머금고 받아 외우네

나라사정 어렵던 그날
남편들이 짜준 감자알 끼니로 들며
등짐으로 시내 막고 발전기 앓했다는 이들
일터에 오신 어버이장군님 기념사진 찍어
주셨다네

아 이 가슴 설레네 달아 오르네
 나의 군부대 발전기운전공들 품 안아
 몸소 곁에 세워 사진까지 찍어 주시던 그 사랑
 2천리 떨어진 여기에도 다 있어 주시었네

그날의 장군님 환하신 미소 안고
 보란듯이 고향마을 꾸러 간 사람들

고향땅에 열을 주고 빛을 주는 너인들
 나에게 힘을 주네 젊음을 주네

아 어깨에 별 많은 고향사람 왔다고
 너인들 희한해 반겨 맞아 주는데
 오히려 나는 그들에게
 나의 군관모 씌워 주고 싶네!

옛 근위병들에게

건뚫 들린 가을하늘아래
 렬 지어 몰아 가네 감자종합수확기
 나의 부대 옛 근위병들

오늘도 여전히 기준선 달리는 분대장
 어느새 만능운전공 된 부대의 꼬마
 배개통 같은 실한 감자알들 적재함에 채우네

철갑차 드다루던 그 손들에
 감자썩물 퍼렇게 들이며
 한밤에도 서리 막아 모닥불 피우던 옛 근위병들

어서 잡아 보자 백두대지의 흙물 배인 손
 안아 보자 백두바람에 타 검붉어 진 얼굴
 들어 보자 흥단수에 굶어 진 목소리들

내 그때처럼 힘껏 구령도 치고 싶다
 우리 근위사단의 기계화행렬인듯
 렬 지어 달리는 감자종합수확기들

아 축하하노라
 경건히 그날처럼 손을 들어
 내 그대들에게 경례를 보내노라!

내 고향의 저녁풍경

저 멀리 백두령봉의 저녁노을
 하루일 마친 들에 비껴
 동구길 붉게 타는가
 행복의 창문들 곁에 물 들이네

가락 맞게 울리는 칼도마소리
 살뜰한 어느 주부 솜씨인가 했더니
 부엌문을 열고 나오는건
 허참, 앞치마를 두른 옛 근위해병이라

저 너석이 벌써부터...
 《혼씨검》을 내려고
 두손을 맞부비는데
 해산하려 산원에 간 딸이
 떡돌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장모인듯 로친 하나
 다행히도 앞질러 들어 서네

울바자를 사이 둔

결집의 《땅크병》
 목을 쑥 빼들고
 점도록 바라보네
 저 너석은 아직 아이가 없는게지...
 어느새인가 암전한 새각시 다가와
 《땅크병》을 물고 들어 가네

불 밝은 문화회관 창가마다에선
 너인들의 노래소리 그칠줄 몰라
 어제날 남편들이 부르던 군가
 오늘은 젊은 새색시들 따라 부르네

종구나
 저 보배덩이들로 하여
 더 아름다운 내 고향
 어느새 나의 군복도
 불 타는 저녁노을속에
 흠뻑 물들어 졌네!

노을

정영종

1

역장은 사무실에 없었다. 아침녘에 들이닥친 시당국일꾼들쯤으로 짐작되는 사람들과 함께 어디론가 급히 나갔다는 것이었다. 역업무 전반에 대한 긴급료해인듯 싶다고 했다.

쉽꼬브는 전통적인 로씨야건축형식의 궁륭식복도창문을 통하여 굽어 보이는, 간선만 해도 수십여갈래나 되는 야로슬라블리역전경에 망연한 시선을 던졌다. 다급한 기적소리와 함께 거의 끊임없이 들이닥치고 빠져 나가는 열차들이며 흠이 메도록 들끓어 대는 객들의 흐름… 광대한 씨비리를 횡단하는 모스크바의 동쪽관문역이어서 워낙 복잡하긴 했지만 이마적에는 환상적인 《동방의 부와 문명》에 대한 열 띤 유혹이 그 수를 굽은 불구어 놓은 인종이었다.

하지만 쉽꼬브는 그 혼잡속에서 어느 때에는 결코 있어 본적 없는 어떤 팽팽한 긴장과 숨 죽인 기대 비슷한 류다른 초조감-마치 절정에 이른 오늘의 복철더위를 씻어 줄 시원한 소나기가 오고 있음을 감촉하는 흥분 같은 것이 떠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그의 귀속에서는 줄곧 출근하는 자기를 붙잡고 애원하던 딸의 목 멘 부르짖음이 울리고 있었다.

《어찌됐어요. 아버지, 이 딸을 위해서… 아니, 아버지의 귀여운 손녀를 위해서 오늘은 그 노릇을 끝장내 주세요!…》

딸 올가는 쉽꼬브가 9년동안이나 지긋게 늘어 붙어 있는 역사관리원자리를 버릴것을 호소한 것이다. 쏘베트시절에 시당의 중요 직책에 있었던 쉽꼬브에게 있어 지금의 그 청소부나 다름 없는 직업은 기실 모독적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얼마나 애달픈 회한과 미련이 눈물로 뒤영켜 있는 것인가.

(그래, 허황한 꿈을 꾸어 온셈이지. 허황한 꿈을… 보리쓰가 웅게 말했어!)

일은 손녀 포네치카의 첫돌 생일을 이틀 앞둔 간밤에 터졌었다. 그때 쉽꼬브는 올가와 더불어 생일선물준비며 야유회일정 등을 가지고 즐거운 싱개이를 벌리고 있었는데 마침 퇴근해 들어 온 사위 보리쓰가 불쑥 끼여 들었다.

《뭐 다 좋군요. 하지만 난… 그만 두겠어요.》

그에게서는 물론 술내가 풍겼다. 의혹에 찬 눈길들이 자기에게 쏠리자 보리쓰는 비양조로 말했다.

《우리 또나가 어째서… 어째서 영영 가버린 레닌의 후광에 싸여 축복 받아야 하나 말이에요.

애처롭게요!》

화락하던 방안의 공기는 대뜸 얼어 붙었다. 남편이 민감하게 반응한것은 올가였다. 그는 새로 산 딸의 달린옷포장을 뜯다 말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따졌다.

《보리쓰, 명백히 말해요. <레닌의 후광>이란 뭐고 애처롭다는건 또 뭐예요?》

《다… 다 알면서 뭘 그러오?》

《아버지앞에서… 용서 못할줄 알아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던 보리쓰의 두눈이 일순 심술궂게 번뜩거렸다.

《모욕을 느꼈다?! 그럼 난? … 그런 모욕쯤 난 매일 받소. 이제 진절머리가 난단 말ियो. 알겠소?!》

마감의 《알겠소?!》는 명백히 쉽꼬브에게 던진 항변이었다. 쉽꼬브는 비칠거리며 침실로 사라지는 보리쓰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왜선지 숨이 킁 막혔다.

충명과 재기로 어느 큰 무역회사에 똥고 들어가 실력을 보이는 보리쓰였다. 아마 그래서 관록 있다는 국립아카데미야내무성협주단 배우로서 뛰어난 미모까지 겸비한 올가가 그에게 반했었는데도 모른다.

올가와 함께 처음으로 쉽꼬브앞에 나타난 날 보리쓰는 정중히 말했었다.

《이완 빼프로위치, 전 당신의 소행에 경의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로슬라블리역홈에 세워져 있는 레닌립상을 보존해 보려고 자진하여 역사관리원자리를 차지한 쉽꼬브에 대해 충심으로 공감한다는 소신표명이었다. 하지만 보리쓰는 동료들이 눈부신 성공을 거둬주는 자기를 시기하여 《력사각각이 둔한 현대관 동 키호테의 사위》니 뭐니 하는 야비한 모욕으로 검질기게 뒤편을 잡아 채자 종래의 태도를 점점 달리 하기 시작했다. 그 《괴이한 배경》때문에 자기의 출세가 지장 받고 있다고 자주 불만을 터놓은것이 그 실례였다.

그러다 결국 《영영 가버린 레닌》의 후광으로 포네치카마저 《동 키호테》로 만들지 말라고 야유하는데까지 이른 것이다.

《사람이 저리도 거칠게 변하다니요!》분해서 입술을 파르르 떨며 내뿜은 올가가 잠시후 호-한 숨을 내쉬며 쉽꼬브의 어깨를 그러안았다. 《보셨죠 아버지, 몹시 취했어요. 무슨 언짢은 일이 있었나 봐요. 이제 술이 깨면 후회하고… 용서도 빌거예요. 틀림 없어요!》

그러나 올가의 장담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보리쓰는 아침에 일어 나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훌쩍 집을 나가버렸다.

올가는 사색이 되었다. 하루를 남긴 포네치카의 첫돌 생일연이 죄다 망쳐 질 위기가 현실적으로 닥친 것이었다.

그리하여 언제나 아버지를 이해하고 존중해 오던 올가의 돌연한 애원이 시작되었다...

역장은 여전히 돌아 올줄 몰랐다. 끝내 지쳐 버린 쉽코브는 피로게 한숨을 토하고 나서 뚜벅 뚜벅 역장실로 들어 갔다. 그다음 마음의 동요가 올가봐 두려워 하며 급급히 사직서를 휘갈겨 썼다. 손이 몹시 떨렸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부정해 버리는 글, 귀여운 토냐를 위함이 아니었다면!...

2

방금 도착한 열차가 또 한무리의 려객들을 토해놓았다. 그들은 흠 첫 머리에 말뚝처럼 박혀서 있는 쉽코브를 조심스레 에돌아 지나갔다. 이전 같으면 거치장스러워서도 패씼해서도 무례하게 어깨를 밀쳐 대던가 트렁크모서리로 장판지를 툭툭 건드렸을 것이다.

쉽코브는 이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 기인되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애초에 주위세계에 대한 감각을 아주 잃고 있었다. 쓰라린 작별의 시각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눈앞의 크지도 높지도 않은 대돌우에 굳어진 채 씨비리대지를 꿰질러 뻗어 간 먼 철길쪽을 명상에 잠겨 바라보고 있는 레닌... 여기 야로슬라블리역의 레닌립상설계가는 《끼예브》, 《민스크》, 《자판》 등으로 불리우는 모스크바의 여러 주요 간선역들과는 달리 레닌을 유독 동방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거기에는 자못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로씨야의 령토를 태평양기슭까지 넓히며 쉽 없는 격전을 치른 예르마크장군의 원정길우에 지금은 10월의 붉은기가 피로 물든채 나뭇긴다는것을 레닌의 가늘게 꼬프려 뜬 시선속에 함축하려 한 것이었다. 그것이야말로 한 유명한 작가의 표현처럼 《력사의 뜻에 의하여 말을 시작한 레닌》이 바란 궁극적목표, 세계혁명의 완성에 대한 지향과 확신일 것이다.

하지만 청동으로 주조된 레닌은 지금 어깨에 걸친 외투에까지 검푸른 녹을 한벌 들쭉내 려객들의 방심한 눈길조차 모으지 못하고 있었다. 쉽코브에게는 이 순간 레닌의 시선이 몹시 추연하게 느껴졌다.

처음 역사관리원으로 왔을 때에만 해도 쉽코브는 매일 많은 시간을 바쳐 립상을 닦곤 했었다. 로씨야 곳곳에서 레닌동상들이 피해를 입고 있던 날이어서 노상 야간당직을 맡아 밤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일이 불쾌한 마찰을 불러 왔다. 하루는 역장이 쉽코브를 불러 들여 조심스러우나 저조기 강경한 어조로 주의를 주었다.

《전 당신의 행동에 리해를 표시하는 립장이지만... 딱한 경우에 몰렸습니다. 우리 역을 담당한 철도성 지도원이 누구의 반영을 들었는지 과거의 환영을 불러 오느라 역사관리를 태공한다고 결고 들었습니다. 제 직책상 묵살하기 어려운 것이니 자기 일에 더 전념해야겠습니다.》

이런 시각이 언제건 오리라고 각오는 한터였으나 쉽코브는 서글픔에 눈물이 났다. 정치에 개입하기를 극력 삼가하는 전형적인 기술일군출신의 성실한 역장, 그가 지금은 어쩔수없이 남의 입을 빈 충고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쉽코브의 목소리는 절로 떨려 나왔다.

《그러니... 당신도... <과거의 환영>으로 보시오?》

역장은 눈을 내리깔았다.

《시대는 달라 졌지요. 나도... 사람들이 그 립상을 한개의 전주나 무슨 기물쯤으로 대하는걸 보면서 아픔을 느끼곤 합니다만 역시 현실은...》

《여보시오. 그렇더라도 력사는 경건하게 대해야 하지 않겠소!》

얼결에 큰소리를 치긴 했지만 문을 나서자마자 쉽코브는 곧 후회하였다. 역장의 권고를 외면하여 그를 난처하게 만드는것은 둘째고 그것이 자신의 해임까지로 이어 진다면 그나마 보존되어 오던 레닌립상은 어찌 될 것인가.

암담한 생각이 가슴을 허뻛다. 2차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피덩이나 다름 없는 세살짜이 꼬아로 세상에 뿌리쳐 졌던 자기를 품에 안아 인간다운 삶을 주고 시당일군으로까지 내세워 준것은 누구 였던가. 레닌의 이름으로 상징되는 세계와 자기 운명을 결코 분리할수 없는 쉽코브였다.

그러나 그 사건은 쉽코브에게 첫 동요를 가져왔다. 나의 애달픈 미련과는 달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레닌은 영영 빛을 잃은게 아닐가? 결국 역장의 말처럼 《무슨 기물》로밖엔 취급되지 않는 립상관리란 무의미해 진것인지도 몰라?!...

《뽕!-》

기적소리가 쉽코브의 생각을 현실로 끌어 내렸다. 또 려객렬차가 들이닥친듯 역구내방송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쉽코브는 마지막으로 레닌립상에 눈길을 보냈다. 그러자 립상의 그 추연한 눈빛이 어떤 기다림 비슷한 타는듯 한 갈망으로 안겨 와 흠칫 몸을 웅송그렸다.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를?...

(용서하십시오. 난... 함께 기다려 내지 못하고 물러 갑니다.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팔소매를 잡아 당기는 바람에 쉽코브는 고개를 돌렸다. 코언저리에 주근깨가 다문다 문한 안내원처녀가 눈이 울롱해서 고성기쪽을 손

것해 보이고 있었다.

《들으셨어요? 당신을 찾고 있구만요. 역장의 목소리예요!》

아닐세라 고성기에서는 역장의 초조한 목소리가 《이완 빼프로위치, 어데 있습니까? 급히 와주십시오. 급히 와주십시오!》 하고 거듭 독촉해 대고 있었다.

(사직서를 본 모양이군.)

섬꼬브는 무거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걸음만에 무춤 굳어 졌다.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 들었다. 첫 순간의 느낌은 의혹이었다. 그 의혹은 까닭 없는 불안쪽으로 뿔뿔이를 하다가 이어 설명하기 어려운 예감으로 번져 졌다.

일개 청소부의 사직서에 놀랄 역장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구내방송으로 지금도 울려 나오고 있는 역장의 저 다급한 호출은?...

비로소 주위를 휘둘러 본 섬꼬브는 역구내의 공기속에서 눈에는 띄지 않는 그러나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어떤 활기를 감촉하고 다시 한번 흠뻑했다.

3

《이완 빼프로위치, 설명해 주십시오. 레닌립상을 원상대로 수복하는데 무엇무엇이 필요됩니까?》

역장의 단도직입적인 물음이였다. 섬꼬브는 저도모르게 방안을 다시 돌아 보았다. 운전사령들과 려객, 화물, 검차 그리고 안내반이며 후방부서에 이르기까지 역업무 전반의 책임자들도모두가 모인 긴급참모회의장이였다. 아침에 역장이 어디론가 불러 나갔던 일과 관계될것이다. 그러한 장소에 자기가 호출된것이 좀 의외여서 그는 온몸이 굳어져 있었다. 그런데 역장의 입에서 거침없이 흘러나온 《레닌립상수복》은 물론 어느 때는 경악했을 참가자들이 당연한 의제인듯 심중하게 귀 기울이는것이 너무도 기상천외하여 섬꼬브는 머리가 뒤죽박죽되어 버렸다.

《전... 제게 뭘 요구하는지 아무래도...》

《거기에 뭘 모르실게 있습니까?》 역장이 저으기 짜증스레 말꼬리를 자르고 들었다. 《원상수복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오늘중으로 당장! 그렇게 타산하고 요구하십시오.》

여전히 눈을 꺼먹거리리는 섬꼬브가 딱해 보였던지 좌중의 누군가가 슬쩍 끼었다.

《당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령도자께서 로씨야방문을 위해 모스크바로 오고 계신다는걸 아실텐데요. 그분을 모시는 영광이 바로 우리 역에 차례졌단 말입니다.》

섬꼬브는 한순간 심장이 후두둑 뛰었다. 이어 피의 분류가 관자노리를 툭툭 치며 머리속으로 뿔어 올랐다.

(그랬었구나. 혁명이 다시 일어 나지 않고서는 있을 법도 않던 일이 그래서!...)

한주일째 신문이며 텔레비존들이 지면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련속보도하고 있는 **김정일**령도자의 씨비리횡단소식, 철도일군들속에서 쉬쉬 돌아가는, 그분이 타신 특별렬차를 완전원성의 두개렬차가 앞뒤에서 호위하여 온다는 전례 없는 조치에 대한 귀속말, 거기에 더하여 지금 이 역을 휘감고 도는 은근하면서도 다급한 흥분의 파동... 그렇다면 역장의 이 놀라운 포치에는? 아마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그리도 투철하신 그분을 한점의 노엽힘도 없이 모시려는 시당국의 꼼꼼한 념려는 아니겠는지.

《이젠 리해됩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기겁고 격앙된 부르짖음이 섬꼬브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동기는 어떻게든 레닌을 공식적으로 내세울수 있게 된것이다!

흥분에 몸을 말긴채 섬꼬브는 재빨리 필요한 기재며 소요인원, 공구들을 불러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불현듯 말꼬리를 흐렸다. 자기가 제출한 사직서가 뇌리를 스친것이였다. 그 사직서를 틀림없이 보았을 역장이 굳이 자기를 부른데는 마지막으로 조언을 들어 두자는게 아니겠는가.

《그게 답니까? 아까 간부들과 함께 돌아 보니 대돌도 몹시 어지러워 졌던데요.》

《예- 그것도 물로만 씻어 가지곤 안됩니다. 모래총이 필요합니다. 그 이상은... 다행히 손상된 곳은 없으니까요.》 섬꼬브는 허우룩한 가슴을 치그시 누르고 나서 힘없이 덧붙였다. 《아무쪼록...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책상위에 수그러져 있던 역장의 고개가 피곳쳐들렸다.

《무슨 말씀인지... 왜 <부탁>입니까, 이완 빼프로위치?》

《저야 이미... 사직서를 낸터이고...》

《가만!》

역장은 책상을 원주필로 툭툭 두드렸다. 그의 눈썹이 이마에 주름을 잡으며 한껏 치켜 올라 갔다.

《난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이 일에서 손을 뗄 작정입니까? 대통령행정부에서 직접 내려 와 거듭 강조한 특별과업인데... 그래서 당신을 믿고 맡기는건데, 예?!》

이번에는 섬꼬브가 두눈을 흠뻑했다. 시당국의 포치쯤으로 안 일이 대통령행정부의 특명이였다!

그 다음부터 섬꼬브의 머리는 또다시 온통 뒤죽박죽되어 버렸다. 그는 역장이 각 부서들에 기재며 인원포치를 할 때에도 마감으로 자기에게 무언가 재삼 당부할 때에도 연신 주먹을 쥐여 보았다 손가락마디를 꺾어 보았다 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드디어 역장방을 빠져 나온 섬꼬브는 역사의 충계를 몇번씩이나 헛짚으며 휘청휘청 아래로 내

려갔다.

(당장 사람들이 지시 받으러 올텐데 난 왜 이러 구물거린담? 현대 얼마나 놀라운가. 다름아닌 대통령행정부에서!... 그리고 보면 조선의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노엽힐가봐 취하는 의례적인 조치는 아니였어. 여기에는 보다 더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

쉽꼬브의 걸음은 차츰 떠지다가 역사현관문앞에서 아주 멎어 버렸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어디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가? ... 불쑥 딸 울가의 열정적인 속삭임이 어떤 계시처럼 귀전에 메아리쳤다.

《...난 그분의 얼굴을 똑똑히 못 봤어요. 글썄 제가 올린 꽃다발을 받으시고 저의 손까지 다정히 잡아 주셨는데... 믿어 지지 않겠지만 정말 똑똑히 볼수 없었어요...》

그것은 지난 봄 평양에서 열린 《4월의 봄 친선 예술축전》에 국립아카데미야 내무성협주단 배우로 참가했다가 존경하는 **김정일**령도자를 모시고 공연한 영광을 두고 두고 외우던 울가의 이야기 한토막이었다.

(그 애는 그때 분명 무슨 빛에 대한 말을 했었지, 신비한 빛에 대한!...)

비로소 쉽꼬브는 자기가 해야 할 제일 당급한 일이 울가에게 전화를 거는것임을 상기해 냈다. 그는 마주 오는 웬 중년신사와 부딪쳐 등뒤로 험한 욕설을 들으며 눈에 띄는 첫 사무실문을 벌컥 열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아 듣자 울가는 대뜸 울먹거렸다.

《어쩔 좋아요? 보리쓰는 제게... 글썄 제게 <최후통첩>을 해왔어요!》

《흠, 그래... 현대 올라야, 랑해해 주렴, 아무래도 난 오늘저녁 집에 못 들어 갈것 같구나. 중요한 일이, 아주 운명적인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

《아버지!》 즉시 수화기진동판을 날카롭게 울리며 울가의 비명이 튀어 나왔다. 《그럼 포네티치카는요? 그 앨 벌써 잊으셨단 말이에요. 예?!》

《...》

《여보세요! ... 아, 여보세요!》

어느 사이 이마를 타고 주르르 흐르는 끈적한 땀을 훔치며 쉽꼬브는 이를 악물었다. 그다음 결연히 말했다.

《잘 들어라. 네가 조선에서 지냈던 그런 영광이 우리 역에도 차례졌다. 내가 그분을 직접 뵈지는 못하겠지만... 끝내 내 일이 빛을 보게 됐단 말이다. 그걸 넌 빼앗으려느냐?》

징- 전류 흐르는 소리, 울가가 수화기를 귀에 꼭 눌러 대고 있다는것은 가쁜 숨소리로 알렸으나 이윽도록 대꾸는 없었다.

쉽꼬브는 딸의 반응이 못 견디게 궁금했으나

더이상 기다릴수 없었다. 온역의 종업원들이 다 펼쳐 난듯 창밖에서는 소란스러운 발구름소리며 웨침소리, 무언지 욕중한것이 굴러 가는 바퀴소리가 점점 커가고 있었기때문이었다.

몇초후 쉽꼬브는 이미 역함을 나는듯이 달리고 있었다. 그와 함께 가슴속에서는 억제할수 없는 한가지 소원도 나는듯이 자라올랐다.

(정말 그분을 직접 뵈을수 있었으면! 그럴수 있었으면!...)

4

8월의 염열속에서 사람들이 땀을 함뱍 흘리며 역안팎을 온통 쓸고 닦아 내는 일을 마무리한후에도 레닌립상에서는 2시간나마 긴장한 작업이 더 진행되었다.

립상은 몰라 보게 변했다. 하얗게 때벗이한 대돌우에서 이 몇해째 망각의 너겅인듯 검푸른 녹을 들쓰고 있던 레닌은 무슨 《기물》로부터 대뜸 산인간다운 생동성과 조형미를 두드러지게 펼쳐 보였다.

그럼에도 쉽꼬브는 손을 털수 없었다. 딱히 꼬집을수 없는 개운치 못한 안타까움이 마음 한귀를 지긋게 긁어 대서였다. 그것은 마치 재간껏 완성한 그림이 온갖 색감을 다 썼음에도 기대하는 조화가 이루어 지지 못한것처럼 불안스럽게 느껴 지는 그런 기분과 류사하였다.

하야 쉽꼬브는 조력자들이 물러 간 다음에도 공연히 이곳저곳에 군손질을 하며 계속 서성거렸다.

(혹시 눈빛때문은 아닐가?) 생각이 거기에도 미쳤으나 쉽꼬브는 인차 고개를 흔들었다. (관습이야. 그 눈빛이 추연하하는데 그만 익숙해져 달리 보여 지지 않는!)

어떤 기척을 느끼고 돌아 서니 등뒤에 역장이와 있었다. 그 역시 립상을 뜯어 보던참인듯 했으나 눈이 마주치자 슬쩍 고개를 돌렸다.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이완 빼프로위치.》역장이 담배를 권하며 애 써 심상한 투로 말을 붙였다. 《제게 노여운 점이 많았지요? 그래서... 그 사직서도 제출하셨지요?!》

《?!...》

《제 그때 보았됐습니다... 모른체 했지요.》

《흠, 그랬군요.》

《당신은 언젠가 제게 력사는 경건하게 대해야 한다고 충고하셨습니다.》

역장은 불쑥 사위를 둘러 보더니 쉽꼬브쪽으로 바투 몸을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갈려 나왔다.

《당신께니 알려 드립니다만... 조선의 령도자께

서 공식행사일정에 레닌묘참관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우리 측에선 명예위병대까지 동원하여 정중히 보좌하기로 했구요.»

《그게 정말이시요?》

쉽꼬브의 격한 반문에 역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통령행정부일군이 귀뜸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먼 시가변두리쪽에서 우뢰소리가 구르릉- 울려왔다. 그러나 쉽꼬브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가슴벽을 세차게 두드리는 거대한 메아리가 고막을 멍하게 만든 것이었다.

쏘련해체후 레닌묘를 공산주의의 성당처럼 신성시해 오던 세계의 적지 않은 수반급들조차 주눅이 들어 감히 눈길 한번 보내지 못하던, 하여 10년가까이 점차 인적이 멀어 졌던 레닌묘… 그런데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방문으로 그곳에서는 국가적행사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쉽꼬브의 머리속에 문득 지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방문했던 뽀찐대통령의 연회연설문구절이 떠올랐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서거 이후 웅근 3년이나 공직에 오르지 않으시고 선대수령에 대한 충의를 지키신 존경하는 **김정일**령도자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몹시 감동되었다고 한 그 격찬… 그것은 로씨야에서 현 당국에 의하여 전쟁로병들을 우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기 시작하고 력사적실체로서의 쏘련이 로씨야민족앞에 이룩한 공적에 대한 긍정적재평가, 그 전통에 대한 존중의 목소리들이 울려 나오는 사실과 그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이 아닐수 없다.

그렇다. 어제를 떠난 오늘이란 있을수 없다. 하다면 국토완정을 이룩한 예르마크의 공적을 두고

우리들이 자신들을 즐겨 《예르마크의 후손》이라 부르듯 수많은 민족을 하나의 의지와 지향으로 결속한 레닌이라고 왜 공산주의이데올로기적인 편견을 초월하여 공정하게 내세우지 못하겠는가.

(바로 이런 시각을 사회주의조선의 수령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 우리에게 띄워 주신게 아닐가? …)

비꽃이 후둑후둑 떨어 지기 시작했다. 날은 이미 어두워 졌다.

역장은 오래전에 불이 꺼진 담배를 발치에 던지려다 말고 종이에 조심스레 싸서 주머니에 넣더니 쉽꼬브의 팔을 쥔다.

《가십시오. 가서 함께 식사를 합시다.》

쉽꼬브는 어떤 타는듯 한 충동에 떠밀려 역장의 손을 부둥켜 잡았다.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여기에 남게 해주시요. 조선의 령도자께서 도착하실 때까지… 아니, 그분을 직접 뵈옵수 있도록… 그래 주시요!》

역장은 잠자코 쉽꼬브의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았다. 그것이 긍정적인 대답을 줄수 없어 난처해하는 거동으로 여겨 저 쉽꼬브는 말라 드는 입술을 감쌀며 성급히 말을 더듬었다.

《물론… 나도 아오. 국빈중의 국빈을 모시는 행사이니 나 같은건… 호위대책도 엄격할것이고… 하지만… 하지만…》

늘 진중하고 딱딱하던 역장의 얼굴에 마침내 호인다운 선량한 웃음발이 넓게 번져 졌다.

《그러실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든든히 해두자는거지요.》

《그럼?!…》

《허허, 당신이야 우리 역의 영접준비에서 중책을 책임지고 수행한분이 아닙니까. 권리가 있지요. 벌써 대통령행정부일군들과 의논하고 동의까지 받아 났습니다.》

팔 올가가 난데없이 나타난것은 그 순간이었다. 한팔에 토나를 안고 다른 손엔 네모방정한 구력을 든 올가는 역지하도층계를 숨 가쁘게 뛰어오르며 먼발치에서부터 소리쳐 댔다.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예?!-》

꿈에서나 이루어 질듯 싶던 소원이 뜻밖에 성취된것이 현실 같지 않아 그때까지도 어리둥절해있던 쉽꼬브는 그 물음을 섣뜻 리해 못하였다.

《너… 웬일이냐? 혹시 그 사적문제때문에…》

《아유, 아버지도… 아까 전화까지 거시고선!》

비로소 쉽꼬브는 모든것을 깨달았다. 조선의 령도자에게 꽃다발을 드렸던 올가, 그가 그 순간의 행복하고 순결한 경모심을 잊지 않은것이였다!… 여태 억눌려 있던 기쁨이 불시에 왈칵 터져 올라 쉽꼬브는 손너를 닮은 안아 하늘높이 치켜 올렸다.

《또네치까야, 기억해 뒤라. 이 할아버지도 네 엄마처럼 큰 영광을 지닐수 있게 되였다. 너의 생일날에 진정 이 세상의 가장 훌륭한 축복을 네게 줄수 있게 되였다 말이다!》

《아버지!》

올가의 불 같은 속삭임, 어글어글한 아름다운 눈을 가진 그가 가슴에 두손을 꼭 포갠채 취한듯 말을 이었다.

《전 당장 보리쓰에게 가겠어요. 이 소식을 그에게 알려 주겠어요. 그러면 보리쓰 꼭… 꼭 달려올거예요!》

그다음 쉽꼬브를 힘껏 포옹하며 뜨거운 입김을 목덜미에 끼얹어 댔다.

《제가 뭘 가져 왔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새옷이에요. 들으세요? 룩감이 귀엽해 졌답니다. 아버지에게 빛이 비쳐 올라가구요!》

5

드디어 그 시각은 왔다.

밤새 줄금줄금 내리며 역구내를 깨끗이 씻어낸 비는 순간에 멎고 먼 동녘하늘이 새벽과 함께 유난히 상쾌하게 밝아 오기 시작했다.

이어 노을이 불 타올랐다. 그 노을을 함뻍 싣고 조선의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모신 특별렬차가 소리없이 그러나 거대한 중량감과 진폭으로 심장을 뒤흔들며 달려 왔다.

옷매무시를 바로 잡느라고 몸을 돌리던 심쵸브는 갑자기 숨을 딱 멈추었다. 특별렬차가 몰아오는 노을빛에 불그레 물들기 시작한 레닌의 눈에서 어떤 류다른 빛이 번뜩이는듯이 느껴 진때문이었다.

(아, 그 추연한 빛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어떤 말 못할 갈망이 뒤엉켜 돌던 그 빛은?... 저것은 환희다! 환희다!...)

부지불식간 올라의 열정적인 속삭임이 고막을 쟁쟁 두드렸다.

《...왜서냐구요? **김정일**령도자님의 미소에 눈을 똑바로 뜰수 없었기때문이였죠. 그 미소는 너무도 따뜻하고 눈 부시여서 녀까지도 온통 이끌려들어갈것 같은 황홀한 광채였어요. 어쩌면 동방종교에서 말하는 성인의 심혼 같은것이라고 할수 있을지요!...》

바로 그 신비로운 빛발이 레닌을 휘감은것이였다. 심쵸브에게는 레닌이 환희와 걱정애 넘쳐 금시 경건한 부르짖음을 터칠것만 같았다. 《새 력사의 뜻에 의하여》 또다시 시작하게 될 말을...

《보라, 우리 인류가 숙원해 온 그 사회적리상은 동방조선에서 비쳐 오는 저 신비한 노을에 싸여 펼쳐 지고 있다. 저 노을을 따라!...》

파도와 나의 병사시절

서성현

서슴지 앓구나, 파도여

천년 이끼 오른 충암절벽에 달려 들어선
부서지고 쪼개지고 홀날려 휘뿌려 저도
오히려 하-얀 물갈기로 싱싱히 웃으며
황-처절씩...

그리고 다시금 치솟아 올라
오색무지개 안고 천만구슬되어 반짝이며...

파도여

너의 창창한 모습 있어
이 바다의 무한대한 힘과
지칠줄 모르는 열정 영보이거니
때로는 어린애마냥 하얀 안개포탄 뒤집어 쓰고
보채는듯 뒤흔치는듯 웅실거려 어리광 부리다가도
다시 일어 나야 할 일이라면
주저치도, 서슴도 없이
다시금 흰 갈기 세우고 일떠서는
너 파도야말로 이 바다를 빛내이는
장한 아들의 모습이구나

부서지고 쪼개지고 휘뿌려 흩어 저도

오히려 천만구슬되어 반짝여 웃으며
바다에 사는 너 파도여,
어쩌면 너는 나를 안아 키워 준
우리 장군님 위해 바쳐 갈
병사시절 내 모습 같으나

우리 장군님 펼치신
선군의 총대바다속에
이 삶의 한순간도 너처럼 싱싱하게
너처럼 서슴없이 너처럼 즐기치게
내 조국 지키고 우리 장군님 보위할
아, 나도 너와 같은
파도, 파도가 되리니

파도여

내 너처럼 서슴지 않으리라
총대를 불안은 나의 목숨이
부서지고 흩어 지고
홀날려 휘뿌려 진대도
장군님품에서 영생하는
빛나는 삶이 되게
오, 참된 삶이 되게!

빛발

석유균

설을 앞둔 수도의 거리는 아름다운 장식속에
여느 때없이 흥성인다.

청신한 풍치를 돋구는 모란봉의 소나무들은 찬
바람이 불어에도 푸르려 설레인다. 모진 추위속
에서도 푸른 기개를 떨치려는듯 흰 눈을 떠이고
서...

약속대로 ○○과학원 서박사를 만난 나는 칠성
문을 에돌아 산책길에 올랐다. 아니 산책길이라
기보다는 이것이 나의 이해 마지막취재였다. 과
학원에서 어제부터 진행된 과학평의회가 오늘에
야 끝났으니 나는 저절로 조급해 졌다.

하지만 오래간만에 만나 인사를 나눈 서박사는
나의 초조한 마음에는 무관한듯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청신한 대기에 심취되어 아름다운 자연
만을 감상하듯 사위를 살펴 볼뿐이다.

장대한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날렵해 진 그의
자세를 보아서는 기분이 썩 좋아 진듯 싶지만 그
래도 과학평의회에서 어떤 답이 내려 졌는지 가
늠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수년간 고심어린 탐구
의 결과를 서둘러 묻는것이 실례로 될것 같아 말
없이 따라 서는수밖에 없었다.

걸음이 점점 무거워 지는것을 미루어 보아 그
의 생각도 깊이 지는것 같았다.

봉우리에 올라 수도의 활기 띤 모습을 둘러 보
던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해마다 맞게 되는 설이지만 이해를 보내는 나
의 생각은 참으로 깊어 집니다. 작가 선생이야 더
하겠지만 노상 실험관속의 미생물을 감별하는 나
로서도 올해에는 류다른 정서가 깔려 있는것 같
습니다.》

《허허, 그야 새 천년기의 첫해를 맞으며 누구
나 큰 포부를 안고 살았으니 추억도 새로와 지리
라고 봅니다.》

그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
다.

실은 올해 정초에 새 천년기를 맞는 과학자들
의 드높은 탐구열의를 담은 실화문학을 쓰려 ○
○연구소에 찾아 갔었다. 내가 놀란것은 실장이
서른살을 갓 넘긴 학사라는것보다도 실에서 제기
된 여러가지 가치 있는 연구과제가 들을수록 흥
미를 돋구었기때문이다. 실장은 나에게 나이 지
숙한 서박사를 소개해 주었다. 실에서 제일 중시

하는 연구과제라는것이였다. 정작 취재에 달라붙
고 보니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긴
박한 과제였으나 몇년째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
다. 아직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미지수로 남
아 있었다. 그중에도 B문제는 해결이 묘연하여
내 소견에도 빠르면 2~3년, 아니 4~5년은 어려
운 탐구의 길을 걸어야 할것 같았다. 그때 나는
어지간히 손맥이 풀렸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실장
이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면서 서박사를 만나보라
고 전화를 걸어 왔던것이다. 어떤 기적이 그새
일어 났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나를 이끌었다.

서박사와 함께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나는 더
는 주체하지 못하고 은근히 말폭지를 뱉다.

《과학평의회에서 박사선생의 연구과제가 론의
되었겠는데요...》

《예, 심중히 토론되었습니다. 인차 실험생산에
들어 가기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럼! 성공이란 말이지요!》

한해동안에 것처럼 비약한데 나는 놀랐다.

《하지만 우리가 그 덕을 보게 될 때 그 말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박사선생이 사양하신다면 성공이란 말은 뒤로
미루더라도 탐구의 미지세계를 밝히면서 종착점
으로 도약한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뜨겁게 손을 잡아 흔들며 축하해 주는 나를 이
윽히 지켜 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작가선생도 아시다싶이 B문제를 밝힌다는것
은 나로서도 아득하게만 여겨 졌습니다.》

...년초부터 새로운 열기를 안고 사색과 사색을
거듭하여 걸렸던 문제들이 하나 둘 풀려 나갔다.
하지만 B문제만은 아득한 절벽처럼 막아 나서
어떻게 뚫아 올라야 할지 방도가 서지 않았다.
게다가 7월에 접어 들면서 무더위가 계속되어 사
색의 탕개가 한돌기한돌기 풀려 나갔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나도 지난 7월에 우산장창
작실을 찾았던 일이 생각 키워 저절로 웃음이 그
러졌다.

《고심참담한 탐구를 잠시 미루고 문헌연구에
몰두하려던 나는 뜻밖의 소식에 자신을 가다듬었
습니다. 우리 장군님의 로씨야편방에 대한 방문
소식을 접한 때로부터 새로운 의기가 북받쳤던것

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퍼그나 젖어 들었다.

《하루 기차길에도 피곤이 물린다고 하며 천리길도 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군님께서 7~8월 무더위속에서 하루 이틀도 아닌 20여일에 걸쳐 장장 5만여리 길을 이어 가셨으니 그 로고를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비행기편이라면 몇시간에 가실 길이였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 가셨던 그 길로 우리 장군님께서 가신 숭고한 뜻은 새길수록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저 우리 실안의 연구사들이 그 하루하루를 백날로 앞당기며 연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진란기가 24시간 가동해도 모자라 젊은 연구사들과 조수들은 제 손으로 실험관을 흔들며 연구를 다그쳤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위대한 장군님의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소식에 접하고 온 우산장창작실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들끓던 일이 그려 졌다. 정숙이 드리웠던 창작실에서 열정을 터뜨리며 작품토론에 열중하던 작가들이며 어버이장군님의 위대성을 노래한 주옥 같은 시어를 고르느라 온 밤 불빛이 꺼질줄 모르던 창작실들이며...

은 나라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으로 부글부글 끓어 오르던 그 나날 세계는 또 얼마나 폭풍 같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가! 활화산처럼 타버린 우리 인민의 다함 없는 숭배심만이 아닌 위도와 경도를 넘어 온 세계가 경이적인 사변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걸음을 멈춘 박사는 그윽한 눈길을 들어 나를 지켜 보며 말을 이었다.

《그 경이로운 나날에 나는 이번 연구에서 제일 어렵게 나선 B문제의 비밀을 밝히려 선뜻 뛰어 들었습니다. 사색과 탐구로 이어진 긴장한 낮과 밤이 흘러 갈수록 미지의 세계를 한치한치 훑아 가는 나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 졌습니다. 나로서는 지해도 정력도 다 쏟아 붓느라고 했으나 한치않도 전진한것 같지 못했으니까요. 기력도 사색도 쇠진해 졌습니다. 며칠밤을 새운 나는 탐구의 아득한 벼랑을 미루어 놓고 연구소구내길을 걸었습니다. 밤이지만 후더운 열풍에 숨조차 가빠 진듯 했습니다. 생각에 잠겨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나는 무릎 서서 귀를 도사렸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씨야련방의 흐루니체브명칭 우주과학생산센터와 중앙우주비행조종센터를 방문하시었다는 소식이 전해 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나의 심장은 높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녕 것처럼 과학을 중시하시는 우리 장군님이 시기에 이 무더위속에서도...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위대한 장군님의 과학전사된 도리를, 전사의 의무를 뼈저리게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미려한 자신을 두고 자책하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체험이 뒤따랐습니다. 이제라도 그 높은 뜻을 받들어 우리 장군님께 연구성과로 하루 빨리 기쁨을 드려야 한다는 불 같은 충동이 솟구쳤습니다.

비상한 각오를 안고 모태긴 낮과 밤, 육체적피곤이나 정신적피로보다도 갖가지 착상이 번뜩이는 나에게는 새로운 신심이 넘쳐 나는것이 스스로 놀랍기만 했습니다.

참 작가선생은 인간이 때로 자기의 능력을 초월한다는것을 믿습니까?》

《물론입니다. 우수한 체육선수가 경기에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여 사람들을 놀래운 때를 미루어 보아도 말입니다.》

《실은 이번 탐구과정에 내스스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비상한 각오가 그처럼 웅심 깊은 사색의 빛을 비쳐 주리라고는 자신도 미처 가늠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여로부터 작가들속에서는 사색에 사색을 거들 할 때 령감이 번뜩이며 신비로운 예지의 빛발이 비쳐 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허허...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그 령감만이 아닙니다. ...어쨌든 한달도 못되는 사이에 B문제가 풀려 지자 다른 문제는 어려운것이 아니라는 자신심부터 생겼습니다.》

우리가 개선문쪽으로 향했을 때 어느새 어둡이 깃든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 별을 뜨거움에 젖은 눈길로 이윽히 지켜 보던 박사는 혼연히 말을 이었다.

《아름답게 빛나는 저 별들도 무궁한 광원의 빛발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지 않습니까. 내 사색의 열매도 따사로운 그 빛발로 무르익혀진것이라고 굳이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가슴속에 소중히 비쳐 오는 그 빛발은 마를줄 모르는 지혜와 힘을 안겨 주었으니까요.》

사려 깊은 그의 눈가에는 열정의 빛이 번뜩이였다.

《참으로 나자신이 이번 연구과정에 갱소년된듯 합니다. 작가선생이 굳이 글을 쓴다면 나에게 무궁한 활력을 준 그 빛발에 대해 쓰십시오.》

그 밤 박사와 오래동안 이야기를 나눈 나는 자신도 어느새 갱소년된듯 새로운 정열이 불 타올랐다. 뜻 깊은 이 한해를 두고 쓰고 싶은 이야기들이 그 얼마나 많은지... 생각할수록 나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 올랐다. 새 천년기의 첫해에 조국청사에 아로 새겨진 자랑스런 년륜을 두고...

어머니심정

(총련) 박종상

1

무사시노의 겨울은 도쿄도내보다 한 2~3℃ 기온이 낮다고들 한다.

양력 3월 초하루인데 사람들은 아직도 외투를 벗지 못한다.

최동호는 이날 6시가 좀 지나서 전차를 내려 정거장을 나섰다. 밤이 짧아 저서 날은 완전히다 새였는데 몹시 춥다. 입김이 허영게 불린다. 동호는 손을 호주머니속에 깊숙이 찌르고 가방을 겨드랑이에 끼고 목을 움츠리며 서리가 하얗게 깔린 포장길을 따라 대학쪽으로 걸음을 다그쳤다.

오늘은 교원들의 아침학습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로서는 어차피 일찌기 나와야 하는 날에 좀 더 일찌기 학교에 나와서 학생들의 아침생활을 보아 두자는 심산이었다.

학교까지는 17~18분 족히 걸린다.

그가 정원들이 잘 정비된 대학구내에 들어섰을 때는 바빠 걸어서 숨을 헐떡거렸지만 추위는 그리 느끼지 않았다. 그는 맑은 대기를 한껏 가슴속에 들이마셨다. 상쾌하였다.

강당 저쪽 운동장에는 붉고 푸른 운동복들을 입고 아침달리기를 하는 학생들이 아침안개가 서린 수림기슭을 하얀 입김을 날리며 달리고 있다.

조선대학의 아침이다.

동호는 일본에 하나밖에 없는, 아니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해외 조선교포대학인 이 학원에서 사업하기 시작하여 이제 20년이 넘어 완전히 정이 딱 붙어 버렸지만 그중에서도 대학의 아침을 가장 사랑한다. 풍치 좋은 무사시노의 자연은 아침이 사철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고 이맘때 대학구내에 있노라면 이제는 젊다고 할수 없는 동호이긴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 끝 없는 포부가 가슴속에 구름같이 일어 났다.

그는 서리속에 잠긴 대학의 뜰을 보며 이미 다가온 봄을 느끼고 있었다.

잔디는 아직도 누렇게 말랐고 나무가지들은 앙상하나 그는 그 서리속에 묻힌 마른 잔디밑에서 돌아 오르는 새싹들의 태동을 느끼었고 앙상한 나무가지에서 타고 오르는 힘찬 생명의 물줄기를 느끼고 있었다.

대학에서 봄을 맨 먼저 알리는것은 목련이다. 백목련의 거목들이 대학에는 많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이 대학을 창립한 초대학장은 주체48(1959)년 이곳에 현재의 교사를 일떠세웠을 때 학생들이 조국과 인민

에 대한 깨끗한 사랑을 안고 봄을 먼저 알리는 시대의 선구자가 되라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 대학구내에 백목련나무를 많이 심었던것이다.

겨울을 이겨 내고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목련은 간고한 시련끝에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의 영예를 지니게 된 재일동포들의 깨끗한 의지와 기상을 말해 주는듯 했다.

해마다 하늘에 뜬 솜덩이같이 하얗고 깨끗한 목련꽃송이들이 일제히 필 무렵 조선대학의 졸업식이 거행된다.

올해도 졸업식이 다가오고 있었다.

동호는 교문에서 가까운 정원에 선 한 목련나무에 다가갔다. 아지끄의 꽃망울은 아직 탄탄하다. 그러나 검붉은 망울끝은 확실히 이제 필 날이 멀지 않았다는것을 말해 주고 있었다.

동호는 목련꽃을 볼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안팎의 반동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사대주의와 노예사상에 물 젖은 일부 사람들의 장난을 이겨 내며 갓은 고초를 겪어 가며 기어이 이 대학을 창립한 일군들의 원대한 리상과 충직스런 의지가 안겨 와 가슴이 뜨거워 지는것을 느끼곤 한다.

흐뭇한 표정을 짓고 연구당쪽으로 가려던 그는 문득 발길을 멈추었다. 그가 방금 들어 온 교문 접수실앞에 웬 녀인이 조심스러이 다가서는것이 보였기때문이다.

맑은 회색외투에 자그마한 러행가방을 들고 있다. 먼 눈으로도 학생은 아니었다.

(이렇게 일찌기... 학부형일까?)

동호는 때 아닌 래방자를 의아쩍게 바라보았다.

조선대학에는 일년내내 찾아 드는 사람이 끊치지 않는다. 학부형, 일본 각지의 우리 동포들, 수학려행이나 견학 온 초중고급학교 학생들, 일본 학자들이나 학생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찾아 온다. 해마다 2~3월이 되면 학부형들의 래방이 부쩍 늘어 난다. 대체로 졸업반학생들의 가족들이다. 이 대문간에 있는 접수실앞은 날마다 찾아 드는 사람이 꼬리를 물고 이어 선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침 일찍 학교를 찾아 드는 사람은 드물다.

동호는 성큼성큼 오던 길을 되돌아 접수실쪽으로 갔다.

접수실안에서 수직을 서고 있던 젊은 직원을 상대로 무엇을 열심히 묻고 있는 녀인더러 동호

는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순간 동호쪽을 돌아 보고 눈이 둥그레 진 녀인은

《예? 저...》

하고 머뭇거리며 곧 말을 못한다.

나이는 선대여섯이나 되었을까? 닭알모양의 약간 가름한 얼굴, 피부에 잔주름이 많다. 알릴락말락 파마를 한 머리의 앞과 귀밑머리가 하얗게 세었다.

순한 코날과 호수같이 잔잔한 눈이 대하는 사람에게 안도감을 준다. 키도 좀 작은 편이고 어깨도 훌쩍하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동호는 녀인을 놀래우지 않기 위하여 재차 조용히 물었다.

그제사 녀인은 그 맑은 눈에 안도의 빛을 띄웠다.

《선생님이신가요?》

녀인은 동호쪽과 접수실안에 있는 젊은 직원을 번갈아 보면서 또렷한 경상도말투로 누구에게라 없이 물었다.

《예, 이 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북해도에서 왔습니다.》

《북해도에서?》

동호는 저르기 놀래였다.

그야 요즘 세상엔 특급열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다. 볼 일이 있으면 어디서라도 못 오랴만 이 초로의 녀인을 보고 있노라니 그러한 현대적인 편리가 어울리지 않고 비행기로 한두시간이면 가는 북해도땅이 펍 먼 옛날, 교통이 불편하던 옛날의 북해도까지의 거리를 련상케 하였던것이다.

《밤차로 오셨습니까?》

동호는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였다.

《앙이, 비행기로 어제 밤에 와서 다찌가와에 있는 려관에서 잤습니다.》

《려관에서요?》

동호는 아무런 신기한 일도 아닌 일에 일일이 놀라움을 느끼면서 녀인의 려행가방을 받아 들고 앞서 연구당쪽으로 걸어 갔다. 자기 연구실에서 좀 쉬게 하자는 심산이었다.

《선생님, 이리 주이소예, 이리 주이소. 괜찮습니다. 이리 주이소.》

녀인은 무의식결에 가방을 동호의 손에 넘겨 주고 만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황급히 동호를 쫓아오며 소리쳤다. 달음질을 하고 있던 몇몇 학생이 이른 새벽 대문간에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선생님과 녀인을 호기심어린 눈으로 보고 있다.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피곤하실텐데... 그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녀인은 가방을 도로 넘겨 받는 일을 단념한듯 연구당쪽으로 걸어 가면서 묻는 동호의 열얼굴을 주시하였다. 그 눈에는 동호에게 이야기를 할가 말가 망설이는 기색이 어려 있었다.

이윽고 녀인은 결심한듯이 말하였다.

《저어, 선생님은 어느 학부 선생님이십니까?》

《예?... 예, 저는 문학부에서 일합니다. 최동호라고 합니다.》

불의에 질문을 당한 동호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도 어쩐지 스스로 얼굴이 붉어 졌다.

《어마나!》

동호가 자기 소개를 미처 끝 마치기도전에 녀인은 흰 손수건을 흰 손으로 입을 막고 뒤로 몸을 제끼며 놀래였다.

《왜 그러십니까?》

이번에는 동호가 또 놀래였다. 그는 랑손에 가방을 든채 걸음을 멈추고 눈이 둥그래서 자기를 응시하고 있는 녀인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최동호선생님이십니까? 아이구, 이런 실수가 어데 있노. 저는 김옥순이 어됩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녀인은 손수건을 입에서 떼고 외투 입은 상반신을 깊숙이 굽히었다.

김옥순이란 초급부 1학년부터 오늘까지 최우등생으로 대학에서 이름이 난, 동호가 담임하고 있는 문학부 4학년생이었다.

동호는 다시 또 놀래였다.

《예? 김옥순동무 말입니까?》

동호도 열결에 따라 머리를 수그렸다.

《아이고,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뵈울줄 어이 알았을고...》

옥순이 어머니는 연신 오른손을 들어 허공을 때리면서 감탄어린 어조로 이렇게 만난것을 신기해하였다.

《옥순동무 어머니였군요. ... 그리고 보니 옥순동무와 모색이 비슷한데가 있습니다. 허허... 참 추운데 그 면에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제 방으로 가십시오.》

동호는 옥순이 어머니를 연구실로 인도하였다.

졸업반인 4학년을 담임하고 있는 동호는 그전에 한번 가정료해도 할겸 졸업후의 전도문제에 대하여 부형의 의견을 들으려 흑가이드까지 간 일이 있었다. 그때 오후에 있는 김옥순이네 집에도 찾아 갔었다. 그러나 그때는 옥순이 어머니가 샷쵸로에 불 일을 보러 가고 없어 만나보지 못하고 돌아 왔었다.

《려관에서 쉬시고 천천히 나오실것이지... 추운데 이 새벽에.》

《아닙니다. 선생님, 마음 같아서는 엿저녁에라도 오고 싶었지만 밤이 너무 늦고 해서... 오래만에 혼자 동경에 나와서 낮 선 려관에 들어 가니 잘수가 있어야지...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날이 채 밝기전에 나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조선 사람있는데가 역시 좋습니다.》

어머니는 동호가 열어 주는 방안으로 들어 서면서 큰 숨을 몰아 쉬었다.

동호는 가방을 책상우에 놓고 옥순이 어머니에게 안락의자를 권하였다. 그는 급히 가스난로의 스위치를 틀어 불을 붙였다.

《여기서 좀 쉬십시오. 간밤에 주무시지도 못하셨다니 오죽 곤하시겠습니까. 전 옥순동무를 불러오겠습니다.》

동호는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그러자 옥순어머니는 급히 말리었다.

《선생님,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은 아이 만나러 온건 아닙니다. 선생님 뵈우려 왔습니다. 아이야 나중에 돌아 가는 길에라도 만나보지요.》

옥순이 어머니는 굳이 사양하였다.

동호는 나가려다가 엉거주춤 머물러 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모처럼 오셨는데 만나 보셔야지.》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 마침 연구당앞을 지나가던 체육복차림의 학생을 불러 세워 문학부 녀학생기숙사에 가서 김옥순학생을 자기 연구실까지 바빠 오도록 전해 달라고 부탁해 놓고 연구실로 돌아 왔다.

옥순이 어머니는 동호를 보고 일어 섰다.

《선생님, 좀 앉아 주시이소.》

그 표정이 너무나 절박한 사람의 것이어서 동호는 하라는대로 자기 의자를 당겨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어머니는 결심한듯 얼굴을 똑바로 들고 말하였다.

《우리 애를 북해도로 보내주시이소. 꼭 그렇게 해주시이소. 안됩니대이, 다른데 보내서는 안됩니대이, 절대로 안됩니대이.》

어머니는 제결에 흥분해서 다짜고짜로 안된다는 소리를 연발하였다.

동호는 또 눈이 휘둥그레 졌다.

《...》

동호는 무어라 말하려다가 스스로 참았다. 옥순이 어머니가 진정되기를 기다릴 작정이었다.

가스난로우에 얹힌 주전자가 프르르 소리를 내며 끓기 시작하였다.

동호는 옥순이 어머니에게 차잔에 차를 따르어 주었다.

잔에서 오르는 김을 불며불며 옥순이 어머니는 한모금 두모금 차를 마시었다. 뜨거운것이 목으로 넘어 가면서 온몸이 더워 오는것을 음미하는지, 아니면 가슴속에 끓는 그 어떤 감정을 진정시키려는지 지그시 눈을 감았다. 눈언저리에 주름자국이 떠올라 아까보다 썩 늙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니 동호는 어쩐지 가슴이 쓰리었다.

한참 있다가 옥순이 어머니는 눈을 떴다.

그의 입가에 민망스런 미소가 그려 져 있었다.

《선생님, 놀래셨지요.》

그는 잠시 창밖에 시선을 던졌다.

《아이가 집에 돌아 오면 하도 최선생님이야기를 하기에... 초면 같지가 않아서 럽치도 없이 그만 헛소리를 했습니다.》

방안에 온기가 도는데 따라 유리창구석에 김이 서리었다.

《우리 집에는 딸자식이라고 해야 옥순이 하나 뿐입니다... 그 애가 샌다이에 있는 초급학교에 입학한것이 여섯살때이니까... 집을 떠난지 이제 16년이 되는 셈입니다. 2~3년 있다가 출가하면 영영 집에서 함께 살 날은 없어 지고 말것이 아닙니까... 아이는 졸업후 조직에서 보내주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간다는 소리밖에 안하지예... 그걸 생각하니 가만히 앉아 있을수가 있어야지예. 그래 아이한테 연락도 안하고 왔습니다.》

옥순이 어머니는 가느다랗게 호 하고 한숨을 쉬었다.

방안이 밝아 졌다. 아침해가 돋은 모양이다. 폭넓은 적황색광선의 떠가 유리창을 뚫고 방안에 와닿아 이야기하는 녀인의 옆얼굴을 붉게 물들었다. 유리창에 서린 작은 물방울들이 가지각색의 보석을 박아 놓은듯 반짝거렸다.

동호는 조용조용 말하는 옥순이 어머니의 이야기에 끌려 들어 갔다.

2

흑가이도는 일본의 북변이다. 오파루는 흑가이도의 서쪽해안에 있는 우리 나라 동해에 립한 항구도시다.

옥순이 어머니 성분이의 일가가 오파루로 와서 살게 된것은 주체47(1958)년이었다.

그의 남편은 일제시기 그가 아직 소년시절에 이 흑가이도 비바이탄광에 징용으로 끌려 와 혹독한 고역과 채찍에 시달린 기억이 생생한 곳이여서 다시 보기도 싫었으나 해방후 결혼을 하고 자식들이 하나 둘 생김에 따라 생활에 쫓기게 되니 다시 또 흑가이도로 되돌아 오고 말았다. 흑가이도가 그래도 도교나 오사까보다는 조선사람이 장사하면서 살아 갈 여지가 있었고 그곳에 한 걸음 먼저 들어간 친구의 집집진 권유도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 그들은 샷썰로에 갔으나 이미 과잉할 정도로 타지방에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 옥실거리는바람에 그는 좀 돌아 앉은 오파루에 터전을 잡은것이였다.

내외는 그때 이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오파루에 온 이후에 막내딸 옥순이를 낳았다.

그들은 총련지부의 주선으로 정거장이 가까운 상점가 맨끝에 빈터를 빌려 간단한 《바라크》집을 짓고 빠짱 꼬점을 시작하였다. 때마침 소위 일

본경제의 《고도성장》의 물결을 타서 오파루도 급격히 인구가 늘어 났고 그들의 가게 주변도 2~3년 사이에 새로운 가게들로 빼곡이 들어 찼다. 빼빼 꼬점은 늘 손님들로 붐비었다.

그들 내외는 아침부터 밤 12시, 때로는 1시, 2시까지 일하였다. 가게도 본격적인 건물로 개조하여 가게 2층이 살림집으로 되었다.

말하자면 그들 내외의 침식을 돌보지 않는 노력의 보람이 있어 그들의 생활이 안정되게 된 셈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었다. 아이들의 교육문제였다.

남편은 자신이 지난 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고 민족적멸시를 호되게 받아 온 그 울분이 언제나 가슴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어 아이들만은 반드시 조선사람으로 훌륭하게 교육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운동이 벌어 지면서 동포들속에 민족적자각이 높아 지고 흑가이도에서도 민족교육에 대한 열의가 급속히 앙양되었다.

오파루에도 지부사무소에서 아이들에게 우리 말을 가르쳐 주는 강습회가 생겼다. 그들은 이 강습회를 몰심량면으로 열심히 도왔고 아이들을 보내어 배우게 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아들 둘을 일본학교에 보내놓고 있는것을 가슴 아파 하였다.

옥순이 여섯살나던 해 정초에 있었던 일이다.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이었다.

그날도 눈이 내렸다 그랬다 하였다.

늘 집에 드나들며 장사일이랑 살림살이랑을 보살펴 주고 있는 분회장과 함께 신년모임에 참가한다고 총련지부사무소에 갔던 남편이 한낮이 넘어서 집에 돌아 오자 가족들을 불러 앉히었다.

《당신도 들으시오.》

남편은 성분을 보고 이르고 나서 아이들을 둘러 보았다.

그는 술이 한잔 들어 갔는지 얼굴이 벌거우리하고 대단히 기색이 좋았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조선사람이다. 일본땅에 살고 있지만 조선사람이다. 아버지가 여기 온것은 오고 싶어 온것이 아니라 일본놈들이 고된 일을 시켜 부려 먹으려고 끌고 온것이다. 어머니도 마찬가지다.》

남편은 자기 말을 아이들이 알아 듣는지 어떤지 좀 걱정이 된 모양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알겠냐?》 하고 다짐하였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하는 얼굴로 눈이 말뚱말뚱해서 아버지의 얼굴을 신기한듯 바라보며 아버지의 다짐에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니 조선에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이 있

고 아버지의 아버지, 너희들의 할아버지가 거기 계신다. 할아버지는 너희들이 일본학교에서 일본 공부만 하고 있다는것을 알면 슬퍼 하실거다. 너희들은 일본에 있어도 조선공부를 하여 조선사람이 되어야 한다. 센다이에 올 4월부터 조선학교가 새로 서게 된다. 기숙사도 있다. 너희들은 거기 조선학교에 가거라.》

성분이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우의 아이 둘은 이미부터 도호꾸조선초중급학교에 보내자고 내외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눈을 톱톡톱 밝히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말이 끝나자 다시 크게 고개를 꾸벅거렸다.

《나도 조선학교 간다!》

옥순이가 발딱 일어 나더니 아버지의 무릎에 달랑 안기며 소리쳤다.

남편은 딸의 볼을 두손으로 비비면서 귀여워 못견디겠다는듯이 눈꼬리가 처졌다.

《우리 옥순이 똑똑하구나. 그래 그래. 너도 오빠들하고 함께 가거라.》

듣고 있던 성분이는 깜짝 놀랐다. 물론 아이 놀리는 말로 한것이라고는 생각했으나 아이가 곧이 들을가 걱정이었다.

《아이 당신, 무어라고 하시오. 아이한테 그런 헛소리 함부로 하다가 이제 참말로 간다고 야단을 벌리면 어떡할 작정이요.》

성분이는 남편을 나무랐다.

《어떻거기는 어떡해. 보내주면 그만이지. 그럴잖아도 조금전에 지부에서 옥순이의 입학원서도 써내놓고 왔어. 이왕 보낼바에야 애당초 우리 학교에 넣을거지. 구차스럽게 가깝다고 남의 학교에 보낼건 없거든. 좀 멀긴 해도 버젓한 우리 학교를 두고...》

성분이는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뭐리카요. 당신 정신 있소? 이 쪼꼬마한걸 그 먼데 떼쳐 놓을 작정을 어찌 그리 쉬이 하시오. 사내아이 둘 떼놓는것도 살을 떼는것보다 더 아픈데 아무리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어찌 그런 독한 소리를 하시오. 예? 안돼요. 그것은 안되지요. 안되고말고... 이리 오너라 옥순아.》

성분이는 발딱 일어 나서 옥순이의 팔을 잡아 남편의 무릎에서 빼내어 안고 옆방에 들어 가 사이문을 탁 닫아 버렸다.

그리고는 옥순이를 누가 뺏아 가거라도 하려는듯이 힘을 넣어 꼭 가슴에 붙안았다.

(이것을 그 먼데 떼놓다니. 어렵도 없다.)

성분이는 스스로 복받쳐 오르는 걱정을 참지 못하고 훌쩍거렸다.

《엄마 아프다!》

옥순이는 영문을 모르고 비명을 올렸다.

그날 밤 남편은 아이들을 밥 먹여 채워 놓고 정주간에서 밥상에 엮던채 줄곧 말이 없는 안해

결에 가 《고파즈》에 하반신을 묻었다. 석유난로의 반사판이 별걸개 열을 반사하고 있는데도 방안은 그리 따스하지 않았다. 바깥이 워낙 추운 까닭이었다.

남편은 숨이 든 덧옷을 어깨에 걸치고 그냥 엎드려 있는 안해쪽을 물끄러미 보았다.

성분이자신도 아이들을 조선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는 남편의 뜻이 옳은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성분의 어머니된 심정으로서 매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며 키워 온 옥순이를 떼놓는다는 것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쓰러졌다.

성분이는 그냥 엎드려 있었다. 그의 어깨가, 그의 등미가, 그의 등판이 그냥 자기 심정을 몰라주는 몰인정한 남편에 대한 강한 항의였고 원망이었다.

남편은 그런 성분의 반항의 벽을 밀어 제끼듯 《당신이 왜 이러오. 이러면 되오?》 하고 버럭 화를 내며 재털이를 당기며 입에 물었던 담배를 문질러 켜다.

《정월 초하루부터 이게 무슨 짓이요, 재수 없게.》

《...》

성분이는 그냥 엎드려 있었으나 그의 뒤통수는 말로 하는 것보다 몇 곱절 더 웅변으로 항의하고 있었다.

(왜? 너자면 왜,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법은 누가 만들어 었어요... 자기 자식문제에 대해서 어미가 왜 말을 못해요. 내가 낳고 내가 키운 내 자식인데 누가 맘대로 떼갈 수 있단 말이요? 안되지요. 안되지요.)

남편은 성분의 뒤통수를 한참 지켜 보고 있었다.

동네사람들과 친구들의 인정에 의하여 분회사무소에서 결혼을 한 당시의 안해의 모습, 4조반 단칸방에서 새 살림을 살던 일, 어린것 둘을 업고 안고 살 길을 찾아 도표, 오사까를 헤매던 일, 일을 찾기 위해 자기가 도야마의 산속에 들어가고 난 뒤 안해가 아이들을 너자손 하나로 맡아가지고 살림을 부지하노라고 피눈물나는 고생을 한 일...

그동안 꽃 피는 봄, 단풍드는 가을도 많았지만 언제 한번 이웃 일본여자들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들이 가본 일이 없었고 호의호식을 생각해본 일이 없는 안해였다.

장사한다고 늘 나다니는 남편을 도와 군소리 하나없이 안팎의 일을 다해 온 안해였다.

그는 자기가 방금 안해에게 화를 내서 욕설을 한 것이 너무한 것같이 여겨 켜다.

그는 다시 담배를 피워 물었다.

《여보, 큰소리낸 건 내가 잘못했소... 하지만.》

그는 담배연기를 후- 하고 뱉어 내면서 말하였다.

성분이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으나 어느새 마음을 가라앉힌 남편의 조용한 말소리가 그의 고막을 울렸다.

《...하지만 생각해 보오. 맘이 좀 괴롭더라도 아이를 우리 학교에 보내서 조선사람으로 키워야 하지 않겠소... 부모가 조선사람이라 해서 가만히 뒹두어도 아이가 저절로 조선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요. 이 오파루에도 일본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가 있지만 그 애들이 어데 조선에 갈소. 일본아이나 다름이 없지 않소...》

그것은 성분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우의 아들 둘을 그 먼 센다이까지 보내자는 남편의 말에 동의한 것이 아닌가.

남편은 측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자식이 귀엽긴 나도 당신에게 못지 않소. 그렇지 않다면 무엇때문에 조선학교를 세우고 조선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쓰겠소. 다 귀한 우리 자식들을 일본아이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요.》

하기야 그랬다.

그렇지만 성분이는 옥순이 문제를 놓고서만은 그 천만번 정당한 남편의 말이 자기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아 그대로 따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아이들을 조선사람으로 교양해야 한다는 남편의 뜻을 꺾어 낼 수 없었다. 결국 옥순이는 4월부터 센다이에 면모를 새롭게 하여 일떠서게 된 조선학교로 가게 되었다.

입학식을 앞둔 3월 30일, 성분이는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기차를 탔다. 하꼬다데까지 가서 세이강련락선을 갈아 타고 쓰가루해협을 건너 아오모리에서 다시 또 기차를 탔다. 웅근 하루 걸리어 그들은 센다이에 닿았다.

이 먼 곳에 우의 아이 둘은 하느수 없다 치더라도 옥순이마저 떼놓아야 할 것을 생각하니 성분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다.

학교는 센다이에선 풍치 좋기로 이름난 야기야마에 넓은 터전을 잡아 아담하게 꾸려져 있었다. 훌륭한 기숙사도 갖추어져 있었다.

기숙사 사감을 맡게 된다는 녀선생이 교장선생이며 도호꾸, 후가이도 총련 각 현본부의 간부들과 함께 먼 지방에서 온 학생들을 교문에서 마중하고 있었다.

성분이는 그 나이 지긋한 녀선생과 젊은 남자선생에게 절을 몇 번이나 하면서 잘 부탁하노라고 인사를 하였다.

입학식이 끝나고 그날중으로 곧 떠나자는 남편을 설득하여 성분이는 아이들을 학교에 맡겨 놓고 센다이 시내에 있는 려관에서 하루 더 묵기로 하였다.

어머니를 떼어져 본 일이 없는 아이들이 떠들

지나 앓을가 걱정하였었는데 별로 그런 일도 없었다.

아이들은 사감선생의 숨쉴 있는 지도에 따라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곧잘 놀았다. 그들은 학교문을 나서는 량친을 손을 흔들어 바래였다.

성분이는 안도감과 함께 갑자기 자기 몸언저리가 허전하고 가슴속이 텅 빈것 같은 공허감을 느꼈었다.

이튿날 아침 7시가 좀 지나서 내외는 학교로 가보았다. 아이들은 식당에서 아침밥을 먹고 있었다.

방을 들여다 보니 이불이며 학용품, 옷 등이 잘 정돈되어 있고 집을 떠나 생활을 잘하겠는가고 걱정하던 일이 공연한 걱정이었음을 말해 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량친을 보고 웃어 보였다. 의젓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환경의 급변에 긴장해서 그러는지 자리에 단정히 앉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것이 이젠 다 썬이 든 아이들 같았다. 집에서는 상상할수 없었던 일이었다.

입학식이 끝나고 선생님들에게 부탁할 말도 어지간히 하고 난 성분이는 남편의 재촉을 받으며 오후 학교를 나서려고 하였다.

아이들은 각각 담임선생님들의 지도밑에 아직도 교실에 있었다.

그들이 교실쪽을 돌아 보며 현관을 나서 교문으로 나가는 구내길을 돌아 가려는 때였다.

《엄마야!》

별안간 자지러진 아이의 비명 같은 웨침소리가 성분의 귀청을 때렸다.

성분이는 흠칫 놀래며 뒤를 돌아 보았다. 저쪽 학생출입문쪽으로부터 옥순이가 양말바람으로 펄사적으로 그들을 향해 달려 오고 있었다. 그뒤로 담임선생님이 따라 오고 있는것이 보였다.

성분이는 눈앞이 아찔해 지며 가슴이 미여지는 듯 하였다.

《여보, 그냥 갑시다. 그냥 가!》

남편이 그의 팔을 잡아 끌었으나 성분이는 무서운 힘으로 그것을 뿌리치고 아이에게로 달려가 옥순이를 꼭 안았다. 영문 모를 서러움이 솟았다.

한참 그러고 있던 그는 이윽해서 얼굴을 들었다. 교사 창문마다에서 술한 아이들이 그들을 내다보고 있었다. 어느새 우의 아들이 돌도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곁에 와 서 있었다.

그제야 그는 정신이 들었다.

(내가 왜 이랬을고. 다른 사람들이 돌아 갈 때 함께 돌아 갔어야 했을걸...)

그는 돌아 가자던 남편을 붙들고 좀 더 좀 더 하고 이때까지 돌아 갈 시간을 끌어 온 일을 후회하였다.

그날 옥순이를 달래다 못해 사업때문에 꼭 돌

아가야 하는 남편만 먼저 돌아 가게 하고 성분은 기숙사 사감실에서 자고 이튿날 옥순이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집으로 돌아 왔다.

그러나 그의 귀에서는 《엄마야!》하고 울부짖던 옥순이의 울음 섞인 애절한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꿈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소스라쳐 깬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 아이들한테서 편지가 왔다. 큰 아이들의 봉투편지속에 옥순이가 그린 성분의 얼굴그림이 함께 들어 있었다.

성분이는 그 몇마디 안되는 편지글을 한시간이나 걸려서 읽고 꼭두각시탈같이 생긴 자기 얼굴그림을 보고 또 보았다.

아이들을 조선학교에 보낸 다음 성분이는 지부에서 하는 성인학교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 방학때 아이들이 집에 돌아 오면 아이들한테서도 글을 배웠다.

이렇게 하여 집을 떠난 옥순이는 6년후에는 중급부로 올라 갔고 또 3년후에는 고급부로, 다시 3년후에는 도표에 있는 조선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동안 성분이는 녀맹분회위원이 되었다.

3

옥순이는 방학에 집에 돌아 올 때마다 놀랄만치 달라 졌다. 몸도 나이에 비하여 숙성했거니와 태도도 의젓해 졌다. 대학에 입학하고 난 뒤로는 아주 어른이 되고 만것 같았다.

옥순이 대학에 입학한후 첫 여름방학을 맞이했을 때였다.

방학에는 반드시 집에 돌아 가겠다는 편지를 믿고 성분이는 옥순이 돌아 올 날을 이제나저제나 말 그대로 학수고대하였다.

그러나 옥순이는 그러한 성분의 애를 태우느라 그러는지 좀체 돌아 오지 않았다.

옥순이가 성분이앞에 나타난것은 여름방학이 거의 끝날무렵이었다.

성분은 옥순이를 본 순간 우뚝 그 자리에 서버렸다. 자기를 것처럼 애 타게 기다리게 한 딸을 꾸짖는것조차 잊어 버렸다.

더위에 연분홍색꽃잎같이 발가우리하게 상기된 얼굴, 검은 자위가 짙은 시원한 눈, 술이 많은 까만 머리채, 성분이보다 훨씬 큰 몸매... 딸의 온몸에서는 싱그러운 꽃향기가 풍기는것만 같았다.

성분이는 처음에는 숨이 멎을듯 한 놀라움을 느꼈고 다음에는 딸을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한참 그런 다음 딸의 가방을 받아 들고 늦게 온것을 탓하였다. 옥순은 하기교양선전대에 참가하고 돌아오느라고 늦었다는것이였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전화라도 할것이지...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어머니도 참, 뭘 그렇게 기다릴게 있어요. 짬이 생기면 어련히 집에 돌아 오지 않을까봐요… 편지에라도 하기교양선전대에 참가하고 돌아 온다고 썼었는데… 편지 못 봤어요?》

옥순은 천연스레 말하였다. 그런 딸에게서는 그전날 어머니를 떨어 지지 않으려고 《엄마야-》하고 숨이 끊어 질듯 자지러지게 울던 모습은 꼬물만큼도 찾아 볼수 없었다.

《저런, 편지에 그런 말이 적혀 있었던가?》

성분이는 찬장서랍에서 편지를 찾아 딸에게 주었다.

옥순은 편지봉투에서 편지를 꺼내 훑어 보더니 《여기 봐요, 여기에 써여 있잖아요. 어머니두 참.》

하며 성분이 눈앞에다 대고 편지의 글줄을 짚어 보여 주었다. 거기에는 푹푹히 하기교양선전대에 참가하였다가 돌아 온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이, 이 내 정신 바라!》

모녀는 손을 서로 맞잡고 한참 웃었다.

한참 웃다가 돌아 서서 옥순이는 가만히 손수건으로 눈굽을 누르는것이였다.

(애두 참.)

성분이도 어쩐지 눈시울이 뜨거워 졌다. 딸을 기다리는 일념에서 편지의 그 부분에만 정신이 팔려 판데 신경을 쓸 여유조차 없었던 자기의 심정을 헤아려 준 딸의 애틋한 마음이 그지없이 고마왔다.

그러면서도 한편 성분이는 장중보옥으로 애지중지하던 그 옛날의 자기 딸이 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머나먼 곳으로 영영 가버린것 같은 서운한 생각을 금할수 없었다.

남편도 저녁에는 돌아 왔다. 오래간만에 집에 불이 켜진듯 밝아 졌다.

방바닥에 뚫어 앉아 돌아 온 인사를 깅듯이 하는 딸을 보고 남편은 눈이 부신듯 어리둥절해서

《아, 안녕하십니까?》

하였다.

그 모양이 하도 우스워 성분이는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다.

밥상에 둘러 앉아 오래간만에 단란한 저녁식사가 시작되였다.

아버지의 술잔에 술을 따르는 옥순에게 남편은 연신 《예, 고맙습니다.》 하였고 옥순에게 반찬을 권하면서 《자시오.》 하였다. 그러다가 이야기의 실마리를 댄다는것이

《그래, 대학은 어떻습니까, 재미 있습니까?》

하는 바람에 성분이는 그때껏 참아 오던 웃음을 툴러치고 말았다.

그는 옆구리를 손으로 누르며 눈에 눈물을 담

아 웃어 댔다.

멀뚱한 눈으로 자기를 지켜 보고 있는 남편에게 성분이는

《당신, 자기 딸을 보고 안녕하십니까? 그러이소, 어떻습니까… 하는 사람이 어데 있어요?》

하고 눈을 슴뻑이며 아직도 웃음이 가서 지지 않는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면 뭐라카노?》

《해라 하면 되지 뭐요.》

《해라?》

남편은 뭇지 시원치 않은 어색한 표정이다.

성분은 아들 둘은 멀리 떼여 놓았지만 이렇게 옥순이만이라도 맞이하여 단란하게 밥상에 둘러 앉아 있으니 차오르는 기쁨을 누를수 없었다.

집안에 훈기가 돌아 왔다. 집안이 밝아 지고 향기가 퍼도는것만 같았다.

그러나 성분의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옥순은 곧 대학에 돌아 갔으며 이듬해 남편은 간장암으로 반년나마 신고하다가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기둥으로도 대들보로도 믿고 살아 오던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성분의 비탄은 컸다. 그는 세상이 캄캄해 진듯 하였다.

그가 절망과 슬픔속에서 겨우 제 정신을 돌이켰을 때 그의 어머니된 정은 옥순이에게로 더욱 쏠리였다.

아들 둘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총련일군이 되어 하나는 도교에, 하나는 샌다이에 가 있었다.

그는 옥순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 올 날을 일일천추로 고대하였다.

그런데 옥순은 성분의 그런 심정을 모르는양 빼돌려 진 소리를 하였다.

《어머니, 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교원이 될래요.》

방학에 집에 돌아 왔을 때 옥순이는 이따금 이런 소리를 하곤 하였다.

《오냐, 그래라. 혹가이도에 돌아 와서 하면 되겠구나.》

《아니예요, 혹가이도의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혹가이대출신의 조선대학졸업생들도 많고…》

《?…》

《그리고 시고꾸의 에히메라든가, 호꾸리꾸 같은데는 궁벽하여 동포수도 적고 그것도 홀어저 살고 있기에 교육사업이 썩 힘들대요. 그래서 교원으로 갈 희망자가 없어요. 전 그러한 학교에 가고 싶어요.》

《애도 참 꿈 같은 소리를… 남자 같으면 몰라도 네가 어떻게 혼자 그 먼데서 살겠다고 그러냐…》

그렇게 나무라면서도 성분은 옥순의 말을 곧이 듣지 않았다. 그저 처녀다운 그런 꿈 같은 말을 해보고 있을 따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도 몇번 거듭되는 사이에 성분의 가슴에는 가끔 의혹과 불안의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다.

(애가 참말로 그런 면데 가겠다는것이나 아닐가?)

성분은 딸의 마음을 가늠할수 없었다.

그의 그 불안은 옥순이가 대학 4학년이 됐을 때 현실로 나타났다.

장마가 없다는 혹가이도이지만 이해 따라 6월에 비가 많이 내렸다.

한창 비가 내리던 6월 중순의 어느날 성분은 딸한테서 편지를 받았다. 교육실습에 간다는 전화가 걸려 온것은 꼭 한달전인데 편지는 실습현장인 아이찌현의 중급학교에서 보내온것이였다.

편지에는 실습 간 학교와 학생들의 이야기며 실습생들의 이야기가 옥순이다운 섬세한 필치로 재미 있게 적혀 있었다. 그런데서도 성분은 홀로 있는 자기를 위로하려는 딸의 살뜰한 마음씨가 느껴져 눈시울을 적시였다.

성분은 편지 읽는데 정신이 팔렸다.

...어머니, 장차 교육전선에 나설 강렬한 희망을 품고 있는 저로서는 이번 이 대학시기의 마지막실습을 단순히 실습으로만 생각할수 없습니다.

참말로 저에게 남을 지도하고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자기가 여태 련마해 왔고 축적해 온 온 사상, 온 지식, 온 인간을 검열 받는 시험장으로, 검토 받는 마당으로 여기고 있어요.

글쎄 우리 학교가 어떻게 해서 생긴 학교며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입니까.

교재를 연구하고, 동무들과 토론을 하고, 직관물을 만들고 밤을 새워 가며 교수안을 짜고 지도 선생님의 검열을 받고 교단에 서서 수업을 하고 총화를 하고... 이 모든 과정, 매일 매 시각이 긴장의 편속이며 저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전투입니다.

저는 자기 생애를 통하여 이렇게 보람찬 생활을 여태 경험해 본적이 없습니다. 대학에 있을 때는 학생이지만 여기서는 《선생님》이니까요. 어린 학생한테서 《실습선생님》 하고 불리울 때면 긴장감으로 가슴이 찌릿하게 저려 오군 한답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무난하게 과제를 처리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고비는 이제부터라고 단단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라 여기는 련일 비가 내리고 무덥습니다. 불순한 일기에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성분은 편지를 든채 한참동안 멍하니 앉았었다.

무엇을 생각할수도 없었다.

한참후에야 성분은 정신을 차려 편지를 다시 읽어 보았다. 졸업후에 타지방에 가겠다는 말은 아무데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지, 그 애가 설마 날 두고 어데로 가려고... 설마 설마 그럴리아...)

성분은 억지로 마음을 놓으려 하였으나 한번 가슴을 덮은 구름은 말끔히는 가서 지지 않았다.

성분의 가슴속에 한가닥 불안을 남겨 둔채 여름방학도 겨울방학도 아무 일없이 지나갔다.

졸업시험을 무사히 쳤다는 옥순이의 편지를 받은것은 2월도 스무날을 넘어서였다. 성분의 가슴속에 집요하게 남아 있던 불안이 다시금 활개를 펴기 시작하였다.

(그 애가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집 사정을 모르는 조직에서 그 애를...)

불안의 그림자는 그것을 지우려 들면 들수록 현실감을 가진 더욱 뚜렷한 형태를 드러내었다.

그는 그냥 집에 앉아 있을수가 없었다.

성분은 가슴속에 번진 그 불안에 쫓기다 싶이가게일을 점원들에게 맡겨 두고 서둘러 집을 나선것이였다.

4

너인은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해 진것인지 표정이 펴 너그러워 보였다.

《선생님예, 나이 깨나 먹은 녀자가 철 없는것을 한다고 웃지 마이소예...》

너인은 수줍은듯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마루바닥에 깔았다.

동호는 너인의 이야기에서 커다란 충격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너인의 차잔에 다시 차물을 따라 주었다.

너인은 뜨거운 차물을 훌훌 불면서 마시였다.

김이 그의 일가에서 날리어 흩어 졌다.

그것을 물끄러미 지켜 보면서 동호는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대학생 한사람 한사람에게는 다 그들의 가정이 있고 그들을 낳아 기른 어머니들이 있을것이다. 1천 500명을 헤아리는 이 대학생들, 아니 이미 대학을 졸업한 수천의 졸업생들과 앞으로 이 대학에 입학해 올 수천수만의 래일의 대학생들에게도 다 그들을 못 잊어 하는 이러한 어머니가 있을것이 아닌가.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동호는 20여년간 대학에서 교육사업을 하면서 언제 한번 이러한 어머니들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사업해 본 일이 있었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이국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교육을 위하여 애 태우는

재일동포들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고 계신다. 어버이수령님의 그 뜻을 구현하느라고 동호는 오늘까지 사업해 왔으며 민족교육을 조선사람을 되찾고 민족적단결을 이룩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입이 닳도록 강조해 왔었다. 그는 그것으로 하여 자기 사업에 대한 보람을 느끼었고 교원된 자각과 책임성도 남 달리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그로서도 사랑하는 자식을 여섯 살 어린 나이에 멀리 학교기숙사에 떼놓는 어머니들의 쓰라림과 그 가슴속깊이 숨어 있는 간절한 소원을 속속들이 알고 교육을 하고 있었던것은 결코 아니었다.

동호는 새삼스레 학생들을 맡은 교육일군된 책임의 중대성을 아프도록 감득하지 않을수 없었다.

런락이 잘 안됐는지 옥순이는 오지 않았다.

동호는 옥순이의 진로문제는 다시한번 본인과 조용히 이야기해 보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하였다.

녀인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면서 일어 섰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절박감은 사라지고 없었다.

《나이값도 못하고 헛소리를 해서 안됐습니대이. 선생님… 용서하시이소… 그러면…》

녀인은 공손히 몇번이나 인사하고 나서 가방을 들고 나갔다.

동호는 급히 그를 따라 나섰다. 아침학습이며 여러가지 예정되어 있었던 일들이 머리에 떠올랐으나 그는 녀인을 딸에게 데려다 주고 싶었다.

기숙사에서는 학생들이 청소를 하느라고 부산스레 돌아 치고 있었다. 그런데 4학년 학생들만 눈에 띄이지 않았다. 알아 보니 4학년 학생들은 연구당에서 아침모임을 가지고 있다는것이였다.

동호는 다시 녀인을 인도하여 그쪽으로 갔다.

새봄의 아침해살이 학교구내에 찬란히 비쳐 들고 있었다.

식사시간이 됐는지 삼삼오오 담소하면서 학생들이 식당쪽으로 몰려 가고 있었다.

그 이야기소리, 발자국소리, 웃음소리… 그것이 합치고 부딪치고 마치 약동하는 청춘의 일대 교성곡인양 무사시노의 아침대기를 뒤흔들었다.

연구당의 4층계단을 올라 서니 강의실안에서 맑고 부드러우면서도 듣는 사람의 가슴에 파고드는 힘 있는 한 녀학생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토론을 하고 있는것 같았다.

《…저는 조직이 보내주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서슴없이 가겠어요. 그러나 자기 희망을 말한다면 될수만 있으면 교육전선, 그것도 교원이 부족한 궁벽한데 보내주었으면 해요.》

녀인의 발이 주춤 멈춰 섰다. 그것은 동호의

귀에도 익은 옥순의 소리였다. 동호는 긴장으로 몸이 굳어 지는것을 느끼었다.

옥순의 소리가 다시 들리어 왔다.

《…저의 어머니는 지금 흑카이도의 외진 곳에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돌아 오기를 기다리며 홀로 적적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2년전에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로 저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은 더해 진것 같애요. 오빠가 둘 있지만 둘 다 총련일군으로 타지방에 가 있으니 말입니다… 일본땅에서 갓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곤난을 이겨 내고 키워 온 자식들을 하나도 슬하에 두지 못하고 홀로 있는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면 가슴을 짓찢기는것만 같애요. 저는 밤중에도 문득 눈을 떴다가 어머니생각만 나면 그냥 밤을 지새우곤 했어요. … 물론 어머니의 고생, 어머니의 심정을 나는 아마 백에 하나도 모를거예요… 그 어머니의 심정을 저버리고 나머지 집을 멀리 떠나는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는가… 나는 지난 1년간 이 문제를 놓고 밤낮 고민해 왔어요…》

교실안에서는 기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그 고요가 교실안의 긴장을 잘 말해 주고 있었다.

동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듯 굳어 진채 녀인을 주시하였다.

크게 부릅뜬 눈으로 녀인은 교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에 맑은 물기가 배여 나 금시 가랑가랑 고이였다.

동호는 가슴이 뜨거워 지고 코등이 쨍해 졌다.

옥순이 말소리는 귀전에 울려 왔다.

《…모든 자기 희망을 다 걸어 치우고 어머니곁에 돌아 갈가… 오파루에서 녀맹사업도 할수 있고 성인학교 강사도 할수 있지 않느냐… 몇번 아니 몇십번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러나 그것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였다는것을 저는 톡톡히 알게 되었어요.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난 날 나라 잃은 망국노로 이국땅에 버림 받은 우리들 재일동포의 자녀들에게 민족교육을 받을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이 자랑스런 최고학부에서 배우게 해주신 그 은덕에 보답하는 길, 그것은 보다 더 어렵고 힘든 모퉁이를 우리가 담당하는것이예요.… 인제는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택한 결심을 반드시 리해하고 누구보다 지지해 주리라고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학교문전에도 못 가 까막눈이 되는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가슴 아파 하시었는데… 그것을 늘 말하신 우리 어머니께 내가 이처럼 자라나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을 명심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나서겠다면 기뻐해 주시면 주셨지 어찌 반대하시겠어요. 난 정말 어머니의 결정만 알았지 속정은 모르고 있었어요.》

교실안은 다시 잠잠해 졌다. 녀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방울을 지어 런던아 불을 타고 떨어 졌다. 그는 손수건으로 그것을 훔치었다. 그러나 눈물은 마를줄 모르는 우물인양 그의 눈에 솟아 올랐다.

《지금도 잊지 않아요... 나는 막내딸로서 다섯 살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안겨 젖을 먹으며 응석으로 자랐어요. 나는 도호꾸조선초급학교에 입학했을때 어머니와 떨어 지기 싫어서 발버둥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아마 어머니의 가슴의 쓰라림은 나보다 몇곱절 더했을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나를 참된 조선의 딸로 키우시려고 그 괴로움을 이기고 나를 기어이 조선학교로 보내주셨어요...》

녀인은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되돌아서 급히 계단을 내려 갔다. 그제야 동호도 뒤따라 계단을 내려왔다.

그는 녀인을 다시 자기 연구실로 안내하였다.

《...선생님, 이 미련한 어미를 용서하시이소. 딸은 어미의 속을 저렇게도 잘 아는데 이 어미는 그애 속을 모르고... 그 애가 이 못 난 어미를 생각해서 얼마나 애를 태우고 있는지도 모르고...》

녀인은 눈에서 손수건을 떼고 서글프다는듯 쫓쫓 혀를 찼다. 이제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선생님, 추태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좁은 녀자

의 소견에서 한짓이오니 제발 너무 탓하지 말아주시이소. ...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것은 잊어주시고 그 애 소원대로 시켜 주시이소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이들교육을 잘시켜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졸업식때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그러면...》

녀인은 거듭거듭 인사하고 일어 섰다.

동호는 아침식사를 권해야겠다는 생각도 잊고 멍하니 녀인을 바라왔다.

이윽고 제 정신에 돌아 선 동호의 가슴에 따듯한것이 차올랐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나가는 총련의 애국사업은 저러한 순박하고도 강인한 수많은 어머니들과 아버지들, 재일동포들의 애국열성에 떠받들려 있는것이다.)

동호는 창문을 열어 제꼈다.

창문 가득히 눈 부신 아침해살이 바깥의 찬공기와 함께 확 비쳐 들었다. 누런 잔디밭에 하얗게 깔린 서리에 아침해빛이 반사되어 가지각색으로 반짝여 대학구내는 마치 수천만개의 보석을 깔아놓은듯 경롱하다.

눈을 쫓프리며 대학구내를 바라보는 동호의 가슴에 자기 초소에 대한 사랑, 자기 사업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이 용솟듯 솟아 오르고 있었다.

말기고 갑니다

리진철

남에게 말길수 없는것이
인간의 사랑이고 정이라지만
그 사랑, 그 정을
나는 말기고 갑니다

눈같이 하얀 위생복이
그 사랑을 감싸안았습니까
《정성!》-불계 타는 그 글발이
그 정을 지켜 주는것입니까

마음 놓고 어서 가보라고
나의 등을 떠미는 그대들에게
수혈대밑에 누워 있는 아들을 말기면서도
어이하여 나는 고맙다는 말조차 못합니까
그저 부탁한다는 그 한마디밖에는...

어려 읍니다 눈앞에 어려 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정을 지켜
이 밤을 지새울 그대들의 모습이
수술칼을 들어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들고
약을 먹여도 어머니의 정으로 먹일

그 뜨거운 마음이

봅니다 나는 봅니다
체온계의 정상눈금에서
물기가 번뜩일 그대들의 눈빛을
고르려워 진 내 아들의 숨결에서
조용히 피워 오를 땀 젖은 그 미소를...

아 나의 살불이가
곧 그대들의 혈육이 되고
남을 위해서는
내 사랑, 네 정이 따로 없는 우리 세상
하기에 아들을 말기고 가면서도
가슴속에 시름이 없는 이 아버지 아닙니까

뜨거움에 그만 목이 메는데
뿌렇게 흐려 진 눈앞에 또렷이 안겨 오는 글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만세!
이 아침 일터로 떠나는 나를
저 글발이... 저 글발이 바래워 줍니다

해방전 대중가요에서 《님》의 정서적의미

은종섭

최근에 해방전 민족수난기에 널리 불리워진 대중가요에 대한 작가들과 광범한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부피 두터운 가요집도 새로 나왔고 그에 대한 수요도 높아 저 책을 얻어 보기가 힘들 정도이다. 이러한 속에서 대중가요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려는 요구가 높아 저 이리저리한 기회에 그에 대한 질문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드문히 있다.

한번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나온 유행가(대중가요)들 가운데는 《님》을 그리는 내용의 노래가 적지 않은데 그 《님》이 꼭 애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 이 문제가 대중가요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는데서 그 한사람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의가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차에 대중가요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편집부의 청탁도 있어 이렇게 펜을 들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옳은 견해와 관점, 입장을 가지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해방전에 창작된 대중가요들에 대해서도 최근 여러차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어 옳바른 견해를 정립해 주시였다.

1920~1930년대에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진 사실주의적경향의 대중가요들에는 망국노의 설움과 울분이 반영되어 있고 반일독립적인 지향이 숨배어 있다. 대중가요의 이러한 사상정서는 떠나간 《님》을 그리는 애절한 감정속에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님》이란 사모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서 예로부터 시가들에서 드물지 않게 씌여 왔다. 력대 시가들에서 《님》이란 시어는 그리운 대상에 대한 호칭이라는데서는 어느 때나 그 뜻이 별로 다르지 않았지만 그 구체적의미는 시대와 시인의 사회정치적, 계급적립장에 따라 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려의 정몽주의 시조에서 《님 향한 일편단심》과 《님》은 고려왕조, 왕을 가리키는 의미로 씌여 졌고 16세기 녀류시인 황진이 시조 《동지달 기나긴 밤》의 《어른 님 오시여드란》에서 《님》이나 민요 《뽕 따러 가세》에서의 《님》은 정든 사람, 애인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작된 전시기요 《우

리 님 영웅되셨네》(주체40(1951)년 박상규작사)에서 《님》은 미제를 쳐부시는 가렬한 싸움에서 무비의 위훈을 떨친 나라의 영웅, 사랑하는 남편을 가리키는 시어로 씌여 졌다.

《님》에 대한 감정정서를 노래한 시가들은 우리 인민이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 당했던 1920~1930년대에 특히 많이 창작되였다. 이 시기의 이름 있는 서정시인 김소월의 시들에서는 《가신 님》에 대한 애달픈 감정이 시세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반일애국적인 시인으로 알려진 한류운의 시에서는 서정시 《님의 침묵》이 대표작으로 되어 있다.

이 시기 대중가요의 창작가들도 《눈물 젖은 두만강》, 《목포의 눈물》, 《집 없는 천사》, 《칠석날》, 《울며 헤진 부산항》을 비롯하여 《님》에 대한 그리운 정서를 토로한 작품들을 많이 썼다.

이것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망국의 울분이나 반일독립의 지향정신을 직접적으로 정면에서 토로하기가 어려웠던 당시의 조건과 관련되어 있다.

해방전 대중가요에서 《님》은 일반적으로 그리운 사람, 그리운 대상, 그리운 모든것에 대한 상징의 의미로 씌여 졌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작품에 따라 그 의미가 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님》을 그리는 서정의 본질적내용은 서정적주인공의 정서적체험속에 서 있는 《님》의 모습, 《님》의 정서적의미에 의하여 규정된다.

해방전 대중가요에서 《님》은 무엇보다도 작별한 정든 사람, 잃어진 그리운 애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울며 헤진 부산항》, 《강남달》, 《비 오는 해관》, 《나그네 설움》, 《칠석날》, 《눈물 젖은 두만강》 등 《님》을 노래한 대다수 대중가요들이 여기에 속한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서러운 작별이 많았다.

살길을 찾아 정든 고향을 등지고 낮 설은 이역땅으로 떠나는 사람들, 일제의 날강도적인 징용, 징병, 《종군위안부》사냥에 걸려 현해탄을 건너고 만주로, 동남아시아의 전장으로 끌려 가는 젊은이들, 독립애국의 뜻을 품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가는 애국지사들... 민족수난의 그 시절 복변의 강기슭이며 부산항의 부두들은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과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작별의 눈물이 마를새가 없었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떠나간후

소식 없는 사람들을 그리는 애끓는 한숨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바로 이러한 현실과 사람들의 애달픈 감정이 노래의 가사와 선율들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다.

눈물어린 작별의 슬픔을 노래한 가요들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작별을 강요하는 식민지통치현실에 대한 울분이 반영되어 있다.

비 오는 포구에서 정든 님을 보낸다
비줄기 눈물속에 고통이 운다
잘 가소 잘 있소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아 바다끝 구름속에 등대가 켜다

주제27(1938)년에 나온 《비 오는 해관》의 1절이다.

비 내리는 음산한 포구에서 정든 님을 떠나보내는 서정적주인공, 잘 가소, 잘 있소, 눈물, 비물로 얼룩진 사람들의 귀속에 아츠럽게 울리는 배고동소리, 떠나는 사람 보내는 사람들의 눈앞에 서럽게 안겨 오는 높다란 등대, 작별의 서러움이 부각된 이 노래에서 고통소리와 등대에 시적묘사의 각광이 돌려진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떠남을 재촉하는 고통소리, 배 떠날 길을 가리키고 서 있는 등대, 그것은 작별을 강요하는 현실자체의 상징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저주롭게 안겨진다.

이러한 시형상은 2절의 절구 《아 해안선 안개 덮여 가슴 쓰린다》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여기에서 해안선을 덮은 안개는 떠나는 님을 서둘러 볼수 없게 가로 막는 장애물로서 정든 님과의 작별을 무자비하게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감각을 안겨주는 것이다.

《비 오는 해관》류의 노래가 정든 사람들사이의 가슴 아픈 작별을 사실 그대로 노래하면서 그 서러운 정서에 이러한 눈물 겨운 작별을 강요하는 식민지통치현실에 대한 울분, 망국노의 설움을 반영하고 있다면 《눈물 젖은 두만강》처럼 떠나간 《님》과 《님》에 대한 그리움의 의미가 증폭되어 안겨 오는 작품도 있다.

1930년대 중엽에 창작보급된 《눈물 젖은 두만강》은 잃어진 《님》을 그리는 녀인의 애절한 정서를 노래한 작품이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 젓는 배사공
흘러 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던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1절)

자료에 의하면 이 노래는 주제24(1935)년경 극단 《예원좌》성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조선인부

락들을 순회공연하던중 도문에서 목격한 사실에 기초하여 창작되었다.

려관에서 집을 푼 일행이 단잠에 들었을 때 돌연 옆방에서 애끓는 녀인의 통절한 곡성이 터져 나와 사람들의 잠을 깨웠다. 잠을 설친 단원 리시우가 이튿날 려관주인에게 물어 알게 된 사연인즉 그 녀인은 반일독립성전에 나섰다간 희생된 사람의 안해인데 남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천신만고하여 두만강을 건너가 보니 사랑하는이가 이미 총살 당한 뒤였다는 것이다.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 잡고 려관에 온 그 녀인은 그날이 남편의 생일이어서 밤에 조용히 술이나 한잔 부어 놓고 지나려고 하였는데 남편과 친교가 있었던 려관주인이 이것을 알고 체물을 차려 가지고 찾아 주어 그만 참았던 설음이 터지고 말았던 것이다.

크나큰 충격을 받은 리시우는 강가에 나가 두만강의 물결소리를 목 메이는 설음의 피 타는 호소로 받아 안으며 이 노래를 지었다.

강물도 달밤이면 목 메여 우는데
님 잃은 이 사람도 한숨을 지니
추억에 목 메이는 애달픈 하소 (2절)
(후렴)

이 노래의 서정적주인공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녀인이다. 노래에서는 달빛에 눈물처럼 번뜩이는 두만강가에 설음 안고 서 있는 녀인의 모습이 가슴 저리게 안겨 온다. 그러나 노래의 정서적진폭은 남편을 잃은 한 녀인의 슬픔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달빛아래 목 메여 우는 강물소리에 미어 지는 가슴을 불안고 애달픈 추억에 잠긴 서정적주인공, 그의 애끓는 서정토로에서는 님 잃은 한 녀인의 목소리만이 아닌 나라 잃은 민족의 처지, 무참히 짓밟히고 억울하게 죽어 가는 망국노의 처지를 통탄하는 또 하나의 목소리가 울려 나온다. 그 목소리에서는 망국노의 처지에서 벗어 날 앞날에 대한 갈망의 정서까지도 감촉된다.

가요의 이러한 정서적특질은 후렴구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앞부분에서 축적된 《님》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후렴구에서 《그리운 내 님이여》의 반복으로 승화시켜 나가던 가요의 정서는 《언제나 오려나》라는 절구에 와서 새로운 의미적폭을 가지고 심화된다.

《언제나 오려나》, 이것은 분명 잃어진 님에 대한 추억의 애정이 아니라 돌아올 님을 기다리는 애타는 그리움이다. 여기에는 뜻을 이루고 돌아 오리라 굳은 맹세 남기고 떠나간 님에 대한 믿음, 님과 만날 그날에 대한 갈망의 감정이 깔려 있다.

여기에 와서 님을 잃은 너인과 하나로 어울렸던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자기의 정서적면모를 전면에 드러내고 있는것이다.

떠나간 《님》과 다시 만날 그날에 대한 갈망의 감정은 《님》과의 작별을 노래한 이 시기 많은 가요들에서 찾아 볼수 있다.

그것은 김정작사, 안기영작곡으로 된 가요 《작별》의 《잘 가오 이 험한 길 기약 없는 리별이나 서로 맺은 굳은 맘 영원히 흐르리》라는 후렴구에서도 볼수 있고 김서정작사, 작곡으로 된 《강남달》(《락화류수》)에서 《멀고 먼 님의 나라》를 그리워 하는 서정적주인공이 그리움을 참지 못해 《님이 절로 오시여 깨울 때까지》, 《차라리 이 몸이 잠들》고 말리라고 애 타게 토로하는 구절에서도 뜨겁게 감득된다.

해방전 대중가요에서 《님》은 파사로운 삶의 품, 정든 어머니의 품이라는 의미를 띠고 씌여 지기도 했다.

이런 노래에는 망국노의 설음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지향적인 정서가 보다 강하게 구현되어 있다.

하늘을 지붕 삼고 떠도는 신세
동서남북 바람결에 갈 곳이 없어
찬 이슬 잔디우에 쓰러져 울면
어머니의 옛 사랑이 다시 그림다

비 오고 바람 부는 하늘밑에서
팔베개로 꿈을 꾸는 집 없는 천사
운다고 옛 사랑이 다시 울소냐
설음 맺힌 가슴에도 희망은 있다

뒤골목 장담아래 무릎을 꿇고
쳐다보는 칠성별이 정든 님이요
집 없는 몸이라고 한을 할소냐
울지 말아 고생속에 행복이 온다

-가요 《집 없는 천사》-

이 가요는 방랑아의 가없는 모습을 보는 시인의 정서적체험세계를 노래한 작품이다.

하늘을 지붕 삼고 떠돌다가 찬 이슬 내리는 잔디우에 쓰러져 한밤을 보내며 흘러 간 옛 시절의 어머니사랑이 그리워 서럽게 우는 어린 소년, 그가 쳐다보는 북두칠성이 곧 《정든 님》이라고 노래했을 때 여기에서 《정든 님》, 그것은 파스한 잠자리를 주고 포근히 안아 주는 정든 품, 그리운 어머니의 품이다.

이 가요에서는 당시의 가련한 처지에서 벗어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지향이 보다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다.

1절에서 어머니의 옛사랑을 그리워 하는 눈물겨운 정서는 2절에서 그 품을 잃은 설음 맺힌 가

슴에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는 새로운 낙관적정서으로 승화되고 있으며 3절에서 그 희망의 정서는 고생끝에 행복이 온다는 확신으로 강화되고있다. 《울지 말아 고생속에 행복이 온다》, 그것은 잃어 진 어머니가 그리워 울고 있는 가없는 방랑고아에 대한 위로만이 아니다. 여기서는 따뜻한 삶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신념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다. 여기에 가요 《집 없는 천사》가 단순히 집 없는 방랑고아에 대한 동정의 노래가 아니라 삶의 품을 잃은 망국노의 처지와 정서를 반영한 노래로 대중속에 널리 불리워 지게 된 중요한 요인이 있는것이다.

해방전 대중가요에서 《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운 애국적인 인물을 가리키는 의미로 씌여 지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의미로 씌여 진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며 또 그것이 형상의 표면에 두드러지는것도 아니다.

일제가 혹독한 언론탄압으로 사소한 반일애국적인 요소의 표현마저도 악랄하게 가로 막아 나섰던 당시의 조건에서 반일적이며 애국적인 인물에 대한 그리움의 정을 가요에 담는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것을 형상의 표면에 드러내 놓고 언론규제의 그물을 뚫는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로부터 창작가들은 반일애국적인 인물에 대한 찬양과 그리움의 정을 시형상의 밑에 깔아 놓고 대중과의 감정정서적인 공감의 마당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주체16(1927)년에 창작되어 널리 불리워 진 가요 《목포의 눈물》(문일석작사, 손목인작곡)이 바로 그러한 작품이다.

사공의 배노래 가물거리며
삼학도 파도깊이 스며 드는데
부두의 시악씨 아롱 젖은 옷자락
리별의 눈물이나 목포의 설음 (1절)

이 가요의 형상의 표면에서 안겨 오는것은 떠나간 님을 그리는 너인의 모습이다. 그 언제인가 님을 싣고 간 사공의 배노래 파도소리에 가물가물 삼켜 지는 목포의 부두가에 한 너인이 눈물로 옷자락을 적시며 말없이 서 있다. 가신 님의 자취가 완전한 이곳, 유정한 파도며 바람결도 님에 대한 애달픈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 포구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너인, 그 가슴에는 가신 님(3절에 있는 《못 오는 님》이라는 표현을 보아 그 님은 다시 못을 사람인듯)에 대한 순정이 고이 간직되어 있고 그 님을 그리며 절개를 지켜 살아 갈 굳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대체로 형상의 표면에서 잡혀 지는 가요의 정

서적내용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형상의 내면으로 한발 깊이 들어 가면
정서의 의미는 여기에 머무르는것이 아니다.

삼백년 원한 품은 로적봉밀에
님자취 완연하다 애달픈 심정
유달산 바람도 영산강을 안으니
님 그려 우는 마음 목포의 노래 (2절)

이미 우에서 본바와 같이 1절과의 련관속에서
볼 때 2절의 형상적내용은 떠나간 님의 자취가
력력한 님에 대한 애달픈 추억을 불러 일으키는
것들에 대한 시적묘사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여
기에서 형상의 의미는 새롭게도 안겨 진다.

《삼백년 원한 품은》이라는 표현이 새로운 의미
의 세계으로 정서를 이끌어 가는것이다.

시인의 추억은 300여년전의 임진조국전쟁시기
에로 거슬러 올라 가 있는것이다. 이 시각에서
시의 형상을 음미해 보면 가요의 형상전반이 새
로운 의미를 가지고 안겨 온다.

산을 로적가리로 위장하여 랑곡예비가 많은것
으로 침략자들을 속여 넘긴 선조들의 슬기로은
투쟁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로적봉, 왜적들을 통
패하게 섬멸한 리순신장군의 유명한 《명량대첩》
이야기를 속삭여 주는 삼학도의 파도소리며 애국
선렬들의 투쟁자취를 그대로 안고 있는 유달산과
영산강, 이 시각에서 시를 살펴 보면 《님 자취
완연하다》에서 《님》은 왜적을 쳐부신 애국적인
물에 대한 호칭으로 선명히 떠오른다. 여기서 서
정적주인공의 《애달픈 심정》은 왜적의 침략을
쳐부신 선렬들의 자랑스런 력사가 깃든 땅에 그 침
략의 무리들이 횡행하는 가슴 아픈 현실을 통탄
하는 마음으로 안겨온다. 《님 그려 우는 마음》,
역시 나라와 민족을 지킨 애국명장들에 대한 생

가사

각, 사무친 그리움이 된다. 이런 감정의 흐름속에
서 가요의 결구에서 강조한 《절개》도 단순히 가
신 님을 그리며 변치 않는 너인의 사랑만이 아닌
민족적절개의 의미로 안겨 지는것이다.

목포는 임진조국전쟁시기 리순신장군이 왜적들
을 크게 타승한 유명한 《명량대첩》이 있는 곳과
잇닿은 항구이다. 선렬들의 애국적인 투쟁자취
가 력력한 곳, 오늘은 일제침략자들의 발굽에 짓
밟힌 그 땅에 선 서정적주인공의 정서는 님을 잃
은 《목포의 설음》(1절)으로부터 님을 그리는 《목
포의 노래》(2절)로, 님앞에 절개를 다짐하는 《목
포의 사랑》(3절)으로 승화되어 나간다. 이것이
가요형상의 깊은 곳, 형상의 밑부분을 관통하는
정서의 줄기찬 흐름이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수난의 시절에 이 가요가
광범한 대중속에 널리 불리워 진 주되는 리유도
작품의 이러한 형상적특성과 관련되어 있는것이
다. 그리고 일제침략자들도 이것을 감축하였기에
《삼백년 원한》이란 무슨 뜻이냐고 트집을 걸며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였던것이다.

해방전 대중가요에서 《님》은 구체적으로는 각
이한 대상의 의미로 씌여 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님》과 리별한 외로움과 서러움, 《님》을
잃은 슬픔과 통분을 반영하고 있는것이다. 여기
에는 나라를 잃은 수난자의 애통과 울분의 감정
이 짙게 흐르고 있다.

민족수난기에 창작보급된 대중가요(류행가)들은
사람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지향시켜야
할 문학예술의 시대적사명의 견지에서 볼 때 심
각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당
시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의 일단이 반영되어 있
으며 창작가들의 민족적울분과 항거정신, 이 나
라 작가로서의 량심이 스며 있다.

동지는 나, 나는 동지

윤경남

진실한 동지는 제2의 나라네
나는 나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네
그처럼 충직하고 의리가 깊은
동지가 뭉치면 하늘도 이기네
아, 동지는 나, 나는 동지
생사운명 같이 할 혁명의 동지

기쁜 일 있어도 동지를 찾고
피로운 일 있어도 동지를 찾네
동지가 없으면 나는 나라네

동지가 없으면 너는 나라네
아 동지는 나, 나는 동지
생사운명 같이 할 혁명의 동지

너와 나 뜻이 같고 마음도 같아
사랑과 의리의 대가정 뻘네
동지는 혁명의 천하지대본
장군님과 생사운명 같이 할 동지
아 동지는 나, 나는 동지
생사운명 같이 할 혁명의 동지

《아리랑》의 연원과 민족적정서

박춘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랜 세월을 거쳐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고유한 예술적정서는 인민음악인 민요에 뚜렷이 체현되어 있다. 훌륭한 민요들은 다 짧고 간결하며 알기 쉽고 부르기 쉽다. 거기에는 쓸데 없는 장식이나 멋부림이 없고 까다롭고 번덕스러운것이 없다. 한번 들으면 따라 부르고 싶고 부를수록 인상이 깊어 지며 뜻이 새로와 지는데 인민음악의 특성이 있고 참다운 예술적가치가 있다.》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정서는 민요에 뚜렷이 체현되어 있어 오랜 세월이 흘러 가도 인민들은 그 노래를 사랑하며 부르고 또 불러도 인상이 깊어 지며 뜻이 새로와 진다. 우리 인민이 사랑하는 이런 민요들 가운데는 《아리랑》도 있다.

민요 《아리랑》이 우리 인민들속에 보급되어 널리 불리워 지기 시작한것은 오래지만 오늘날도 인민들이 사랑하며 부르고 있다. 조선사람치고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도 민요 《아리랑》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 그것은 이 노래에 고유한 민족적정서가 담겨져 있기때문이다.

어떤 민족이나 다 오랜 력사적시기를 거쳐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적특성과 고유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 민요 《아리랑》이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오늘날도 계속 불리우고 있고 최근에는 《아리랑》풍의 가요가 창작되고 있는것은 인민들의 집체적지혜에 의하여 창작된 이 노래에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가 체현되고 있는것과 관련된다.

민요 《아리랑》이 언제 창작되었고 또 그 연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들에 의하여 논의되었고 또 일정한 해명이 이룩되었다.

《아리랑》의 연원이 아무리 오래다고 해도 이것이 노래로 고착되어 사람들속에 널리 보급된것은 대체로 근대사회발전의 초시기라고 짐작할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고증할수 있다.

19세기 중엽과 후반기에 활동한 최영년이 쓴 《해동죽지》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30여년전에 아라리라고 하는 노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

는지 알수 없으나 온 나라에 퍼져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으리만하게 되었다.》

또한 1901년 11월 3일 《황성신문》의 론선 《민요를 통해서 시대를 알수 있다》가 발표되었다. 이 론선에서는 민요 《륙자백이》와 《아리랑》이 널리 퍼져 남녀상하가 모두 부르고 연회석상에서 북소리에 맞추어 춤추기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민요 《아리랑》은 19세기 중엽에는 상당한 정도로 보급되었으며 20세기 초엽에는 그것이 하나의 대중적인 가요로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리워 지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

《아리랑》의 발생설과 관련하여서는 여러가지 론의가 있다. 일부 론의에서는 고려가요인 《청산별곡》의 후렴구 《알리 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가 그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한편에서는 대원군의 경복궁건설과 관련시켜 이야기를 하고 있다.

1863년에 집권한 대원군은 경복궁재건공사를 벌렸다.

1865년 4월에 착공한 때로부터 1868년 7월까지 3년 3개월이나 걸려 건설한 12만 6,976평의 건평우에 웅대한 대건축물을 세우는 경복궁공사는 당시 리조국가의 경제형편으로서는 매우 어려운것이였다. 이 건설에 수많은 청장년로력과 막대한 량의 자금을 대느라고 농민들은 농사일을 망치게 되었고 수공업자들은 일자리를 잃어 버렸으며 중소상인들은 장사밀천까지 털리웠다. 결국 경복궁공사는 인민들의 원한과 저주, 규탄의 대상이였다.

대원군이 경복궁건설을 위해 《원납금》을 인민들로부터 받아 들일 때 징수도감을 두고 귀 아를 지경으로 관리들이 돈을 내라고 호통을 쳤다. 인민들은 이 소리가 듣기 역겨워 차라리 내 귀가 멀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자로 《아이롱》, (나아, 귀이, 귀머거리롱)이라고 하였다 한다. 여기로부터 《아이롱》이 《아리랑》이라는 음으로 와전되어 후렴구를 형성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것이 《아리랑》의 시작이라고 한다.

또 다른 설에서는 고향 떠나 몇달, 몇해씩 강제부역으로 시달리는 인민들이 자기들에게 큰 난리,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면서 《아난리》라고 했

는데 역시 이것이 와전되어 《아리랑》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경상도 노령산 밑에 살던 가난한 오누이와 관련된 전설, 밀양부사의 딸과 관련된 전설과 결부시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설들중에서 신빙성을 보여 주는 이야기는 리랑이라는 총각과 성부라는 처녀와의 기구한 사랑과 관련된 전설이다.

경기도지방에 김좌수라는 토호가 있었는데 그놈의 종으로 리랑이라는 총각과 성부라는 처녀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런데 김좌수가 처녀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였다. 격분한 리랑은 농민들과 함께 어느날 토호놈을 불의에 처단하고 성부와 함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리랑을 붙잡으려는 마수가 미치기 시작하자 그는 하는수없이 이 고장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때 성부는 떠나는 리랑을 배웅하며 《아리랑》이라고 하면서 떠나는 정든 님이 어려운 세상길에 나선다는 의미에서 《고개》로 나간다고 했다. 후에 《고개》는 《고개》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여러가지 《아리랑》의 발생설을 종합하여 보면 인민들의 불우한 사회적처지, 서글픈 생활감정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20년대중엽에 라운규가 창작한 예술영화 《아리랑》도 이러한 서글픈, 울분의 감정을 바탕으로 하였다.

일부 론의에서는 《아리랑고개》가 우리 나라의 어느 지명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으나 사실상에 있어서 이것은 무의미한 론의이다. 우리 나라 어느 지방에도 아리랑고개라는 지명은 없다. 아리랑고개는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들의 생활체험과 민족적정서를 반영한 가상의 고개이다.

우리 인민이 민요 《아리랑》을 그토록 사랑하는 까닭은 이 노래에 우리 인민이 당하였던 슬픔과 고통, 그리고 앞날에 대한 희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며 아름답고 우아한 선율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다.

《아리랑》이 우리 인민들에게 널리 보급되는 과정에 공통으로 전해지고 있는 《아리랑》과 함께 《서도아리랑》, 《긴아리랑》, 《강원도아리랑》, 《경상도아리랑》, 《밀양아리랑》, 《영천아리랑》, 《진도아리랑》, 《초동아리랑》 등 다양한 변종의 노래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엽에 여러 지방들에서 창작되어 불리워 졌다.

《아리랑》은 외형상 정든 님을 떠나보내는 서정적 주인공의 서글픔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노래가 아니다. 봉건 지배계급의 억압과 착취로 하여 정든 고향에서 살수가 없어 부모처자, 친척들을 버리고 류랑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 시기 인민들의 생활처지를 아리랑고개를 넘어 가는 서글픈 심정으로 노래하였던 것이다.

지난 시기 인민들이 《아리랑》을 자주 부른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경북공공사에 쓸 주춧돌이며 대들보감을 매여 나르는 강제부역에 동원된 인민들도 이 노래에서 자기들의 슬픈 감정과 서러움이 비유적으로, 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고통스러울 때나 슬플 때 이 노래를 불렀다.

《아리랑》이 대중들에게 보급되는 과정에 각각한 변종이 생겼다.

평안도지방에서 불리워진 《서도아리랑》은 곡조가 서글프고 노래가사도 서글픈 생활감정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지방에서 불리워진 《긴아리랑》은 느리게 애조적으로, 《강원도아리랑》은 느리고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애조적으로, 《밀양아리랑》은 《양산도》장단에 맞추어 경쾌하게, 《영천아리랑》은 사랑스럽고 흥겹게, 《진도아리랑》은 애조적으로 부르게 되어 있다. 물론 곡에 맞게 가사도 각이한 생활감정을 반영하고 있다.

《서도아리랑》은 《간다간다 나는 간다 님을 따라서 간다》는 노래로 시작되며 6, 7절에 가서는 《아리랑》에서처럼 《노다가소 노다가소 저 달이 지도록 노다가소》, 《청사초롱에 불 밝히려 그림던 랑군이 돌아 오리》라는 구절로 끝이 나고 있다. 그리고 느리면서도 애조적으로 부르는 《강원도아리랑》에서는 보다 더 련정적이다. 또한 《밀양아리랑》은 더 쾌활하게 《양산도》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다. 여기서는 부드럽고 서글픈 서정으로 부르는 《아리랑》의 흔적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아리랑》이 가사의 변종이 많고 다양한 양상으로 불리워진 이유는 이 시기 인민들의 미학적요구의 다양성과 관련된다.

우리 인민은 감정과 정서가 풍부하다. 따라서 우리 인민에게는 구슬픈 노래만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과 격에 맞는 노래가 요구되었다. 이런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다양한 정서와 생활의 요구에 맞는 《아리랑》의 변종이 나오게 되었다.

다양한 변종의 이 노래들은 어느 한 지방에서 먼저 창작되었으나 점차 근대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적인 폐쇄성이 없어지면서 각 지방에서 창작된 노래들은 서로 지방적인 한계를 벗어 나 침투하게 되었으며 개작하기도 하고 격에 맞는 노래를 선별하여 부르게도 된 것이다.

《아리랑》이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보급되는 과정에 《신아리랑》가요군이 나왔다.

《신아리랑》가요군은 일제가 우리 나라를 완전히 잠점한 이후의 시대적인 풍조를 반영한 노래로서 조선인민이 당하고 있는 참혹한 현실과 불행, 고통과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가요의 형식은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는 민요 《아리랑》구를 각양한 방법으로 변형시키면서 후렴구도 불렀고 노래는 그리 길지 않게 2~3개의 련으로 구성되었다.

《신아리랑》가요군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은 일제침략자들의 억압과 통치를 규탄한것, 일제놈들의 억압에 대한 조선인민의 항변, 일제놈들로 하여 초보적인 인권마저 상실한 우리 인민의 처지, 살길을 찾아 이국만리로 떠나가는 처량한 정경 등이다. 그리고 《신아리랑》가요군에는 이국땅에서 당하는 조선인민의 고역과 처지를 노래한것도 있다.

《신아리랑》가요군은 일제통치하에서의 우리 인민의 울분의 감정을 보여 주었을뿐 반일투쟁으로 고무하지 못한 제한성을 발로시켰다. 그러나

《신아리랑》가요군은 일제놈들을 풍자비판하고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을 고취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기에 일제놈들은 1920년대 말부터 조선인민들이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탄압하는데 혈안이 되어 날치였고 주체22(1933)년에는 민요들의 레코드검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신고산타령》, 《배꽃타령》, 《도라지》와 함께 《아리랑》이 취입된 레코드판매를 금지까지 시켰다.

《아리랑》은 민족적향취와 서정이 짝은 민요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일제놈들이 《아리랑》을 조선인민들이 부르지 못하게 탄압하였으나 1920년대는 물론 1930~40년대 전반기까지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널리 보급되었다.

민요 《아리랑》은 조국이 해방된 다음에도 우리 인민이 사랑하는 노래로 널리 불리웠다.

조국해방의 새로운 력사적인 현실은 《아리랑》이 담고 있는 구슬프고 처량한 한계를 넘어 약동하는 현실, 우리 인민의 기쁨과 흥겨움을 민족적 서정과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나가면서 새 시대의 《아리랑》가요군을 산생시킬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통일아리랑》을 비롯한 여러가지 류형의 《아리랑》가요들이 나왔으며 최근에는 《강성부흥아리랑》, 《군민아리랑》이 창작되어 널리 불리우고 있다. 민족적정서가 짝은 새 시대의 서정을 담은 《아리랑》은 앞으로 더많이 창작될것이다.

상식

특이한 통신방식-중성미자통신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로 수소(H_2)는 핵안에 양성자 하나가 있고 그 주위로 전자 하나가 돌고 있다. 보통수소보다 무거운 수소를 중수소라고 하는데 이 중수소 핵에는 보통수소보다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 그 주위로는 보통수소와 같은 수의 전자가 돌고 있다.

그런데 중성자보다도 더 작은 중성립자가 소립자물리학의 발전과정에 발견되었다.

이 립자를 중성미자라고 하는데 전기적으로는 중성이며 질량이 매우 작은 립자이다.

최근 이 중성미자에 의한 통신이 가능하다는

리론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쓰고 있는 전자기파에 의한 통신으로는 지구의 서로 반대쪽에서 통신을 보장하려면 여러 지점에 중계소를 설치하고 되받아 넘겨야만 통신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성미자통신이 성공하면 한쪽 끝에서 중성미자파를 지구에 쏘면 즉시에 지구를 꿰뚫고 반대편에 전달되게 된다. 중성미자는 지구를 12번 관통하여야 자기의 에너지를 잃을 정도로 강한 투과력을 가지고 있다.

중성미자에 의한 통신이 성공하면 지금의 통신방식으로는 해결할수 없는 많은 난문제들이 해결될것이다.

시의 《신선》

방랑시인으로 유명한 김삿갓(본명 김병연, 1807~1863)이 금강산에서 시를 제일 잘 짓는다는 중을 찾아 갔다.

그 중은 내금강 마하연이라는 암자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금강산에서 나서 자란 사람으로서 금강산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깊고 또한 시를 짓는데서도 당대에 한다하는 문장가보다 못지 않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중을 찾아 간 김삿갓은 이렇게 청하였다.

《대사가 시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 왔소이다. 청컨대 대사와 함께 금강산에 대한 시 짓기를 겨루는것으로 한때를 즐기게 하여 준다면 더없이 기쁘게 생각하겠나이다.》

김삿갓의 청을 들은 중은 노여운 어조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 산속에서 50여생을 살아 오면서 수많은 문객들을 맞고 보냈지만 아직 이 금강산에 알맞는 글귀를 남기고 간 사람은 보지 못했소. 그런데 당신은 얼마만한 글재주를 가졌길래 감히 금강산에 대한 시를 가지고 내기를 하자고 청하는것이요?》

이 말에 김삿갓은 호탕하게 웃고 나서 《금강산이 천하명승인데 그에 대한 시가 졸작이라 어이 근심하시오? 금강산이 생긴 그대로 읊으면 시도 또한 천하명시가 될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대의 담력이 그러하다면 내 응하겠지만 만약 저 청렴하고 신령스러운 금강산을 털끝만치라도 손상을 주거나 욕되게 하는 시구가 나타난다면 내 당신의 이발을 빼버리겠소.》

중은 더욱 노여워 이렇게 말하였다.

《뉘 이발이 빠지겠는지는 겨루어 보아야 알겠지만 저는 오직 금강산의 절경을 보고 놀뛰는 감회를 누를길 없어 두 마음을 합쳐 부른다면 필경 우리 마음을 흡족케 할 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뿐이옵니다.》

김삿갓의 말을 들은 중은 더 거절하지 못하고 비로봉 높은 꼭대기에서 시작하여 만폭동 끝안을 흐르는 사선계개울까지 이르면서 시 짓기를 하기로 하였다.

시는 먼저 금강산을 잘 아는 중이 구를 떤면 김삿갓이 그에 화답하는 식으로 지어 나갔다.

중: 이른 아침 립석봉에 오르니

구름은 발아래 생기고

삿갓: 저녁에 황천수의 물을 마시니

달이 입술에 걸리더라

중: 사람의 그림자는 물속에 잠기였어도

웃은 하나도 젖지 않았고

삿갓: 꿈속에 청산을 오르고 내려어도

다리는 하나도 아프지 않네

중: 산에서 돌이 굴면

천년이 걸려야 땅에 닿을듯 하고

삿갓: 산이 한자만 더 높으면

손이 하늘에 닿을듯 하여라

중: 가을구름이 만리에 뻗었으니

흰 고기비늘이 겹쌓인것 같고

삿갓: 천년 묵은 고목의 뻗친 가지는

사슴의 뿔이 높이 솟은듯 하구나

중: 청산을 돈을 주고 샀더니

구름은 공으로 얻고

삿갓: 맑은 물가에 다달으니

고기는 저절로 모여 드누나

중: 절벽은 비록 위태롭게 솟아 있어도

그우에서 꽃이 웃는 경치가 좋고

삿갓: 양춘은 비록 아름다워도

새는 울며 떠나가니 비감이 생긴다

중: 물은 절구공이가 되어

절벽을 연방 내려 찰고

삿갓: 구름은 옥으로 만든 자가 되어

청산을 재여 간다

이렇게 중이 연방 불러 대어도 김삿갓이 거침없이 대답을 하는데 그것이 앞뒤가 꼭 맞을뿐 아니라 그 뜻이 하도 깊어서 신기할 정도였다.

마침내 중은 더 내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마지막구를 떤였다. 그것은 그가 아끼던 시구라 김삿갓이 분명 막히리라 생각했던것이다.

중: 달이 희고 눈이 희니

천지가 다 희고

삿갓: 산이 깊고 물이 깊으니

나그네 수심도 깊다

중은 김삿갓의 이 대답에 그만 감동되어 입을 딱 벌리고 시구를 떤지 못하였다.

중이 김삿갓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삿갓도 마주보며 다음구를 기다리다가 더 내지 않기에 한마디 하였다.

《아니 왜 바라보시기만 하시오? 인제 그만 이발을 빼여 버리려 하시오?》

김삿갓이 이렇게 빈정대며 웃으니 중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 감탄조로 말하였다.

《그대는 누구인가?》

《김삿갓이옵니다.》

《김삿갓! 소문에도 시에 귀신이라 하더니만 오늘 보니 그대는 과연 시의 신선일세.》

내 고장의 분노

량덕모

신천은 여기에도 있다

풀지 못한 비분에 흐느끼듯
남대천 푸른 물이 기슭을 치는 마을
여기 망각대언덕에서도
저 멀리 신천처럼 치떨고 있다
생목숨을 꺾인 이들 원한에 찬 봉분이

그네들 서리발 분노가 내뿜은듯
대리석 하얀 비석들 줄줄이 눈에 아프고
-원썩을 갇아 달라!
구천에 사무친 절규
잔디풀 잎잎에 시퍼렇게 맺혀 있는 곳

바로 여기, 여기에도 있다
야수들이 사람의 머리에 박은
신천의 피 묻은 대못이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탕친
신천의 녹슨 칼이...

여기에도 있다
일가식술을 생매장한
끔찍한 사실이

때려 죽이고 물어 뜯어 죽인
흠혈귀들 씻지 못할 피자국이...

아, 미제승냥이들 발길이 닿은 곳
이 땅 어디라고 다르랴
그 자국자국
무고한 내 민족의 피가 즐편하고
선량한 애국의 넋이 란도질 당했거니

복수하라 복수하라
천만자루 총창으로 일어서는
신천의 못이 여기서도 몸부림친다
천만자루 장검으로 바꾸어 들
신천의 칼이 여기서도 울고 있다

오, 미국이란 땅덩어리를 박살내고
악귀 같은 놈들을 저승으로 날려 보낼
분노의 화약고
원썩들의 만행을 고발하며 격노하는 땅
신천은 하나가 아니다
여기에도 있다! 여기에도 있다!

백다섯명

추녀에 추녀를 잇고
오손도손 살던이들
저 남대천굽이 살진 벌에서
오곡을 키우며 기쁨을 쌓던이들
죽어서도 함께 있는 백다섯명

몽둥이에 맞아 죽은이는 누구
전기고문에 죽은이는 누구
눈 뜨고 흠에 묻힌이는 누구
분통에 목이 댔는가
불러도 대답 없는 백다섯명

선전실 한방이면 다 모이는 마을에서
이 많은 사람들 잃다니

오호, 통분토다 통분토다
그 분함의 불 터진 6월이 오면
그네들 묘비앞에서
우리 다진 복수결의모임인들 몇십번

그때마다 받아 안은
그네들의 피 타는 당부
이 가슴에 쌓이고 쌓여
노한 불이 되고 칼이 되었으니
그 불길 저 하늘끝 검은 구름도 태우리
그 칼날 대양 건너 원썩의 가슴팍도 찌르리

세월이 갈수록
더 활활 일어 솟고

서슬 푸르게 날이 서는
내 고장의 분노여!
천추만대 안고 살
조선의 분노여!

끄지 못할 그 화염을 내뿜으며
빼앗긴 생을 영원히 사는 이들
최후의 순간에 높이 부른
《김일성장군의 노래》소리 들려 온다

틀어 켜 손에서 놓지를 않은
공화국기발이 펄럭이며 어려 온다

그것을 운명으로 행복으로 안고 간 이들
벌을 가꾸는 우리 일손도 달구고
단잠든 마을도 불이 이는 눈으로 지키며...
단 한결음조차 양보할수 없는
계급투쟁의 전초선에
불변의 기수로 서 있다!
아, 백다섯명

빨간 색연필

몸에는 빨간 색연필 한자루
그것밖에 귀한것이 없어
소녀는 손바닥에 받쳐 들고 소리쳤다
-아저씨, 이것을 줄터이니
내 동생만이라도 살려 주세요!

철부지소녀의 손에서 떨고 있는
빨간 색연필
공화국기발 오각별도 그리고
숙제공부 답에만 밀줄을 그으며
동생이 달라고 졸라도 눈 흘기며
아껴 온 보물

리인민위원장집안이라 하여
흙구멍이속에 참혹하게 묻히는 이 순간
원썬놈들 미운 상관대기를 쏘아 보며
그래도 사람이겠지
그 색연필을 주면
사랑하는 동생을 살려 줄것 같아
소녀는 천진란만한 하소를 하였다

아, 그러나 그것은 아니할
마지막 부르짖음이였다
오히려 너털웃음을 쏟으며
소녀의 머리우에 한삽 또 한삽
어머니와 언니 동생의 머리우에도
차거운 흙 죽음의 흙을 한삽 또 한삽
원썬들은 사정없이 덮었다

...지금은
계급교양실에 놓여 있는 그 색연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또박또박 새겨 준다
-원썬놈들은 인간이 아니다
더운 피 한방울 없는 악마다

오, 글자마다 빨강게 살아 오르며
활화산 같은 증오의 불길 지펴 주거니
소녀가 남기고 간 빨간 색연필
가슴가슴에 움아 붙는 복수자의 불씨여!

복수의 칼을 갈라

들을수록 볼수록
반세기전 살륙의 참상
오늘도 심장을 저미는 여기서
사람들이여!
때없이 복수의 칼을 갈라

크지 않은 계급교양실
피 맺힌 이야기 하나
원한 서린 실물 하나하나
그우에 얼핏 마음을 스치기만 해도
숫돌처럼 날을 세워 주거니

복수의 칼을 갈라
만약 그 칼날이 무디기만 해보라

전시대우의 저주로운 저 탄알이
그대 가슴을 뚫고
생매장터 흙이 발린 저 삽날이
그대 처자의 머리에 날아 들리

순간이나마 원썬을 잊고 산다는것은
피에 주린 승냥이앞에서 낮잠 자는격
돌이 물이 됨을 설사 믿어도
믿지 말라 그놈들을
《유화정책》의 아양을 떨어도
《원조》의 선심을 쓴다 해도
속에는 항상 검은 칼을 품고 있음을
얻어 맞고 부러진 침략의 이발
오히려 핵이발로 갈아 대고

살기 띤 눈알
우리를 집어 삼킬
기회만 노리고 있는 극악한 식인종들

지금껏 버리고 버린
그 칼날에 실린 피값을
천만분의 하나도 받아 내지 못했는데
또다시 전쟁의 포문을 열고 있는
준엄한 이 시각

사람들이여!
분노를 갈고 증오를 갈아

천백배 복수할 마음의 칼날을 세우라
저 신천과 내 고장의
빼 저린 피의 교훈
원췌에 대한 미련과 타협은 죽음이다

오오, 순간도 놓을수 없는
계급의 칼
붉은기와 더불어 높이 들어야 할
혁명의 붉은 칼을 갈라!
복수의 칼을 갈라!

(단천시 직절땅에서)

천막속에서 외 1편

리찬호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는 야외훈련장
한겹 천막이 어떻게
혹한의 추위를 막아 냈던가

가운데자리는 저마끔
전사인 나에게 양보하고
찬바람 스며 드는 바깥쪽에
잠자리를 정하던
사관들의 그 진정에
분명 천막안은 후더웠다

눈보라는 몰아 쳐도
천막속엔 웃음꽃
그 웃음 머금고
분대장의 팔을 베고

저도 몰래 잠들 때

아, 몰랐다
그들이 언제 슬그머니
나에게 모포를 덧씌워 주었는지
언제 나의 찬발을
제품에 그러 안고 잠들었는지

허나 알았다
고향집아래목 여기 없어도
동지애의 후끈한 아래목을
전사인 내가 독차지했음을!

오, 이 한겹 천막을
그 어떤 총탄이 켤수 있으랴

용감성

어릴적
동무들과 영화를 보며
론쟁도 많이 했다
용감성이란
두려움을 모르는 기질이라고

영화나 책에서
얼마나 많이 그려 봤던가
적진에 뛰어 들어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는
정찰병 주인공의 무흔을 두고
갈범처럼 펄펄 뛰며
원췌를 죽치던
어느 용사의 겁 모르는 담력을 두고

입대하여

그것이 비싸게 차레지는 소득물이라
아찔한 칼벼랑을 바줄로 넘을 때면
내 뒤에서 주춤하는 전우를 혼시켰다
용감성을 두고 자주 입에 올렸다

그런데 그가
늘 조용하고
남의 눈에 잘 띄우지 않던 그가
뜻하지 않게 조성된 위험을 막아
남 먼저 수류탄을 던져
전우들을 구원했을 때

아, 용감성이란 무엇인가
이제는 내 그 물음앞에
가슴 뜨거운 추억을 되살리게 된다
나의 전우, 그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새 세기 첫해편집을 끝내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창작은 심오한 사상과 높은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세계관이 바로 서고 철학적사색이 깊으며 창작적열정과 예술적자질이 높은 작가라야 인민의 사랑속에 력사에 남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12 개 호에 실린 소설들을 더듬어

눈이 내립니다.

온 강산을 덮으며 송이송이 내려 쌓이는 눈송이, 눈송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소담한 하얀 눈송이는 내리고 내려 쌓이며 이해의 하많은 추억의 갈피갈피를 불러 줍니다.

희망찬 새 세기-21세기의 첫해에 우리 《조선문학》이 걸어 온 자욱자욱을 깊은 감회속에 돌이켜보는 우리의 마음 정말로 뜨겁습니다.

언제나 시대와 숨결을 같이 하며 시대의 전형들을 참신하고 생동한 화폭속에 그려 내어 사람들을 투쟁으로 고무하고 생활의 참된 길동무로 되어 준 우리의 소설문학.

올해도 우리의 소설문학은 격변하는 새 세기의 흐름에 발 맞추어 큰 걸음을 내짚으며 걸어 왔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 따라 강성대국건설에로 힘차게 내닫는 우리 시대의 격동적이며 본질적인 생활을 소박하고도 꾸밈없이 또 무게 있고 깊이 있게 그려 낸 우리의 단편소설들.

《생의 메아리》, 《다래나무지평이》, 《아침》, 《스물한발의 <포성>》, 《한 분조장의 수기》, 《지리산의 메아리》, 《해 저무는 백사장에서》, 《회초리》... 근 50편의 단편소설들.

정말 얼마나 많은 소설작품들이 우리 《조선문학》의 페이지들을 다채롭게 또 아름답게 장식했습니까.

비록 매수는 많지 않고 문장은 화려하지 못해도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며 예리한 안목으로 현실과 생활을 깊이 있게 투시하고 시대의 본질을 자기 작품에 담으려는 지향과 열정, 크나 작으나 자기의 뚜렷한 몫을 가지려는 작가적인 노력이 작품마다에 깃들어 있어 기뻐했습니다.

특히 젊은 신진작가들이 자기의 개성적인 얼굴을 가지고 우리 《조선문학》에 등장한것으로 하여 우리 소설문학의 밝고 양양한 전도를 확신을 가지고 그려 볼수 있어 정말로 반가웠습니다.

또한 우리 소설문학의 형태를 다양하게 개척하고 자기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문체를 확립하려는 시도들 역시 우리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는 그렇지 못한 작품들도 있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해줍니다.

전진하는 시대의 발걸음에 따라 서지 못하고 낡고 구태의연한것을 그대로 들고 나오는 작품들, 자기의 몫이 없고 작가의 뚜렷한 얼굴이 보이지 않는 작품들, 형식과 양상에서 새롭지 못하고 낡고 진부한 작품들...

그러한 작품들을 대할 때마다 작가의 사명에 대하여, 작가적량심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작품은 작가의 얼굴이며 작가의 량심의 결정체, 열정의 산물입니다.

우리모두 자기 작품을 놓고 돌이켜 봅시다. 진정 자기 작품에 자기의 깨끗한 량심과 뜨거운 열

정을 바쳤는가를, 이것이 나의 작품이라고 부끄
러움없이 말할수 있는가를...

...하많은 추억속에 눈송이는 하염없이 내리고
쌓여 우리들의 어깨우에 무겁게 실립니다.

새 세기 주체문학의 담당자들인 우리 작가들의
어깨는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작가는 시대의 기수이고 선도자이며 현 시대는
실력전의 시대입니다.

실력의 높이는 작가의 높이이고 작가의 높이는
우리 문학의 높이입니다.

자기의 작가적사명에 대한 자각, 자기의 실력
을 끊임없이 높이려는 부단한 노력, 이것이 없이

는 우리 문학의 발전을 기대할수 없는것입니다.

우리모두 분발하고 또 분발합시다.

새 세기의 첫해가 저물어 가고 새해가 다가옵
니다.

우리 《조선문학》은 지난 한해동안 훌륭한 작
품들을 보내준 여러 작가동지들에게 충심으로 되
는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 훌륭한 작품들을 기대합니다.

인간문제에서 새롭고, 생활철학의 깊이에서 심
도 있고, 형상에서 참신하고 생동하고, 개성에서
독특한 그러한 작품들을 우리 《조선문학》은 기
다릴것입니다.

서정의 한해를 밝아 보며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 찼던 새 세기 첫해,
시대를 가열시키고 인간을 정화시키며 한해를 질
주해 온 우리의 《조선문학》!

이해의 마감장을 덮으려니 참으로 손이 무거워
집니다.

눈 여겨 보면 얼마나 좋은 시들이 시대를 기쁘
게 했습니까.

《전야의 사랑가》, 《아기앞에서》, 《아쉬워도
보람 있는 삶》, 《병사는 노래한다》, 《만아들의
목소리》, 《두 세월의 상봉》, 《비녀》, 《6월
의 총성》...

크나 작으나 제 목소리로 웨치니 듣기가 좋았
습니다.

깊은 곳에서 끌어 올린 목소리는 역시 울림이
컸습니다.

토색 짙은 서정으로 시대를 껴안고 마음껏 멋
을 부린 《전야의 사랑가》.

매 시편마다 피가 흐르고 맥박이 뛰는게 얼마
나 좋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인간들의 생활속에서 우리 시대
가 얼마나 잘 뽑혀 나왔습니까.

그런가 하면 시 《아기앞에서》는 생활의 진실
성과 섬세성, 지어는 소박하면서도 투박하기까지
한 어휘가 내는 맛을 리용하여 형상을 부각시킨

독특한 작품입니다.

멋을 부린 흔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시가 《멋》
있을가.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았습니까.

생활을 대하는 작가의 솔직성이였습니다.

새 세기의 대문을 열며 또한 혁신적인 시들의
출현으로 하여 《조선문학》이 이채로와 졌습니다.

시 《만민의 당부》와 《6월의 총성》은 도식적
인 기념시틀에서 벗어 나 새롭게 해보려는 의도
가 엿보이는 참신한 작품들이라고 말할수 있습니
다. 그러나 이와는 거리가 멀게 독자들을 서운케
한 시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작가의 고민이 보이지 않고 몸부림이 느껴 지
지 않는 시들, 차라리 있는것보다 없는것이 더
좋았을걸 하는 시들이 머리로 들지 못한채 이해
의 마지막눈을 맞고 있습니다.

자책도 크고 가다듬는 결심도 크리라는것을 믿
어 의심치 않으며 우리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
저 하립니다.

올해 《조선문학》의 서정시흐름을 따라 서보면
단조로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듯 다양한 서정시들이 매번 한 모자를 쓰
고 나오니 독자들이 얼마나 따분했겠습니까.

시대와 나팔수들은 여기에도 응당한 주의를 돌
려야 할것입니다.

가슴 벅찬 시대와 함께 누구보다 많이 뛰어 다녔고 누구보다 수고 많았던 우리의 시인들.

새해에는 어떤 기쁨진 작품으로 독자들을 기쁘게 해주려는지,

류달리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래년에는 우

문학을 선도해 온 한해를 돌이켜...

20세기를 보내고 새 세기를 맞은 류다른 기쁨과 환희속에 잡지 첫호를 내놓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란 무수한 날들이 흘렀습니다. 그 나날들에 잡지 《조선문학》도 부피 두터워 졌습니다.

우리 잡지의 갈피갈피에는 약동하는 오늘의 시대가 탄생시킨 아름다운 인간들의 숨결과 함께 그 인간형상창조를 선도해 온 평론가들의 창작적 열정과 체온이 후더이 실려 있습니다.

모든것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실천할 것을 바라는 21세기의 첫해 우리 잡지에 실린 평론문학은 내용과 형식, 문체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안아 왔습니다.

한편한편의 론설, 평론들을 보면 기성의 틀을 깨고 평론의 본도를 지켜 무게 있고 생신하게 써보려는 창작적의도가 좋았습니다.

잡지 1호와 9호에 실린 론설 《새 세기와 선군혁명문학》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평론에서 근본적인 혁신을!》에서는 선군혁명문학의 탄생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고찰, 그 성격과 사명, 창작원리와 방도에 대하여 그리고 평론창작에서의 질적개선을 위한 문제들을 논리적이면서도 간결하게, 그러면서도 설득력 있게 론증함으로써 정책적대가 명백하고 작가의 개성이 강하게 울려 와 좋았습니다.

론설뿐아니라 평론도 때뻗이하였습니다.

지난 시기 총서작품들에 대한 도식적인 해체평과 달리 하나의 기본문제점을 세워 짜인 구성속에 작품형상전반을 정확한 분석력과 너성적인 섬세한 필치로 몰아 간 평론 《영원하라 신념과 랑심의 붉은 산줄기여》와 《위대한 정치가 낳은 20세기의 기적에 대한 서사시적화폭》은 독자들의 호평속에 읽히우고 있습니다.

평자의 심장의 박동이 금시 들리는듯 한 발랄

리 시인들의 뭉이 제일 크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편집부는 훌륭한 명작과 함께 건강한 시인들의 모습을 다같이 기대하며 《조선문학》의 마지막 장을 천천히 덮습니다.

한 필치로 작가들의 창작세계와 새로운 형상적뭉을 펼쳐 독자들의 가슴을 한순간에 틀어 잡은 평론 《생활적인 시에 대한 소감》.

이런 평론들중에는 머나먼 이역땅에서 작가생활을 하고 있는 작가들을 뜨거운 애정속에 고무해 준 《포옹이 뜨거우면 심장은 사랑한다》가 있는가 하면 생활이 진실한 작품에 매혹되어 심금을 터치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어 창작의 붓을 달린 《흥미와 진실을 론하고 싶어》도 있습니다.

또한 20세기 조선녀성들의 사랑관과 행복관에 대한 문학적고찰을 민족적정서가 짙게 평한 《사랑과 행복에 대한 문제와 녀성형상》, 《참말》로만 시대를 노래한 선배시인에 대한 추억 깊은 20세기의 추억 《고향속의 조국, 조국속의 고향을 응시하며》등 이채로운 평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잡지엔 총알처럼 알찬 이삭들만 있는것이 아니였습니다. 평론의 선도성을 약화시키는 뒤꼇목평론, 찬양일변도식평론들이 새 세기에도 없어 지지 않아 독자들의 눈을 아프게 자극 하였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고 같은 시대의 작품들을 대할진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평론도 창작이다. 평론에는 평론가의 독창적인 발견과 주견이 있어야 한다. 아무런 랑구도 없이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리론을 되풀이한 평론은 고유한 의미에서 평론이 아니다. 평론에서 새것을 들고 나가자면 평론가가 담이 커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평론명작창작의 성과적비결은 평론가의 담이 큰데 있습니다.

평론가의 담이 커야 시대의 한복판에서 시대를 호흡할수 있으며 당정책적안목으로 작품을 립체

적으로 투시할줄 아는 정확하고도 예리한 미학적 안목을 가질수 있으며 형식과 문체에서도 작가적 개성을 옹게 살려 나갈수 있습니다.

종자의 반복성, 구태의연성과 진부성, 평면성과 고루한 문체-이것은 평론의 금물입니다. 그러므로 평론의 이런 현 실태에서 질적비약을 하자면 평론가가 담을 키워야 합니다. 이글거리는 용광로의 쇠물 같은 뜨거운 열도를 가지고 평론창작의 붓을 들어 주십시오.

시대와 작품의 주인공과 함께, 창작가와 함께

울고 웃으며 크게 호흡할줄 아는 큰 심장을 가진 평론가만이 작가에 못지 않은 예술적감각과 풍부한 형상적환상력이 끝없이 내려쳐 독특한 자기 그릇에 개성적인 목소리가 울리게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평론의 권위도 서고 평론의 선도적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새해에도 독창적이면서도 참신하고 기발한 종자를 탐구하고 그에 맞는 여러가지 형식과 문체도 대담하게 개척하여 철학적무게가 있고 친절한 평론들을 더 많이 써주십시오.

아들의 인사

박현철

어서 떠나자고
렬차는 기적을 길게 올리는데
벌써 위훈의 한 층계를 오르는듯
나는 서둘러 승강대에 뛰어 올랐다
어머니께 미처 머리 숙여 인사도 올릴새없이

그러는 아들을
이제는 병사가 된 림름한 아들을
그래도 어머니는 장히 바라보셨다
허나, 하이얀 손수건 접어
눈굽에 맺힌 물기
나 몰래 그 몇번...

덜컹-
육중한 쇠바퀴가 두줄기 레루우로
내 인생의 철 없던 시절을 잘라 내며 굴러
가는가
떠나는 렬차의 승강대에서
그때야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아 난생처음 똑바로 쳐다 보았다...

따라 서며 따라 서며
웃는듯 우시는듯...
날 위해 어느 하루 마를새 없던
그 젖은 손을 들어 어머니 저으실 때
답례의 작은 손 들었으나 오래 들수 없었더라
나도 몰래 눈가에 어리우는... 그 눈물에 가리어

정녕 이 순간에
유년은 다 끝나고

총 잡은 조국의 병사로 되는것인가
앞은 가리어도 그너머 보여 지는
어머니 서계시는 저기-내 고향
두고 가는 모든것이 새로웁구나

잘 있으라
맨발로도 뛰놀던 대동강기슭의 파아란 금잔디야
온 나라가 허리띠 조일 때에도
배움의 글소리 더높이 울려 준 정든 모교야
렬차는 또다시 기적을 올리며
마지막굽이를 돌아 서는데
역두에 아직도 그냥 서계시는 사랑하는
어머니여!

이제야 손을 들어
삼가 인사를 드리는 이 아들을 용서하시라
군용렬차의 승강대를
선군의 시대에
조국이 세워 준 영광의 단상처럼 내 딛고 서서
가슴 펴고 들어 올린 병사의 첫 거수경례!

받으시라 아들의 인사중에서
가장 빛나는 병사의 이 경례
설사, 어머니 지금 보시지 못한다 해도
김정일장군님 병사되어 떨치는
자랑찬 위훈되어 전해 지려니
내 만약 원쑤와의 격전장에 피 흘려 쓰러진다면
나의 이 첫 경례
영웅의 빛나는 금별이 되어
사랑하는 어머니께 가닿으리라!